信 心과 情性으로 靑銅文化의 脈을 이어가는 匠人들의 作品
불상 · 탱화 · 범종 전시관
전화:02-735-1045 / 팩스:02-735-2344

현대불교

55 세부터의 월급, 국민은행에서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개인 연금 신탁
가입문의 : 080 - 023 - 4000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8년(서기 1994년) 11월 30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곧은 마음이 도량이다.
〈유마경〉

법회 안내

옷산 불광사 (02)359-5367
거사림법회 둘째 일 오전10시30
청년회법회 매주 일 오전 10시
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후 3시
중등부법회 매주 일 오후 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 11시

법안정사 (02)646-4975
가족법회 매달 첫째 토 저녁7시
신도법회 매주 일 오전 10시
청년법회 매주 토 저녁 7시
중 고등법회 매주 토 오후 4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 10시

사천왕사 (02)939-3900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 3시
중등부법회 매주 일 오후 2시
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후 4시
청년부법회 매주 토 오후 6시
거사림법회 첫째 목 저녁 8시
입요법회 매주 일 오전 10시

미타사 (02)297-1992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 고등법회 매주 일 오후2시
대학부법회 매주 수 저녁 7시

부산 혜원정사 (051)866-7772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학생법회 매주 일 오후 2시
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 3시
청년부법회 매주 일 오후 2시

충남 영각사 (0458)37-2430
초하루법회 매월 초하루(음)
인등기도법회 매월 15일(음)
지장기도법회 매월 18일(음)
관음기도법회 매월 24일(음)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부루나 포교원 (032)576-9741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3시30분
중 고등법회 매주 토 오후3시30분
입요법회 매주 일 오전 11시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진주 월경사 (0591)53-6411
신도법회 매월 3일 오전 1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합창단법회 매달 15일 오전10시

※ 이난은 각 사찰의 법회 소식을 알리는 난입니다.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 · 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총무원장에 月珠스님

개혁회의 해산···25일 새 집행부 출범

조계종 28대 원장, 168대 146으로 당선

월주스님(59, 금산사 회주)이 조계종 제28대 총무원장에 선출됐다.

지난 21일 오후 1시부터 조계사 대웅전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월주스님은 1백68표를 얻어 1백46표를 얻은 월탄스님(불교발전연구원 이사장)을 22표차로 물리치고 당선됐다.

이날 투표에는 재적 선거인 3백19명중 지관(해인사 주지) 일타(은해사 주지) 진관스님이 불참, 3백16명이 참가했고 2표가 무효처리 됐다.

월주스님은 개표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새로운 한국불교를 만들어 달라는 종도들의 염원이 뒷받침돼 당선된 것 같다"고 지지해준 종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경합자인 월탄스님을 지지한 종도들의 뜻도 종단발전을 위한 것은 적극 수렴해 종단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뷰 3면〉

새로 총무원장에 선출된 월주스님은 전북 장읍 출신으로 지난 56년 금오스님에게 비구계를 받았으며 10하안거를 성만했다. 개운사 · 금산사 주지, 종회의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 80년 4월 제 17대 조계종 총무원장에 선출됐다가 10 · 27 법난으로 6개월만에 물러났다.

현재 경실련 · 불교인권위 · 평불협 · 한국시민단체협 등 10여개 시민 · 사회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다.

이로써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장기집권 체제를 무너뜨리고 개혁의 새지평을 연 개혁회의는 최대과제였던 종헌 · 종법 개정 재정과 함께 합법적인 총무원장 선출을 마무리짓고 평화적 종권 이양을 완수하고 지난 24일 해산식을 실시, 25일 인수인계식을 가졌다.

한편 월주스님의 총무원장 당선을 축하하는 축하연이 21일 오후 6시 하림각에서 3백여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사형 사제 종단의 개혁완수와 불교중흥을 위해 총무원장에 출마한 월주스님(오른쪽)과 월탄스님은 사형사제다. 서로의 애증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존경한다는 것을 선거직전 굳게 잡은 두 손과 환한 웃음으로 보여줬다. 선거 후 두스님은 깨끗한 승복과 활기찬 새출발로 경쟁자의 관계가 아닌 수행과 애증의 길을 함께 걷는 사형사제의 자리로 돌아갔다. (사진=박재완 기자)

1천 2백여 스님 산문닫고 정진

전국 60여 선원서 ··· 외국인 스님 · 재가불자도

불기 2538년 동안거 결제가 지난 17일 전국 선원과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이번 동안거는 조계종의 총림 4, 비구 30, 비구니 22개의 선원과 태고종 선암사 칠전선원등 60여개의 선원에서 총 1천 2백여명의 스님이 결제했다. 이들 스님들 가운데는 조계총림과 신원사, 화계사 등의 국제선원에서 31명의 외국인 선승이 결제했다. 또한 영축총림 보살선원과 용화사 법보선원등의 재가자를 위한 선원에도 2백50여명의 신도가 결제에 임했다.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은 이번 동안거 결제 법어를 통해 "여기 지극한 도리가 하나 있으니 시간으로는 삼세에 통하고 공간으로는 시방을 꿰도다. 천마디 말로도 미칠 수 없고 만번의 생각도 흡족치 않도다"며 "흐르는 물에 깊은 뜻을 알면 비로소 청산의 본래 푸르름을 알리라. 급고 곧고 가로 세로 또한 청황까지도 중생의 마음으로 분별한 것을 벗어나지 않도다"고 했다.

이번 결제에는 전북 월명암(주지 삼밀)이 처음으로 선원을 개설, 서옹스님을 조실로 11명의 스님이 결제에 들어갔다. 이외에도 약수암 죽림선원은 선원 중창불사를 마치고 3년만에 다시 선원을 개원, 31명의 스님이 결제에 들어갔으며 미타사선원도 선원불사를 마치고 15명의 스님이 결제했다.

총무원장 인준

지난 23일 원로회의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혜암, 해인사 방장)는 지난 23일 조계종 총무원 청사 4층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월주스님을 조계종 신임 총무원장으로 인준했다.

17명의 원로스님중 14명이 참석한 이날 원로스님들은 새 집행부에 대해 "부처님 법에 의거한 원리원칙에 입각해 종단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단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사 앞 뜰에서

목어

"기호는 X번 00스님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뽑던 11월 21일. 투표현장인 조계사 대웅전 입구에서 한 스님이 전단을 돌리며 출입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했다.

그날 조계사 경내에는 선거열기가 가득했다.

"돈 많이 쓰고 스님들 사이에 골 생기고, 성직자들이 여관방에서 그게 뭐야" "호텔이 비수기였는데 조계사 근처의 여관 · 호텔에 방이 모자랐다더군."

"두번 할일이 못됩니다."

"추대로 모셔야 여법하지, 선거 끝났헛 돌리며, 이건 세속 선거와 같잖아. 이런 선거는 아무리 민주화됐다고 해도 수행풍토와는 안맞아."

"식사공양을 네번이나 받았지만 할 일 아니라고 생각해."

"선거인단도 아닌데 식사대접을 어느쪽에서 받았나."

"양쪽에서 똑같이 받았지."

"가장 민주적인 불교고유의 산중공사 · 대중공사 전통은 어디로 가고 세속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니 ···"

"선거 경비가 상당했을텐데, 그게다 누구 돈입니까."

부표를 한 스님, 선거운동에 나선 스님, 궁금해서 조계사에 나온 사부대중은 이번 선거에 대해 이런 말들을 주고 받았다.

60~70여 종회의원이 선출하던 총무원장을 훨씬 많은 대중이 뜻을 모아 뽑았는데, 이처럼 한결같은 목소리로 개선론을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계사 앞 뜰에서 주워 들은 이런 설왕설래가 모두 호사가들의 입방아 였으면 좋겠는데 ···

교육원장 원산 · 포교원장 정락스님

총무부장 범하
기획실장 지명
재무부장 원우
문화사회부장 시현
호법부장 혜창


◇ 원산스님


◇ 정락스님

조계종 새 집행부 인선

조계종 제 28대 집행부가 지난 24일 확정 발표됐다.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새로 신설된 교육원장에 원산스님(통도사 전 강주) 포교원장에 정락스님(상임포교사)을 내정하고 지난 24일 열린 조계종회에서 선출했다. 또한 월주스님과 함께 총무원 집행부를 이끌어갈 소임자로는 총무부장에 범하스님(통도사 박물관장)이 기획실장에 지명스님(청계사 주지) 재무부장에 원우스님(범어사 전 총무) 문화사회부장에는 시현스님(개혁회의 사회부장)등이 각각 임명됐다.

그리고 중앙종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호법부장에는 혜창스님(개혁회의 교무부장)이 임명됐고 불교신문사 사장에 정휴스님(종회의원)이 임명됐다.

관심을 모았던 조계사 주지 직무대리에는 현근스님이 유임됐다.

"새종단 발전 축원"

월탄스님 '사례말씀' 발표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로 경선에 나섰던 월탄스님은 지난 22일 '사례의 말씀'을 통해 "소승에게 뜻을 모아 적극 성원해 주신 여러스님과 신도 등 사부대중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번 선거결과를 크나큰 경책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신 뜻과 마음을 귀중하게 담아 종단의 앞날을 위해 더욱 더 수행하고 정진하겠다"며 새롭게 출발한 종단이 불교발전과 종단중흥을 원만히 성취하기를 축원했다.

불교석학 버스웰 박사에 듣는다 7면
대하 소설속에 나타난 불교 13면

DU PONT

21세기의 시각 —
듀폰의 눈은 깊고 넓습니다.

200여 년 듀폰의 역사가
바로 첨단 기술의 역사입니다.

1802년 시작된 듀폰 200여 년의 기업 역사에는
혁신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1903년 세계 최초로 민간 연구소 설립,
1938년 꿈의 섬유 나일론 개발 등,
현재 22개국 70여 개 연구소를 통해
기초 생명과학에서
섬유, 화학, 농업, 전자, 에너지,
자동차, 항공 분야에 이르기까지
첨단 기술의 역사를 만들어 온 듀폰은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종합 화학회사로서
그 명성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듀폰은
건강한 기업활동을 위해서는 지구촌 어느 곳에서든지
안전, 환경 및 윤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터득하여,
오늘도 이를 기업 정신으로 이어받아
성실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과학적으로 —
듀폰의 21세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800여 종의
우수한 산업용 소재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듀폰은
고객과 함께 발전하고자 하는
남다른 파트너 정신을 바탕으로
고객이 최고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대고객 최고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 태평양 지역 15여 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듀폰은
이천 및 울산 단지의 공장을 통해
국내 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함은 물론,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최선의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보다 좋은 제품을 추구하는 듀폰 —
21세기의 시각으로 세계를 만들어가는
듀폰의 눈은 깊고 넓습니다.

한국 듀폰
㉾ 135 - 082
서울 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26번지 아세아 타워 4 - 5층

열린마당

새 집행부에 거는 기대

이제 새롭게 출발할 때다

사 설

조계종 새 집행부에 바란다. 지난 3월 한국불교의 대표격인 조계종단에 개혁의 물결이 힘차게 일어났다. 그동안 타성에 젖은 구시대적 묵은 먼지를 씻어내고 새로운 기풍을 조성하여 종헌과 종법을 새롭게 개정 정비하였다. 종정도 새로 모시고, 원로회의도 덕망있는 노덕스님들로 추대하였다. 개혁된 종헌에 의한 종회가 구성되었고, 새로운 선거법에 의한 총무원장도 선출되었다. 개혁회의는 8개월여의 산고를 치루며 대한불교 조계종의 새 모습을 탄생시켰으니, 한국불교 근대사에 의미있는 한 페이지를 남기게 되었다.

이제 새로 태어난 한국불교의 얼굴, 한국불교의 주역인 조계종 총무원장과 종회는 국민의 시선과 종도들의 염원에 어긋나지 않게 귀를 기울이고 정성을 다하여 개혁회의에서 넘겨 받은 종단의 종책을 차질없이 실천해야 한다.

지금 조계종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국민들의 기대와 불자들의 여망이 지난날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과거의 종단에서 자행되었던 오류와 개혁기간에서 드러난 여러가지 잘못된 일들을 착실히 점검하고 판단하여 하나하나 바로 잡아 나아감과 동시에 사회가 필요로 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앞서 가는 종책을 마련하여 실천해 주기 바란다.

특히 이번 선거로 당선된 총무원장과 종회의원들은 종도들의 염원을 겸허하게 받들고, 자신들이 제시한 종책뿐만 아니라, 상대방에서 제시한 의견도 폭넓게 수용하기 바라며, 치열했던 선거전에서 생긴 갈등을 하루 속히 해소하여 화합적 승가 정신에 입각한 종단 발전 방안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종단 운영을 둘러싼 불화와 불미스러운 모습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하며 아울러 국제화·지방화·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종단 발전책을 수립 실천해 주기 바란다. 모든 것은 대승보살도의 정신에 입각한 수행과 봉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먼저 수행적 측면에서, 수행종단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 율장정신에 의한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승가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각종 승가교육기관의 행정관리와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종단발전을 위한 인재양성에 지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음 봉사적 측면에서, 적극적인 교세확장을 위해서는 포교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며, 역경·복지·환경·사회·통일 등의 문제도 종단적 차원에서 현실에 부합되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실현해야 할 절실한 과제이다. 한가지 더 바란다면 불교의 자주권 확립이다. 과거처럼 외부에 끌려가는 힘없는 종단이 되지 말고, 할 말은 하고 찾을 것은 찾는다는 소신을 갖고 한국 제일의 종교단체로서의 위상을 세워주기 바란다.

부처님께서는 출신·모양·사는 곳·생각이 다른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진리를 말씀하셨다. 한 중생도 버릴 수 없거늘, 어찌 한 종도로서 화합할 수 없으며, 이웃의 불안한 마음을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있겠는가.

새로 태어나는 조계종 집행부는 종단을 안정시키고, 사회에 등불이 되어 통일된 한반도에 불국토를 건설하는 초석이 되어 줄 것을 기원하는 바이다.

현대만평

박 구 원



부처님 귀로 종도들의 소리를 · · ·

사부대중의 목소리

종단제도·잘못된 의식 제자리로

보 광 〈 동국대 정각원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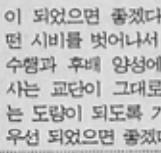
제28대 총무원장이 선출된 것은 어느 때의 원장 선출보다 의미가 크다.

지난 봄의 그 뜨겁던 개혁의지를 계승하고 다시 불교 전반에 적절히 적용시켜야 할 책무가 새로 구성되는 종단 지도부에 있기 때문이다. 불교는 더이상 개혁의 대상이란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해야한다. 불교 그 자체는 개혁될 것이 없다. 다만 사대부중의 의식과 종단의 제도가 문제일 뿐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종단의 새 지도부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의 개혁과 정착, 그리고 사부대중의 여법한 의식 고취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분야에 대한 관심과 포교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 두가지는 다음 세기의 한국불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뿌리이기 때문이다. 구태의연한 행정관습과 자리에 얽매인 인사행정도 청산해야할 과제다.

자기수행·도제 양성에 진력하길

일 연 〈 동학사 주지 〉



총무원장선거를 지켜보면서, 새 총무원장스님은 적지않은 반대편 지지세력이 원하고 있는 종단행정이 과연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살펴보지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옛날에 우리선조들이 국사에 임하여 신하가 임금에게 충언을 고할때면 언제든지 종묘사직과 나라를 창업했던 근본을 들먹이게 된다. 그것이 바로 국사를 함부로 다룰 수 없게 하는 마지막 충성된 간청이기 때문일것이다.

그처럼 우리 종단도 과연 대한불교 조계종이 지금까지 존재할수 있었던 과거도 자비롭게 인정하고, 대 화합의 차원에서 하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종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어떤 시비를 벗어나서 우리는 이제 자기 수행과 후배 양성에 전력하여 우리가 사는 교단이 그대로 사회를 이끌어가는 도량이 되도록 가꾸어 가는 종책이 우선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21세기 불교세계화에 눈 돌려야

박광서 〈 우리는 선우 공동대표 〉



조계종의 새로운 지도자와 종권의 탄생을 축하한다. 특히 개혁종단이란 기치를 내걸고 출마했다가 낙선한 월탄스님의 선거결과에 대한 깨끗한 승복에 박수를 보낸다.

개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새 총무원은 21세기를 대비한 불교의 미래와 세계화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불교의 세계화를 외면할 때 한국불교의 미래는 희망이 없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아, 빈곤에 시달리는 제3세계 문제에 불교적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행을 보여야 하겠다.

내부적으로는 화합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승·재가의 교육과 사상, 윤리관 확립은 이 시대에 절실히 요구되는 일이다. 그리고 재가불자들의 위상정립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새 총무원이 되어줄 것을 기대해 본다.

연구·화합하는 새모습 보여라

김정자 〈 문화일보 논설위원 〉



세상 모든 일이라는 것이 한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는 일로 생각하며, 새로 출발하는 총무원에 다음과 같은 당부를 드리고 싶다. 우선, 신도들이나 국민들에게 불교의 변모된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스님들끼리 몸싸움을 벌이는 등의 추태를 다시는 보여주지 않도록 해야한다. 그것 하나만이라도 실천된다면 불교개혁의 90%는 달성된 것으로 본다. 다음은 불교도 시대 변화에 발빠른 적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화」라는 말은 정치 경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 불교의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기관 등의 내실있는 연구 업적을 필요로 한다. 스님들의 많은 공부를 기대하고 싶다.

시 론

선거로 뽑은 총무원장

연 기 영 〈 동국대교수 · 본지 논설위원 〉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은 그 동안의 개혁불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새 집행부를 출범시켰다. 종단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민주적 선거방식에 따라 월주스님이 총무원장으로 뽑힌 것은 개혁불교의 밝은 앞날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월주스님은 그 동안 불교의 자주화와 민주화에도 남다르게 헌신적인 노력을 해 왔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실적인 역사와 사회 속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온 분이다. 경제정의의 실현, 소외계층의 인권향상, 나라의 민주화와 민족의 통일 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사부대중이 염원하는 개혁불사를 마무리 짓고 불교 중흥을 이룩하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다고 믿는다.

지난 4월 종단개혁의 봇을 올리고 출범했던 개혁회의의 정신을 이어받아 평화적인 종권 이양을 이룬 것은 한국불교가 새롭게 태어나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총무원장의 이번 선거를 놓고 교계 일각에서는 「선거혁명」이라 평가하며, 불교계가 그 동안의 폐습을 청산하고 정법수호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번 선거과정에서 다소의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은 유감이다. 전국 사찰과 암자에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괴문서가 나도는가 하면, 후보의 숙소에 괴청년들이 난입하여 난동을 부렸다는 소식이 보도되어 다소 안타까웠다. 그러나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공명정대하게 치뤄진 선거였고,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한 종책 대결이 이루어졌다는 여론도 없지는 않다.

승가다운 방법의 모색

그동안 팽배했던 문중의식이나 인맥 파벌의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개혁불사의 실천에 역점을 두어 선거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우리 불교 집안의 큰 변화라고 아니할 수 없다. 불교계의 의식수준이 그 만큼 향상된 증거라고나 할까?

그러나 이번 총무원장 선거가 인물이나 분위기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몇가지 반성해야 할 부정적인 면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우선 종교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의 일반선거와 같은 상호비방과 흑색선전 또는 폭력사태가 난무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우리는 크고 작은 선거를 치르면서 부정·타락 선거가 자행되는 것을 많이 보아 왔다.

「선거는 돈이다」라는 등식이 성립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각종 선거에서는 돈다발로 도배를 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있었다.

여당과 야당을 가릴 것 없이 선거전의 「실탄」으로 선거자금이 쓰여진다. 이러한 일반사회의 선거행태의 부정적인 측면이 종교단체에도 영향을 주기 일쑤이다.

따라서 현행 종단의 선거제도가 과연 부처님의 정신과 사상에 입각한 합리적인 제도인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위로는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도」를 실천하는 종단의 지도자를 어떻게 뽑는 것이 좋을까? 그렇다고 농경사회를 문화적 배경으로 삼아 성립한 원시불교의 제도를 현대산업사회에 부활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산중공의」 제도의 장점

역시 좀 더 사부대중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볼 수 있다. 부처님 당시에 이미 오늘날과 같은 「민주적 공화제」를 주창했고, 합리적인 승가공동체를 운영했다. 「민주정토」라는 불국토건설을 선언했던 것이다. 대중공사의 방법인 「산중공의 제도」의 장점을 선거제도에 활용하는 대책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종단을 구성하는 사부대중 속에 재가불자가 들어간다면, 그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또한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실시 될 수 있는 선거공영제가 뿌리를 내리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한다. 공명선거를 감시할 수 있는 기구도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투표권을 행사하는 구성원들의 자질과 의식이 중요하다.

수행과 교육을 통해 연기론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현할 수 있는 승가공동체 서원공동체가 세워져야 할 것이다.

새 총무원장에 취임한 월주스님은 「종도은건 개혁종책」을 통해 「종단의 대화합과 중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불교교육의 개혁이 중요함을 천명하였다. 승가교육의 체계화와 관련하여 승려재교육기관의 설립과 신도교육기관의 설립을 제시하고 있다. 역시 인재를 기르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

한편 「생산불교」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였다. 재무구조 혁신을 통해 불교가 사회의 구제와 제도에 앞장 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라고 본다.

이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불교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점검해 나아가야 한다.

개혁불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부대중의 대화합이 요구된다. 선거과정에서 대립과 갈등이 있었던 점을 불식하고 부처님의 자비와 화합정신으로 되돌아 가야한다. 서로 격려하고 의지를 모아 불교가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로서, 이땅에 찬란한 불교문화를 꽃피움으로써, 나라가 민주화되고, 민족이 통일되어 민주통일정토가 이루어지도록 다 함께 정진할 때임을 강조하고 싶다.

현직 고교 선생님의 명강의와 최고의 교재

대학으로 가는 지름길!!

시사 고교 영어-수학 비디오 학습강좌

부족했던 학습보충과
다음 학기 예습을
일류강사 열 분의 명강의에
맡기십시오.
댁의 귀한 자녀를
우등생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시사 고교 영어·수학 VIDEO 종합 강좌는 전국고교에서 채택중인 8종 교과서를 종합한 최신 학습 교재입니다.

내신성적, 수학능력 평가시험, 대학 본고사의 확실한 개념 설명과 정확한 논리, 다양한 문제풀이로 모든 학생들의 어려움을 시사영어사 VIDEO 강좌가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ENGLISH 300 국민학교 비디오영어

■ "English 900"의 저자 Edwin T. Cornelius, Jr. 박사 저

즐겁게 보고 들으며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미국 어린이들처럼 영어로 말하게 됩니다.

시사 중학영어·수학 VIDEO 종합강좌

기존 중학교재의 문제점과 취약부분을 철저히 보강하여 완벽하게 마무리한 「시사중학영어/수학VIDEO 종합강좌」 -우등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영어강사 박서환 · 현 서울 양재고 교사 / 김중길 · 현 오금고 교사 / 서승진 · 현 한림대교수 · 언어학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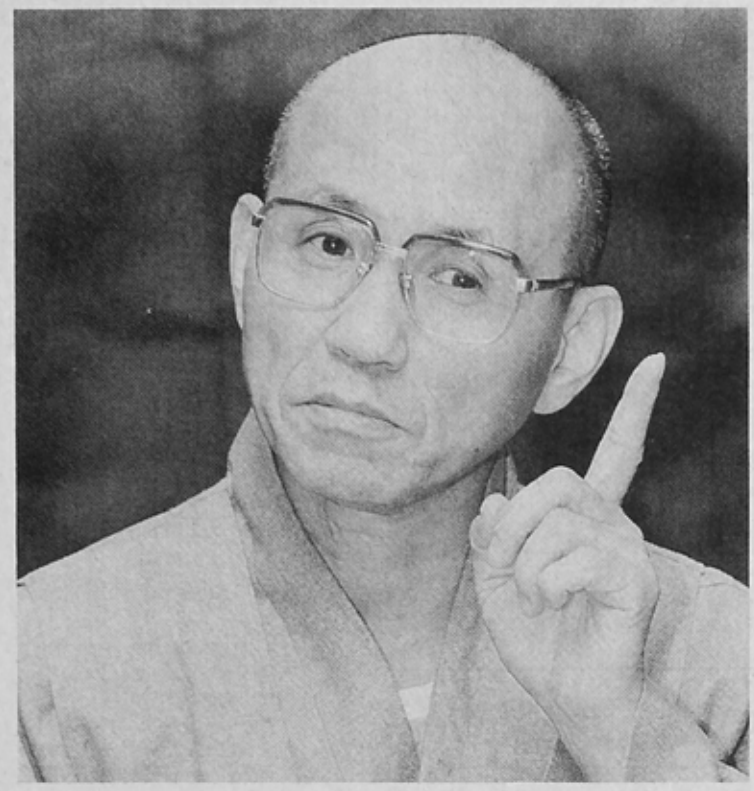
■수학강사 전도선 · 현 서울 양재고 교사 / 조성환 · 현 서울 양재고 교사 / 장 훈 · 현 한성과학고 교사

YBM 시사영어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1동 642-19 (역삼하이츠 I 빌딩 17F 765호) TEL.: (02)558-5167~9, 565-5244 / FAX: (02)566-1246

교육부 본부장 이 용 갑

인터뷰 조계종 새 총무원장 **월주스님**

"개혁완성 · 종단화합에 주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조계종 제 28대 총무원장에 선출되셨는데 먼저 당선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원로 대덕스님들과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불자 여러분, 그리고 저를 지지해 준 종도 여러분께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개혁작업을 늦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종도들의 염원이 지지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종도들의 뜻에 따라 불교 중흥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역대 총무원장선출이 중앙종회 의원들이 선출하는 간선제였던데 비해 이번 선거는 종단사상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사부대중의 여망을 반영하는 선거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고 하겠습니다. 선거기간중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이었는지요.

"전국을 돌며 24교구 본사 주지스님들을 비롯 많은 분들을 만나는 일이 힘들었습니다. 특히 수행자가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돌아다니는 일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원장이라는 직책이 탐나서라기보다, 화합종단 구현과 불교자주화 등 불교발전을 '위해서라는 원력으로 이를 극복했습니다."

—새종단 집행부에 거는 불자들의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의 종단운영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50년대 정화정신을 이어받아 종단 안팎의 구조적 모순과 파행적 운영을 극복하고, 7개월동안 개혁회의가 기초해 놓은 새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공약으로 내건 △승풍진작 · 승가위계질서 확립 △문중의식 탈피 인재등용 △승가기본교육기관 · 선원등 수행기관 지원 △불교방송 · 텔레비젼 지원 △비구니 스님들에 대한 미비한 제도개선 등의 정책을 장 · 단기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선거과정에서 일부 과열된 양상이 보여 불자들을 비롯 국민들이 또다시 조계종의 구악이 재연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컸습니다만 다행히 큰 사고없이 원만하게 선거가 끝나 평화적 종권이양이 이루어진데 대해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경합자였던 월탄스님을 지지한 1백46표라는 표도 만만치 않은 득표수입니다만.

"월탄스님을 지지했던 스님들의 의사도 수렴해 포용토록 하겠습니다. 불교발전을 이룩하는 데는 내편 네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뜻의 하나로 징계를 받은 사람들중 명백히 해종행위를 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개혁에 동참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선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사면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멀리까지 갈 것없이 최근 선거에서만도 괴문서사건 등 승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추태가 일어나 눈쌀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승가풍토가 쇄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단이 계속되는 한 개혁작업은 꾸준히 진행돼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단에 필요한 것이 승풍 진작입니다. 우리 수행자가 승가 본연의 청정한 삶과 도덕적인 생활을 구현할 때 재가신도들도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율장정신을 지키는 일이 기본입니다. 스스로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서 남의 허물을 지적할 때 그 누가 따르겠습니까? 부처님 당시로 돌아가고 초발심으로 돌아가 계율을 엄격히 지키는 풍토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종행위인 법정송사같은 것은 절대 금지하고 종단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율을 세우도록 신설된 호계원의 엄정중립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 승가의 전문화와 자질을 고양키 위해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는 교육을 단일화 하고 스님들의 노후복지문제도 종단차원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단운영에 있어 인사와 재정자립이 중요 관건인데 무슨 방안이 있으신지요.

"문중과 지역, 이해 관계를 과감히 탈피해 능력과 원력이 충중한 인재를 고루 등용하겠습니다. 자신의 은사나 자신의 도반이 종무 행정의 책임자가 되지 못할 경우 스스로의 귀한 능력조차 감추고 마는 것이 작금까지의 현실이었습니다만 이제는 능력과 원력이 있는 사람이면 언제든지 불교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개방을 할 생각입니다.

또 불교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의 토대를 갖추는 것이 절실한 과제입니다.

사찰 관람료 수입이나 신도들의 시주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생산불교'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족문화로서의 불교문화를 대중화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달성할 수 있는 '대사업단'을 구성할까 합니다.

재원확보를 위한 구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종도들의 다양한 의견도 청취해 수렴하겠습니다."

—스님께서는 경실련등 10여개의 시민 사회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으신데요. 사회운동은 앞으로도 계속 하실 예정이신지요.

"종단의 행정책임을 맡게 된만큼 직접적인 사회활동은 아무래도 줄어들겠지만 관심은 계속 가질 것입니다. 또 인재를 발굴해 앞으로도 사회 · 시민운동에 적극 참여토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불교가 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제와 복지 환경등일 등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제 불교는 사회화되어 물질 만능과 삼독을 정화하는 연꽃으로 피어나야 합니다."

〈이경숙 기자〉

승풍진작 · 재정자립 위한 대작불사도 구상

약 력

- ▲ 1935년 4월 16일 생 (59세)
- ▲ 1954년 법주사에서 금오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 ▲ 1956년 화엄사에서 금오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 ▲ 56년 화엄사에서 수선이래 10 하안거 성만
- ▲ 1968년 화엄사 불교전문강원 대교과 졸업, 69년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 ▲ 개운사 금산사 주지 역임
- ▲ 1980년 제 17대 총무원장
- ▲ 경실련, 자비의 전화, 불교인권위, 공추불, 평불협, 정사협,시민단체협 등 대표

나의 수행일기



곽 재 환
<한국방송공사 TV기술국>



'오후 불식'은 이제 평범한 생활

봄의 기운이 살며시 고개를 내밀던 3월, 나는 사당동 정안정사로 향했다.

정기법회 날이었다. 예정된 법문을 다 마친 스님께서는 법좌를 물리기에 앞서 "오늘 법회에 오신 신도님들, 점심공양 많이 하시고, 집에 가서는 불식(不食)토록 하십시오"라고 한 말씀 더 주시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날 스님께서 주신 불식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무엇인가에 사로잡히게 했다. 그로부터 며칠간은 '불식···오후불식'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생각이 생각만을 낳는 마음조임의 시간들을 보냈다. 그러다보니 자연 조석예불에까지 영향이 미쳤다. 부질없이 몇날을 보내고서야 무엇인가 간절한 발원이 내 마음속에 솟아나고 있음을 알았다. 그 옛날 세존께서 발우를 드시고 탁발을 도시는 모습을 상상하는 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곁에 살다가신 수 많은 고승대덕들이 먹고 입음에 초연했음을 연상하고, 나도 감히 그들이 계신 피안의 언덕 한모퉁이에 자리하길 간절히 발원했다.

'이제부터 오후에는 불식하며 살리라!'하는 다짐과 함께, 그날로 나는 저녁식탁에 앉지 않았다.

그날 다짐 뒤의 생각은 불식으로 인해 무엇을 얻고 아니 얻고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저 불교를 닦아가는 수행의 일면도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 연유한 따름이었다.

처음 며칠은 속이 꿇지 않다는 핑계로 식구들의 성화를 이겨낼 수 있었지만, 계속되는 나의 불식에 가족 어느 누구도 동조해 주는 이가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한 동안 집을 비우셨던 어머니가 돌아오셨다. 아들이 저녁 밥상에서 몸을 돌린 것을 보시고는 "아아! 제발 그러지 말고 밥 좀 묵거라. 니 정말로 그라면 나도 오늘부터 밥 안 묵을란다" 하시며 방문을 잠그셨다.

말씀 중에 더운 눈물로 얼굴을 적시던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만, 스물넷 나이에 청상이 돼, 오직 나 하나만을 바라보며 칠십평생을 살아오신 어머니 처지를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무겁고 죄스러웠다.

모든 것은 나름대로의 의지와 그저 흐르는 세월이 악이 되어주는 길 밖엔 다른 방도가 있을 수 없었다.

위(胃)를 비우는 시간이 이십시간이 가깝고, 오후불식을 행한지 한 달을 넘기면서 부터는 오후에 무엇을 먹는다는 것에 집착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떨어진 기운으로 중단하다싶이 한 조석의 백팔참회 예불도 할 수 있게 되었고 간간히 참회시간을 늘려 몸을 시험해봐도 더 이상의 기운은 진하지 않았다.

느낌이 그래서인지 전에 없이 몸은 단단하고 가벼워진 것 같았고, 머리 또한 맑아져옴을 느꼈다.

이 얼마나 고마운 가피인가?

요즘 나는 나의 오후불식이 곧 나의 수행이란 다짐을 새롭게 하기 위해 저녁예불 뒤에는 화두를 들어 신체를 조복하고 화두를 잡는 일을 일과로 삼아, 생활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이따금 솟아나는 불퇴심은, 처음 3천배를 하던 때를 떠올려 쫓아버리곤 하였다. 일곱시간 반동안 절을 하면서 "이 세상에 이보다 힘든 일은 결코 없으리··· 오늘 이 절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사노라면 무슨 두려움이 있겠는가" 하는 절실함 뿐이었다. 오늘의 오후불식 생활을 그때와 비교하면 그저 평범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세상사 사필귀정이라 하였거니 내 정성이 미진함은 당연한 노릇이나, 엄동하게도 요즘에 와서 또 하나 간절한 바램이 생겼다. 지금의 내 몸이 태초에 공한 몸이었거니 내 사는동안 부디 남을 위해 살기를 염원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한번의 마음 쓰임, 한번의 참회, 한번의 염불 등이 모두가 오로지 남을 위함으로 이루어지길 참으로 원하는 바이다.

그러다가 혹 남음이 있으면 이 생에 무수히 많은 저 무정물의 성불을 위해 내 몸 쓰임 있길 발원하고, 또 발원한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모레 아침에도 맑은 눈을 떠, 상주불멸의 법계에 여여하신 부처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것을 던져 절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는다.

생활 속의 불교 ⑦

소식 중에 가장 반가운 소식

부처님께서는 일체 생명에는 다 불성이 깃들어 있으니
'일체는 다 부처다'라고 선언하셨다.
그러므로
남여의 차이, 학식의 차이, 출신 성분의 차이, 모습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불성에는 그러한 차이가 없다.

누구에게나 자기 성품에 부처 성품이 있음을 깨달으면 곧 부처인 것이다.
부처의 성품은 산 넘고 물 건너 온갖 고난을 겪고 다녀야 찾아지는 게 아니다.
바로 내 안에 참보배가 있으니
설사 일자무식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부처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소식 가운데 가장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우리에게도 위덕을 구족하신 부처님과 동등한 성품이 있다는 사실은
세상에서 듣는 그 어떠한 소식보다도 가장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불법의 ·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한건의 누수 사고도 없었습니다

■ 86년 3월 설립
■ 대형 건설업체의 취약부분인
고질적인 방수 하자 보수공사 성공리 완료
■ 설립 7년 만인 93년 연간 약 46억의 공사 수주
■ 신방수공법, 특수도장 부문 등 각 건설업체로부터 각광
■ 100% 직영 처리
■ 기술 및 안전에 관한 철저한 교육 실시
■ 회사 설립 이후 철저한 무사고 시공 !

목표는 국내 최고 !!

성풍산업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4번지의 29
전화 : 553-2441~3, 553-7768~9
팩스 : 553-2449

교 차 로

'종교인의 역할' 주제 특강



청하스님(통도사 부방장)은 지난 24일 오후2시 충남 대천시 대천문화원 대강당에서 「신한국 창조와 종교인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했다.

4차 운영위원회 열어



청화스님(실천불교전국승가회장)은 12월10일 오전10시30분 제4차 운영위원회를 갖는다. 이번 회의에는 실천승가회 사업평가와 내년도 사업계획, 금년 결산보고와 내년도 예결산안을 보고한다.

원로회의 사무처장



성법스님(진주 호국사 주지)이 지난 23일 개최된 조계종 원로회의에서 원로회의 사무처장으로 임명됐다.

남북교류협 운영위원에

법혜스님(사단법인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은 지난 18일에 열린 '범종단 남북교류추진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불교대표 운영위원으로 선출됐다.

'조선초기 왕실불사~' 발표

중범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은 지난 23일 중앙승가대 정진관에서 열린 불교사학연구소(소장 홍선) 주최 학술세미나에 참석, 「조선초기 왕실불사의 기문에 보이는 불교관」을 발표했다.

표충사 주지 임명

신허스님이 표충사 새 주지로 임명받았다. 신허스님은 1945년 월하스님을 은사로 득도하여 통도사 총무국장을 역임했다.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도각스님(태고종 교무국장)은 지난 13일 문화체육부의 주관으로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 시행된 청소년 지도사 연수를 마치고 스님으로서는 처음으로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했다.

제2회 인천민족문학제 참석



신경림씨(시인)는 지난 26일 오후 4시반 월미도 야외무대에서 열린 제2회 인천민족문학제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가림·박영근·김한수씨 등이 지역 문인들과 정희성씨 등 서울지역 문인들이 참여했다.

법보신문 사장에 취임



최동수씨(법보신문 사장)는 오는 12월5일 오후 7시 마포가든호텔에서 법보신문사 사장 취임법회를 갖는다. (02)706-6934~6

지방자치 토론회 참석

황윤기의원(민자당·경북 경주)은 지난 25일 경실련 주최 「지방자치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란 주제로 열린 지방자치 토론회에 참석했다.

초종파 신도법회

김용직 회장(대한불교신도회)은 29일 오후 6시 서울 뉴월드예식장 4층에서 신도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법회의 주제는 '윤리 도덕성 회복을 위한 초종파 신도법회'이다.

자랑스런 불자상 받아



황영조 선수(마라톤)가 대한불교신문사와 사단법인 불국토가 공동주최한 제2회 자랑스런 불자상에 선정, 오는 12월15일 통도사 부산포교원에서 시상식을 갖는다.

전국교임협의회 회장

장대덕심씨(광덕암 창건주)는 지난 19일 태고종 총무원 설법전에서 열린 전국교임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됐다.

'민중사학' 논단서 발표

이기동교수(동국대 한국사)는 지난 26일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주최로 열린 제35회 한국사회논단에 참석, 「한국 근대화에 대한 민중사학적 시각」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 105일만에 출소한 법타스님 출소환영모임에는 조계종 새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비롯 지하스님과 교계인사들이 참석했다.

법타스님 · 이지범씨 출소 환영 모임

법타스님(조국평화통일불교인협의회 부회장)과 이지범씨(평불협 총무부장)의 출소를 환영하는 모임이 지난 22일 조계종 신임 총무원장 월주스님, 지하스님, 원행스님, 오형근 동대교수, 정인익(평불협부회장) 신광식씨(KBS방송위원) 등 평불협 회원과 관계 인사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산 동보성에서 개최됐다.

이날 월주스님은 축사에서 "법타스님은 통일보살로, 누구도 하기 어려운 일을 하신 분"이라 평하고 "통일을 여는 정보보살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법타스님은 인사말에서 "105일간 옥고를 치르는 동안 더욱더 열심히 활동해 조국평화통일을 이루는데 작은 벽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동안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무비스님 · 고은씨 조계사서 화엄사상 강연



◇ 무비스님



◇ 고은 씨

무비스님과 고은 시인은 지난 22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린 「화엄사상 대강연회」에 참석, 「화엄경이란 무엇인가」「화엄경의 문학세계」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무비스님은 이날 강연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부처와 부처의 관계로 전환시켜 나갈 때 일상의 모든 문제와 갈등은 해소된다"라고 밝혔으며, 고은 시인은 "화엄경의 세계는 입법계품이 끝나는데서 다시 시작되어야 하는 영원의 경전, 구원의 문학"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회는 도서출판 민족사(대표 윤재승)가 무비스님 완역편찬 「화엄경」(전12권) 출간기념으로 열린 것으로 3백여명의 청중이 동참, 화엄사상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게시판

▲'참나 찾기' 지도자 연수=한국불교청년회는 12월 4일 용인 한우리 선원에서 제7회 '참나찾기' 지도자 연수를 실시한다.

▲르완다난민돕기 일일찻집=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회장 김재일)는 12월 4일 샘터 다방(서울 조계사 건너편)에서 르완다난민돕기 일일찻집을 운영한다. (02)722-0108

▲원심회 수화·점자교실=조계사 장애인포교 원심회(회장 석덕신)는 12월 5일부터 3개월간 수화·점자교실을 개강한다. 강의는 매주 월·목·금 저녁 7시부터 조계사 원심회에서 열리며 회비는 2만원(3개월간)이다. (02)720-4528

이 전 ▲집문당=집문당(대표 임경환)은 사무실을 신당동에서 종로구 와룡동 95번지로 이전했다. (02)743-3096

내일을 여는 불자 <황학현 불교교육연구원장>



"문화 포교에 신명 쏟지요"

대동불교예술대 설립 … 찬불가·율동개발

포교지도자 황학현(불교교육연구원)원장의 하루는 새벽 4시30분 조계사 예불로 시작된다.

연구원 사무실이 조계사옆에 자리해 있어 황원장의 일과는 온통 불교인들과의 만남으로 이루어 진다.

그는 한가지 일에만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것은 부처님의 정법을 이웃에 전하는 포교사 일이다. 때문에 그는 포교사 가운데서도 부처님의 말씀을 현대이론으로 정립하여 불교지도자들에게 교육 시키는 '포교사의 포교사'로 불린다.

황원장은 매주 월요일 연구 세미나, 서울 경기지역 초중고 교사대상으로 펼치는 수요강습회, 지난해 설립한 대동불교예술대학 수업, 합창단 가야금합주단 연습등 하루에도 1백여명이 넘는 불교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불교교육의 방안을 전하고 있다.

이처럼 황원장이 불교교육에 혼신을 쏟게 된 것은 15년전 조계사 어린이 교사로 인연을 맺으면서부터.

당시 황원장은 조계사 교화사무국을 맡아 포교의 총무지인 사찰에 체계적인 포교방안을 도입했다. 사찰의 불사는 물론 교육, 신도관리를 현대화 했고 포교의 장인 여성교양대학, 회보발간 등을 통해 사찰이 더이상 앉아있기 보다는 적극적인 포교를 실시토록 했다.

"청소년과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 신행의 방법이 눈에 띄게 변화해 가는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기복을 탈피하고 정법신앙을 펼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님을 느낀 것이죠."

이후 황원장은 짧은 기간 이었지만 교직의 경험을 살려 불교교육연구원을 설립하고 불교교육의 정립을 발원했던 것이다.

황원장은 24명의 현직 교사를 주축으로 학술국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2백여곡의 찬불가와 율동, 레크레이션 등을 개발했다. 찬불가의 대부분을 황원장이 직접 작사했다. 10여년간 창작된 작품들은 케비넷으로 2개 가득하다.

이즈음 황원장은 이들 연구물을 수요강습회와 여름 겨울방학을 이용해 개최하는 전국불교지도자연수회에서 불교지도자들에게 전수하고 있다. 또한 불교교육의 전문화를 위해 대동불교예술대학에 전념, 불교예술의 위상정립과 전파에 정열을 쏟고있다.

"불교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러니 가르치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불교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불교를 접하는 방법이 올바르지 않아서 이지요. 금강경이나 화엄경등의 경전을 어린이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법회용 교재로 만들겠습니다." 〈엽〉

보살행이 숨쉬는 현장 — 자비와 행함이 하나되어 회

"행함이 없는 자비는 공염불이죠"

매월 복지관 행려병자 위문 … 다정한 말동무 역할



◇ 소외된 이웃을 찾아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는 '자비와 행함이 하나되어 회'는 지난 18일 원주시립복지관을 찾았다.

지난 18일 1백여명의 불자들이 강원도로 성지순례결 봉사활동을 떠나는 날, 우중에도 불구하고 모인 '자비와 행함이 하나 되어 회'(회장 송묵)회원들은 "우리들의 조그마한 정성이 모이면 고통속에 있는 이웃을 구하고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신념으로 가득했다.

아침 7시에 출발한 회원들은 먼저 오대산 월정사를 찾아 머물어 살고자하는 원을 세웠다. 그리고 외롭게 살고 있는 이들을 찾아 발길을 돌렸다.

원주시 반곡동에 소재한 원주시립복지관(관장 현각)에서는 회원들이 온다는 소식에 원생들은 일찍부터 대문밖 언덕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반갑게 맞이했다. 복지관을 들어서자마자 지팡이를 의지해 한발 한발 겨우 움직이면서 합장인사를 하며 밝게 웃는 모습, 거동이 불편해서 창문밖으로 손을 흔드는 모습은 복지관을 찾는 회원들의 코끝을 찡하게 했다.

원주시립복지관은 원주지역 불자들의 수행도량인 성불원이 운영하는 복지시설, 83명의 원생들중 반수가량이 정신장애자이고 나머지는 지체장애, 간질, 알콜중독등으로 자기집에서는 환대 받지 못하는 행려병자들로써 새로이 인간다운 삶을 찾게 하는 곳이다.

"먼길 오느라고 고생이 많았지, 그동안 말동무가 없어 심심했는데 이렇게 찾아줘서 고맙네." 의지할 피붙이는 물론 가야할 집조차 없는 최관옥할아버지가 마치 먼길에서 온 친아들을 반기듯 회원들을 맞이했다.

회원들은 준비해간 떡, 과일, 음료수등을 나누어 먹으면서 대화의 상대가 없어 아쉬워하는 원생들의 말벗이 되어 주는가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어깨를 주물러 주다보니 어느덧 끈끈한 가족의 정으로 다가섰다.

회원들은 복지관 곳곳을 둘러보면서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데 입을 모으고 즉석에서 한 두푼씩을 모아 한겨울을 따스하게 보내기 위한 연료비, 피복비와 김장에 도움이 되도록 성금을 전달하는 성의도 보여주었다.

'자비와 행함이 하나 되어' 회원들은 "중생의 고통을 발견해 그 고통을 즐거움으로 바꾸어 준다"는 취지로 매달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온갖 궂은 일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번 봉사활동은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와서인지 회원들의 마음은 자못 걱정으로 가득했다.

"보살님 이렇게 인연을 맺었으니까 종종 찾아주세요."

복지관을 뒤로하고 떠나는 회원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은 돌아오는 회원들의 발길을 무겁게 했고 마음속으로 원생들의 밝은 앞날을 위해 기도 했다.

돌아오는 버스에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회장 송묵스님은 "욕심을 버린자만이 남을 도울수 있고 수행과 실천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달 갖는 이웃과의 만남이지만 이날 복지원의 방문은 회원들 가슴에는 애뜻함과 부처님의 자비가 새겨져 있었다.

〈김중근 기자〉

불 교 성 지 순 례

인도를 다녀오신 모든 이는 부처님의 미소를 닮아 있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룸비니)에서 성불(브다가야), 그리고 설법(사르나트)과 열반(쿠시나가르)까지 모든 수행과 성도의 현장을 직접 순례하시고 성불하십시요. 오랫 동안 부처님의 큰 뜻을 연구해 오신 오국근 교수님(인도 네루대학 교환교수, 한국·인도협회 부회장, 한국 불교 청년회장 역임, 현 동국대 교수)께서 전 일정을 동행하시면서 부처님의 큰 뜻을 전해 드릴 것입니다.

인도 정부 관광국 후원

순례일정표

제 1일	12시 45분 대한항공 631편으로 방콕 향발
제 2일	방콕—카트만두(수와이 앰브넛, 라마불교 사원 참배)
제 3일	히말라야산(원숭이 사원, 쿠미르 사원등 순례)
제 4일	카트 만두—**룸비니** 순례—소노울리
제 5일	소노울리-발람푸르(기원 정사 순례)
제 6일	발람푸르—**쿠시나가르**(부처님 최후의 설법지, 열반지, 화장터등 순례)
제 7일	쿠시나가르—바이살리(아난다 탑, 부처님 사리탑등 순례)
제 8일	파트나—라자기르(죽림 정사 순례)—브다가야
제 9일	**브다가야**(마하보디 대탑)—**사르나트**(녹야원 참배)—바라나시
제 10일	바라나시(갠지스강 유람)—아그라
제 11일	아그라(타지마할, 아그라성등 순례)—보사월
제 12일	보사월—아잔타 석굴—오랑가바드
제 13일	오랑가바드—엘로라—봄베이(비치 야경 관광)
제 14일	봄베이에서 06:00시 대한항공 806편으로 서울 향발

귀 출발안내
- **제1차 순례**:12월 4일~12월 17일(신청마감일:11월 19일)
- **제2차 순례**:1월 1일~1월 14일(신청마감일:12월 17일)
- **제3차 순례**:2월 5일~2월 18일(신청마감일:1월 21일)

귀 동참금
₩ 2,190,000(신청금 포함, 여권인지대 별도)

귀 신청금
₩ 200,000

귀 수속 준비서류(인도·네팔 비자 포함)
- **여권미소지자**:주민등록등본 3통, 여권용 사진 8장, 주민등록증 인지대:₩ 45,000
- **여권소지자**:여권, 주민등록등본 1통, 여권용사진 4장 주민등록증 사본

※ **여행조건**: 특급 또는 1급 호텔(2인 1실 기준), 전 일정 식사 제공(기내식 포함), 최소 출발 인원 10명

미소의 나라, 불교의 나라로……
태 국 5日 동참금:655,000 출발일:11/30, 12/7,14,21,28
· **일정**:서울—방콕—파타야—아유타야—방콕—서울

생활 속의 불교를 보며……
미얀마·태국 8日 동참금:1,400,000 출발일:12/2, 9
· **일정**:서울—방콕—양곤—파간—만달레이—양곤—방콕—서울

부처님의 자취를 찬찬히……
스리랑카 6日 동참금:1,070,000 출발일:12/2,9,16,23,30
· **일정**:서울—콜롬보—아누라다푸라—폴론나루와—시기리아—담불라석굴—캔디—콜롬보—서울

중국 불교의 또다른 발자취
대 만 5日 동참금:645,000 출발일:12/1,8,15,22,29
· **일정**:서울—타이페이—고웅(불광사)—화련—타이페이—서울

※ 불자 여러분의 효도관광 및 신혼여행도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 성지순례 전문 (주) 아 태 관 광 국외 여행업 제817호 저희는 이익금의 일부를 불우 이웃돕기성금에 사용합니다. ☎ 732-3200(代)



삽화 · 이기선

원 커도 정진 없으면 소득이 없다

자기욕심보다 남을 위해 소박한 원 세워야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❻

올바른 바람
<願 行>

사람은 소박한 바람(願)이 있어야 한다. 엄청난 원을 세우는 사람도 있다. 원의 크기가 크면 클 수록 거기에 쏟아 넣는 열정도 그만큼 커야 한다. 원만 크고 정진하는 힘이 없으면 아무런 소득도 건질 수 없다. 동국대학교 법당은 새벽녘에 와도 환하게 문이 열려 있어 마음이 즐겁다. 문이 닫힌 법당 주위로 서성거리는 것보다 열린 문으로 법당에 들어가 부처님께 삼배를 드리는 기분은 참예자 모두에게 법열을 줄 것이다.

이 누군가 법열의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새벽 길을 일찍 나서서 오자마자 법당 문을 열어 놓는 것이 노보살이 하는 일이다. 보살의 법명은 보명화(普明華,67세)이다. 조그만 키에 얼굴에는 곱게 느껴지는 주름살이 짙어 있다. 아마 삶의 연륜이 보살의 얼굴을 이렇게 만든 것이리라. 그러나 눈가나 입가에 항상 잔잔한 미소 가득하다. 노보살의 직업은 청소하는 것이다. 한때 종로의 어느곳에서 일하였다고 한다.

법당 청소하는 노보살

그런데 갑자기 부처님을 모신 대학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불현듯 일어났다고. 그리하여 한 일주일동안 대학 구내를 배회하면서 일할 것을 결심하고 책임자를 찾아 나섰더니 한 소장을 만나게 되어 "책임자 양반 나는 이곳에서 일하고 싶은데 어쩌지요." "아니 할머니 나이가 몇인데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까." "60이에요." "그럼 한사람을 꼭 써야 하는데 내일 오시면 되요."

그래서 노보살은 종로일을 그만두고 대학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책임자는 '나이도 연만하고 힘이 부치니 법당청소만 깨끗이 하세요'란 당부를 해 주었다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노보살은 새벽이면 틀림없이 일찍나와 법당 청소를 깨끗이 하고 법당문도 활짝 열어놓게 된 것이다. 불교의 교리는 어려운 교설도 많지만 보현보살의 행원을 실천하라고 한다. 행원(行願)이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실행하려하는 것이다. 원은 그저 되는 것이 아니다. 감나무아래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질 것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감을 먹기 위해서는 손을 써야 한다. 행원은 원에 맞는 노력과 정진을 하는 것이다. 그 원에 어떠한 욕망이나 허욕이 들어 있다면 원이 이룩되지 않는다.

원에도 눈이 있는지 모른다. 모든 사람의 바르게 간별하는 안목이 선험적으로 원에 숨어 있는 듯하다.

그래서 원에도 천안이 있는 것이다. 천안으로 살펴서 저 사람의 원은 소박하고 알뜰하니까 수용하여 잘 보응되도록 하여야 하겠다. 원을 아름답게 세워야 한다. 삼독의 불길이 타고 있는 욕망을 부리고 있으면 원의 천안이 환히 분별하여 인고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받는 인고가 고통이나 고행이긴 하지만 욕망때문에 받고 있다는 생각이 나게 한다. 그 생각이 나면 바로 욕망을 아름답고 깨끗한 원으로 바꾸어야 한다. 보현보살은 수순중생(隨順衆生)하기를 원으로 삼았다. "나는 모든 중생의 뜻에 따라 그들을 섬기고 공양하기를 부모와 같이하고 스승과 같이 받들며 부처님과 다름없이 존경하리라. 병든 이에게는 의사가 되어 주고 길 잃은 이에게는 바른 길을 가르켜 주며, 어두운 밤에는 등불이 되고 가난한 이에게는 재물을 얻게 하리라."

이것이 중생을 따르는 보현보살의 원이다. 남을 즐겁게 이롭게 편안하게 하는 원을 세워야 한다.

욕망과 원은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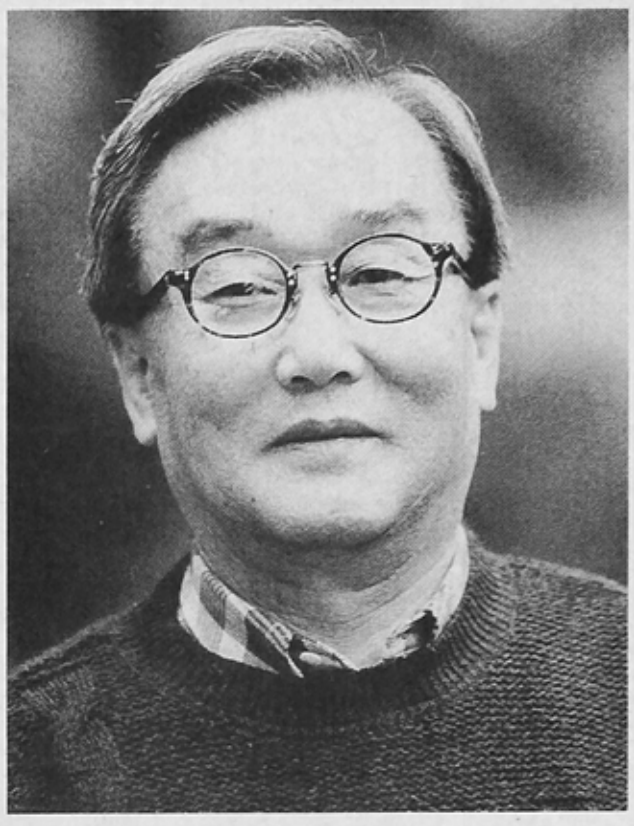
나 자신만 행복하고 유족하게 살려는 것은 욕심인 것이다. 세상에는 원과 욕심을 구별 못하는 사람이 많다. 욕망을 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욕심이나 욕망은 자기를 위한 마음의 설정이고 원은 남을 이롭게 하는 이타행의 근원이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제 생명을 살지우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주위에 살고 있는 남도 생각하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마음의 여유 속에 지상한 싹이 돋아 날 것이다. 이 싹을 보리심이라고 한다. 이 보리심은 원행으로 익어가면 자비행이 태양처럼 땅에 가득할 때 화엄도량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소박하고 알뜰한 원으로 이룩되는 것이다. 오늘도 남산이 바라보이는 법당문을 여는 보명화 보살의 가녀린 바램이 새벽 참예자를 기쁘게 하지 않는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큰재물이나 권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조그만 구멍으로 비춰오는 자비스러운 햇빛이 인간의 마음을 법열케 한다. 법열을 모두가 가져야 할 것이다.

"붓들면 호랑이 만난 심정"

산문밖의 수행 — 한국화가 서 세 옥



서세옥. 그는 붓을 잡는 것을 깊은 산속에서 호랑이와 맞딱뜨리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 두눈이 화등잔만한 커다란 호랑이가 당장에 잡아먹을듯 으르렁거리는데 ….

"호랑이를 때려 잡느냐, 아니면 꼼짝없이 잡혀 먹히느냐 … 절대절명의 순간이지."

성북동, 사방이 빽빽이 책으로 들어찬 그의 작업실에는 그가 늘 추구하는 '인간'을 주제로 한 대작 두점이 작업중에 있다. 일단 붓을 잡으면 그는 전쟁에 나가 단 한칼에 승부를 내버리는 중세의 무사같아진다. 선을 긋고 물감을 칠하는 작업이 모두 일회성이다. 생각하며 깎고 다듬고 고치고 지우고 하는 기법을 단호히 거부한다.

"내가 있다는 존재까지 모두 잊어버리지. 그림 그린다는 것 자체가 자기 혼자만의 은밀한 작업인데, 내가 그림 그린다는 행위까지 잊어 버리게 돼. 그저 완전히 무아의 경지에 빠져 버리는 거지."

그림 그리는 동안 서세옥은 자신의 자리를 서슬이 시퍼렇게 지켜가고자 애를 쓴다. 그때의 눈빛은 용맹정진을 앞두고 있는 선방스님들의 눈빛을 닮는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번뇌와 망상 덩어리, 즐음과 단조로움과의 싸움, 무참하게 패배할 것만 같은 두려움 ….

"그림 그릴 때 삿된 생각에 조금이라도 자리를 내주면 안되지. 치열한 싸움이지,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는 …" 명예라든가 금전이라든가 찬사라든가 이런 것에 마음이 샐 수가 있다. 그는 이런 것을 호랑이에게 잡혀 먹히는 꼴이라고 했다.

"호랑이에게 잡혀 먹힌 적도 있으신가요?"

"물론 있지. 그림 그린지 40여년이 넘지만 지금도 붓 잡으려면 호랑이를 만나는 심정이야." 껄껄 웃는다.

그는 작업할 때 괜티만 입고 몇시간씩 물두한다. 온 몸이 땀에 젖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옷이라는 것이 걸치적 거리는 구속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 *"그의 '인간'은 자연을 정복하고 변형시키는 인간이 아니라 서로 포옹하거나 손을 잡고 어깨동무 하는, 자연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동양적 인간이다"*

"삶도 예술도 자유를 찾는 여행이죠"

그림 그리고 산책하고 독서하고 사람 만나고 하는 모든 일을 서세옥 교수는 '자유롭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표현했다.

예술가란 그 누구보다도 자유인이 아니냐는 반문에 "원래 거미줄 하나 걸쳐 있지 않은 자유인이 우리 인간이야. 어느 틈에 몸에 때가 묻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수 많은 밧줄에 꽁꽁 묶여 가게 되지."

문명이 발전하고 삶의 조건이 좋아진다고 하지만 그가 보기에 인간은 수 많은 밧줄에 묶여 있는 수형인이다.

그는 창작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 내고, 똑같지 않은 것을 만들어 낸다는 외에, 자연 그대로 있는 것에서 통찰과 사유를 통해 또 하나의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낸다는 데 의미를 둔다.

서세옥교수의 이러한 자유의식과, 기존의 것에 댕종하지 않으려는 기질은 젊은 시절부터 발휘됐다.

서울대 미대 2년, 갓 스물에 제1회 국전에서 최고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며 화단의 주목을 받은 그는 그 후, 미인도 산수도가 주류를 이루던 동양화계에 충격을 주는 그림을 속속 선보인다. 동양화단의 고루함을 통고 상식을 파괴하며 동양화 추상의 새 경지를 열게 된다.

기성화단에의 도전그룹인 「묵립회」 가담으로 돌풍을 일고 온 그는 이후 국전심사위원, 한국미협 이사장, 예총 부회장 등을 맡으며 한국화의 커다란 산봉우리로 떠올랐다. 서울대 미대에서만 40여년간 수 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지난 2월 정년퇴임한 그날까지 일관되게 강조해 온 것이 정신적 순결성으로, 붓 잡는 기술보다 조형정신의 핵을 일깨워 왔다.

사물의 내재적 의미를 꿰뚫어 볼 줄 아는 눈을 갖고 무한한 자유 정신에 대해 강조하며 선생과 비슷한 그림이 되는 것을 단호히 경계했다.

그의 거실에는 벽난로를 중심으로 벽 양쪽에 커다란 수묵그림 두 점이 걸려 있다. 간결한 점과 선, 그리고 수묵으로 이루어진 이 그림들은 단순하다.

그가 60년대 이후 끊임없이 그림의 주제로 잡아온 인간시리즈 중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점은 얼굴이고, 선은 어깨요 몸뚱이요 다리다.

"처음에는 나도 사람을 그릴 때 눈·코·입에 머리카락까지 자세하게 묘사했어." 세심하게 사실적 묘사를 하려고 자세히 보려니 도리어 한가지만 보이더라고 했다. 그런데 같은 대상도 아침에 일어나 보고 저녁에 보고 하니 그저 같은게 아님을 느꼈다고 했다.

그의 '인간'은 자연을 정복하고 변형시키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아니라 자연의 한 부분을 이루는 인간, 서로 포옹하거나 손을 잡고 어깨동무하고 있는, 화합의 모습을 하고 있는 동양적 인간이다.

그의 이러한 작업은 대상이 되는 사물을 관조하게 하는 계기를 만든다. 모든 결가지를 벗겨버리고 가장 절실한 부분인 속살만을 간결하게 표현한다. 채색이나 형상 등 외적인 요인보다 작가의 정신성에 최고의 가치를 둔다. 그의 작품들을 두고 평론가들은 지혜·해학이 넘치는 '선시(禪詩)의 세계'를 표현했다고 평한다.

"그런데 묘해요. 서명이 들어가면 그림이 완성되는 건데 서명을 막 마치면 그때부터 그림이 내 것이란 생각이 안드니."

만남은 헤어짐을 전제로 하고 봄의 새싹을 보고 가을 낙엽을 생각해야 하듯 서세옥은 작품에 서명을 마칠 때마다 '무소유'란 말을 떠올리곤 한다. 그림 한켠에 서명을 하는 순간 그는 옅으로 비켜난다. 그 비켜난 공간에 감상자가 들어선다.

서세옥교수는 세간에 정평이 나있을 정도로 독서량이 굉법위하고 깊다. 그의 관심은 전공인 그림뿐 아니라 종교 문학 사회학 등 제과학에 폭넓게 미쳐왔으며 국악과 한시에도 전문가라 할 만큼 수준급이다. 웬만한 대학도서관에 버금갈만큼 책을 많이 갖고 있는 장서가이기도 하다.

여행을 누구보다도 많이 했다고 자부할 만큼 수 많은 나라의 많은 것들을 보았다. 화단에 포진해 있는 수 많은 제자, 부와 화려한 명성과 경력을 가진 한국화의 거목 산정 서세옥에 있어 세속인이 부러워 할 만한 것은 모두 성취한 것은 아닌지. 우문같은 질문에 그는 두 손을 펼쳐보인다.

"빈 손바닥이에요."

<이경숙 기자>

北韓에서 完全 번역한 해제 순 한 글

八萬大藏經

本社 原本入手
맞춤법 활자체 우리에게 맞게
새롭게 조판하여 出版完了



八萬大藏經
수백권의 엄청난 분량 다 읽고 전부 배우기란 쉬운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해제로 된 本書 단 16卷만으로도 八萬大藏經의 內容을 쉽고 간략하게 그 核心을 理解할 수 있는 참으로 보배스러운 今世紀 最高의 번역 佛書입니다.

스님, 佛敎學者, 포교사, 佛子, 先生님, 學生, 文學人, 史學者 심지어 他宗敎 聖職者까지도 감탄과 찬사를 아끼지 않고 지금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韓國의 國寶, 世界的 寶物, 神祕의 八萬大藏經
이제 순 한글로 完譯된 八萬大藏經을 우리들 서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색인부가 있어 보고 싶은 부분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크라운版 洋裝本 각권 400~700쪽

定價:~~350,000원~~ 500秩 特別 割引價(4회×70,000원) 280,000원

販賣元:文獻 情報 文書布敎事業部 TEL.(02)929-0211~4



원효학 국제학술 세미나 토론요지



"21세기의 새로운 비전제시"

원효의 사상은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비전이란 해답이 「오늘날 우리는 원효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나」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제시됐다.

지난 18,19일 이틀간 타워호텔에서 열린 한국불교연구원의 원효학 국제학술세미나에서는 10명의 학자가 참가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이틀간의 학술회의중 관심을 모았던 토론내용을 정리했다.

화쟁논리, 분별지 뛰어넘는 세계관

번선환목사(전 감리교신학대)는 원효의 일심(一心)이 개체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다원주의에 배치되는 궁극적 실재론이 아니냐는 질문에 "화쟁(和諍)의 논리는 서양의 '일원적 다원주의'나 '다원적 다원주의'와 같은 이원론적 분별지를 뛰어넘는 새로운 세계관"이라고 말했다.

베르나르 포르교수(스텐포드대)는 원효의 삼이 당시 민중의 무의식적 상징의 표현물은 아닌가란 질문에 "신화적·역사적 이미지의 원효에서 어느 측면을 더 강조해야 할 지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역사와 신화 사이에 선을 분명히 긋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화두선은 무의식의 의식화 과정

또 서울대 이부영교수는 깨달음의 과정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설명에서 "화두(話頭)는 비합리적 의식의 상징물"이라고 전제하고, "화두선은 의식의 합리성을 깨뜨려 무의식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무의식 속에 내재하는 깊은 뜻을 터득케 하는 '무의식의 의식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로버트 버스웰교수(UCLA)는 간화선과 사회심리학, 일심과 무의식과의 관련성에 대해, "간화선은 마음의 안개를 걷어 위대한 일심에 이르게 하는 독특한 수행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선수행과 심리학은 어떤 유사성을 가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야마오리 테쯔오교수(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는 원효와 일본의 성덕태자(聖德太子·574~622)를 비교하면서, "두 분다 재가불교의 창시자로서 비슷한 점이 많다"고 말하고, "일본인은 형이상학과 원대한 세계관을 싫어해 화엄경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본적 밀교를 낳게 됐다"고 덧붙였다.

금강삼매경론은 중국 선종의 뿌리

이틀간 학술회의를 정리하면서, 이기영박사는 "원효라는 인간과 그의 사상의 위대성이 국제적으로, 또는 우리나라 인문학계에서 제대로 널리 이해되고 올바로 평가받기에는 아직도 전도가 요원한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이박사는 또 "원효의 사상은 모든 불전을 다 섭렵하고 깊이 사유하며 체험적으로 깨달은 일승(一乘)의 정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지난 88년 제5차 해외한민족회의에서 발표한 「원효사상은 21세기 세계를 향해 무엇을 줄 수 있는가」에서 6개 조항을 제시했다.

△화쟁의 공동체로서의 세계관과 인생관 △연기로서의 역사관, 공(空)·가(假)·중(中)의 현실인식 △법(法)·보(報)·화(化) 삼신설(三身說)에 입각한 우주관 △무소유, 보시의 경제윤리 △요익중생(饒益衆生)의 정치철학 △귀일심원(歸一心源)의 교육 등이 그것.

이어서 이박사는 "중국선종의 뿌리는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에 있다"고 주장하고, "〈금강삼매경〉의 내용은 최초로 원효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의 〈금강삼매경론〉은 중국선종이 태동할 무렵에 불교의 핵심이 선상매(禪三昧)에 있음을 확신하게 한 중대한 의의를 가진 문헌이었다"고 역설했다.

〈김재경 기자〉

경천사지 10층석탑 "실내에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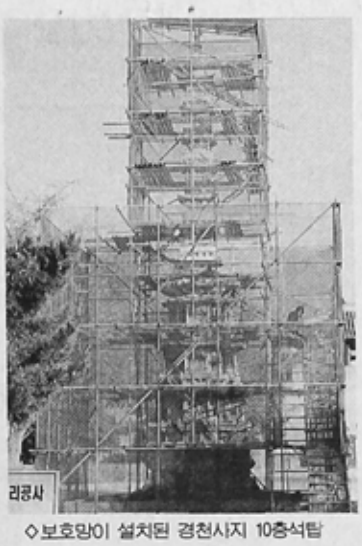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 신축 용산박물관으로 이전예정
부작용초래 가능성 … 전문가 자문받아 추진해야

경천사지 10층석탑이 실내로 들어간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국보86호인 경천사지 10층석탑이 대기오염과 산성비로 크게 훼손되고 있어 용산에 신축되는 박물관으로 옮겨 실내에 전시할 방침이다. 박물관의 이같은 방침은 그대로 내버려둘 경우 손상을 막을 길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른 것.

최근 신축박물관·설계자문을 위해 내한한 이탈리아 로마대학의 발란카교수는 경천사지 석탑을 관찰 "풍화작용으로 인한 석재 표면의 균열현상등이 심하므로 실내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조만간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탑의 보존을 위한 철거이전 문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정양모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석탑을 갑자기 실내로 옮길 경우 온도와 습도의 변화로 인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도 있다"며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보존과학자들의 자문을 거쳐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호망이 설치된 경천사지 10층석탑

송림사 사리장치 등 전시

국립 대구박물관 12월초 개관

국립대구박물관이 지난 3월 건축공사를 마무리짓고 12월초 개관을 목표로 막바지 준비작업에 한창이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한데 모아 전시하고 이 지역 문화의 연구 보존 및 지역문화센터의 역할을 할 대구박물관은 대구시 황금동 범어공원내 총3만5백81평의 부지에 연건평 3천48평으로 고고실과 미술실, 민속실외에 기획전시실등 4개의 전시실에 각 국공립박물관과 대학박물관에 흩어져 있는 이 지역 출토유물을 집성 전시하게 된다.

미술실은 대구지역에서 출토된 불상·사리장엄구 및 각종 미술공예품과 영남유학자의 유품 및 임란관련 유품을 전시하여 당시 사회상을 재조명 할 수 있도록 꾸몄다.

이중에는 8세기초 통일신라시대의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사리장치(보물 325호)와 안동 옥동 출토 신라시대 금동반가사유상과 선산 봉한동 출토 삼국시대 금동관음보살입상(국보 184호), 영풍 성내동 출토 통일신라시대 금동용두(金銅龍頭) 등의 유물이 포함돼 있다.

보물 「반야심경약소」 역경 추진

문화체육부에 의해 지난 10월 17일 보물 제1211호로 지정된 소요산 자재암(주지 법타)소장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般若波羅密多心經略疏)'가 현대국어로 번역될 예정이다.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의 '동악어문학회'가 일선에 나서 현대국어로 번역할 이번 작업은 중세국어 연구의 일환으로 반야심경을 소장하고 있는 자재암을 방문, 사진에 담은 후 현대역 전산화작업에 들어간다.

「종교와 환경」주제 발표회

3일 한국종교학회, 연구모임도

한국종교학회(회장 길희성)는 오는 12월3일 서강대 다산관 B102호에서 추계학술발표회를 갖는다.

이번 학술회의는 「종교와 환경」주제로 열려, 곽신환교수(숭실대)와 송항룡교수(성균관대)가 주제발표에 나서 「유교의 자연관」·「도가의 자연관」을 각각 발표하고, 연구모임의 불교·인도종교분과에서는 박동기박사(동국대)와 양은용교수(원광대)가 「방편사상의 변천과정 소고」·「왜란·호란 후 호국 승군의 동태」를, 문을식교수(동국대)와 이태영교수(동국대)가 「베단타에서의 무논쟁」·「힌두이즘의 인체관」을 각각 발표한다.

이밖에 유교·도교·그리스도교·무속등 각 연구모임에서는 모두 17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된다.

연해주 유적 한눈에 대륙연구소 탐사보고서

해방 이후 우리나라 최초로 이루어진 러시아 연해주 발해유적 발굴성과를 정리한 〈러시아 연해주 발해유적〉이 대륙연구소(회장 장덕진)에 의해 발간됐다.

이책은 대륙연구소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역사·고고·민속학연구소(소장 빅토르 라린)와 92년 체결한 바 있는 발굴협정에 의거, 대륙연구소와 조선일보사, 문화방송이 공동주관하여 러시아 연해주에서 실시한 발해유적 발굴의 결과 보고서이다.



월례학술회개최 한국동양철학회

한국동양철학회(회장 송석구)는 지난 25일 대우재단빌딩 11층 강연실에서 제65회 월례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동국대 송재운교수가 「화엄의 심성설」, 성균관대 윤무학교수가 「한비자의 형명론(形名論)」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지상상담 —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 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돌아가신 시부모님이 자주 보이는데 …

문 저희 시아버님은 10년 전에, 아버님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작년에 아버님 장례후 49재를 두분 함께 올렸는데 최근 시가 쪽 친척 중에 시부모님이 자주 보인다고 다시 49재를 올린다고 합니다.

맘이 편치 않아 문의합니다.

(부산시 금정구 서2동·김경이)

답 천도에는 세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 도리를 몰라서 과거에 '이렇게 하라'고 일러준대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스님네들이 도리를 알고 일체를 다 맡겨 놓고서 할 때 마음내는 능력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 한 단계는 일체 제불의 마음과 조상님 마음이 둘이 아닌 까닭에 모든 것이 한자리에서 이뤄지고 나고 드는 줄을 알아 따로 재를 지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천도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조상님이 이 도리를 모르고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후손이 마음 도리를 알아 일체를 마음 자리에 입임하고 나간다면 그대로 천도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49재를 지낼 때 조상님을 내 몸같이 생각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한자리 같이 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꿈자리에 보인 것은 그 분이 조상님의 중생적인 모습만 보고 참 근본인 부처님의 모습, 모습 아닌 그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 수행자라면 조상님께 늘 감사하는 생각을 하되 자기와 더불어 해야 합니다.

육조스님의 법통은 어떻게 전해질까요

문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가섭존자를 거쳐 달마·혜능에 이른 불법이 매우 융성하다가 다시 번잡해졌다고 봅니다. 스님께서는 육조의 밝은 법통이 미래에는 어떻게 전해져 가리라고 보시는지요.

(서울 종로구 신영동·허두필)

답 이 세상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들이 깨우쳤다 하더라도 찰나찰나 돌아가는 자체가 나 아님이 없기에 하나이지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란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부처님이 아닌 것이 부처님이란 말이죠. 육조 혜능선사의 법통을 이어 많은 사람들이 배출되었지만 지금은 왜 이러냐고 하신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같은데도 사람들이 생각을 더 한번 기울여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 속 한 가운데서 자기가 자기를 알라고, 깨우치라고 하는 말을 그때 육조선사도 역시 말씀하셨습니다. 역대 조사들도 다 그렇고, 부처님 보살님들이 다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대성인도 너 자신부터 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 탓이지 왜 그분들 탓입니까? 부처님 법이란 우리가 다 죽는다 해도 풀 한 포기만 살아있다면 불법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회향을 올바르게 하는 방법은

문 수행을 하다보면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부가 많이 된 분은 더 그렇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원하는 일 따위가 이뤄졌다고 할 때 다시 회향하는 공덕이 크다고 하는데 회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인천시 북구 효성동·최정달행)

답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회향하는 데 무슨 회향을 또 할까요. 아니 밥먹고 일어나도 회향이요, 말을 하고 끝마쳐도 회향이요, 모든 게 회향 아님이 없습니다. 시작이 있고 회향이 있는 것은 우리가 살림살이에 묶여 있기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볼 때에 사람들이 한 곳으로 나고 한 곳으로 드는 줄을 확고히 믿는다면 그대로 시시각각이 회향입니다.

물 한모금 마시고 밥 한술 떠 넣어도 더불어 먹고 더불어 감사하는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일부러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께 회향합니다'하는 생각을 지어서 회향치 않아도 깊은 감사와 믿음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모든 행이 일체중생, 일체부처님과 같이 하는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것이 그대로 회향인 것입니다.

몸 아프고 직업도 마땅치 않아 괴로워

문 저는 몸도 건강하지 못하고 직업도 마땅치 않아서 사는 게 참 고통스럽습니다. 3년전부터 인근 사찰에 다니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마음은 편치 않군요.

(인천시 남구 용현동·장달영)

답 탤런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극중에서 거지 역, 머슴 역, 임금 역, 또는 죽는 역, 범죄인 역등 갖가지 배역을 맡아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잠시 잠깐 배역을 맡아서 대사를 외우고 땀흘려 연기를 하는데 거지 역을 맡았든 임금 역을 맡았든 상관하지 않고 다만 감독한테 뽑힌 게 좋아서 아주 훼히 승락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아마 너는 내내 거지로 박혀 살라 하면 전부 공무니를 빼고 안하겠지요. 그러나 잠시 잠깐이거든요. 잠시 잠깐이니까 돈도 벌겠 이름도 지킬겠, 또 그렇게라도 배역을 받지 않으면 탤런트로서 생명이 끊어질까봐 흔쾌히 배역을 받지 않을까요.

그 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심거운 비유라 생각치 마시고,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며, 어디로 가기 이전에 무엇을 하는가 생각해 보면 탤런트들이 배역을 맡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원점에서 와서 원점으로 가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소임을 맡아가지고 나온다는 사실을 안다면 지금 어떠한 소임을 맡았든지 겁이 나지 않을 겁니다. 잠시 잠깐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누구나 연기자들이 하는 것처럼 잠시 잠간 배역을 맡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어진 배역을 열심히 소화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모습으로 형성되어 이 세상에 다시 나와서 또 고비를 넘겨야 하니까요. 그러니 너그럽게 삶을 마주 대할 줄 아는 게 필요하고, 그러는 중에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해나가기 바랍니다.

사례의 말씀

귀명삼보 하옵고
금번 대한불교 조계종
제28대 총무원장 선거에 있어서 복덕과
지혜가 부족한 소승에게 뜻을 모아
적극성원해 주신 원로 대덕 큰스님과 도반스님
그리고 여러 스님들과 신도님,
국민 여러분들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소승은 이번 선거 결과를 크나큰 경책으로 받아들이고,
사부대중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성원해 주신 뜻과 마음을 귀중하게 담아서
종단의 앞날을 위해 더욱더 수행하고
정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출발한 종단이
불교발전과 종단중흥을
원만히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8대 총무원장 후보 **유월탄** 합장



藥이 되는 우리 음식이야기/김치①

'찰떡궁합' - 쌀밥과 김치

우리 조상들은 식품조리학의 천재였습니다.
쌀밥에 결핍된 영양분을 보충하고, 겨울철에도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고, 또 소화를 촉진시켜주는 반찬을 개발했으니, 바로 김치가 그 위대한 발명품입니다.

쌀 밥과 김치를 떼놓고 한국을 말할 수 없습니다. 조상들이 한반도에 터를 잡았을 무렵에 등장한 쌀밥과 삼국시대 이전부터 먹기 시작한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을 물려온 주식과 반찬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인의 배를 너끈하게 채우는 따뜻한 쌀밥과 잘 익은 김치는, 또 그렇게 궁합이 잘 맞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활동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단백질인데, 고기가 부족했던 우리는 단백질 섭취를 주로 곡류에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곡류 단백질 속에는 인체 영양의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Lysine)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김치의 주재료인 무와 젓갈 속에는 라이신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김치를 먹으면 곡류 단백질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 무김치에는 곡류를 잘 분해하는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들어 있어 밥을 먹고 난 뒤에 소화가 잘 되게 해줍니다. 김치 없이 맨밥을 먹으면 였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 김치에는 동물성인 젓갈이 들어 있어 순식물성 음식인 쌀밥의 결점을 여러 가지로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 쌀밥에는 꼭 김치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세계 최고의 소금

역사가 시작된 뒤로 이보다 좋은 소금은 없었습니다.
仁山 김일훈(1909~1992)이 개발한 신비의 소금
인산죽염은 80여 가지 미네랄이 살아 있는 서해안 굵은 소금을 9대나무통 속에 넣고 자리산 황토로 봉한 다음 송진불로 굽기를 아홉번.
마지막 아홉번째 가사는 1천도 이상 센불에 녹여 낸 흑소금입니다.
세계 최고의 소금으로 김치를 담그세요.
아홉 번 구운 인산죽염, 세 번 구운 인산생칠죽염.

150년을 잇는 '身土不二 건강'의 맥
仁山家 736-3171
'身土不二 건강' 상담/자료문의

수 요 인터뷰

"한국禪에 문명의 한계 극복할 길 있어"

로버트 버스웰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

대담 : 차차석 조사자료부장



◇로버트 버스웰교수는 미국 UCLA 동아시아어문 및 불교학 과수로 재직중이며 한국학 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그는 72년도와 73년도에 태국과 홍콩에서, 다시 74년부터 5년간은 송광사에서 구산스님을 은사로 선수행을 했다. 보조사상연구원 국제불교학회 아시아학회 미국종교학회 회원으로 선불교관련 논문을 다양하게 발표 했으며 한국 선사상과 불교에 관한 저서 6권을 냈다.

서구 종교 잘못 비평능력 갖춰야 존립

포교방법 비효율적 … 통일교재 절실

―한국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11월 18일~19일 양일간에 걸쳐 거행된 원효사상 학술 발표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내한 했습니다. 그동안 원효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주제의 핵심을 기존의 접근방식과 다르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찬영이란 스님이 지은 송고승전에 실린 원효의 전기와 일연스님이 저술한 삼국유사에 나오는 원효의 전기를 대비하여 비교분석하는 작업입니다.

찬영스님의 원효전기는 신화적으로 각색되었더라도 한국인의 민족적 정서가 보다 강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연스님의 원효전기는 역사적 사실에 보다 가깝게 서술되어 있지요. 따라서 각각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원효란 인물의 사상적 문화적 배경을 잘 전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불교에 심취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저는 캘리포니아대학에서 법어와 중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졸업하자 태국의 왓보오니웨이손 사원에서 수계를 하고 1년간 수도했습니다. 이후 홍콩의 보림사에서 1년간 체류하다 한국의 송광사에 와서 5년간 참선공부에 매진했습니다. 태국에 있을 때 한국스님을 한분 만났는데 그 그 분을 통해 전세계에서 한국불교만이 간화선의 전통을 순수하게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간화선에 매력을 느끼고 있었으므로 한국불교 특히 보조스님의 저술을 탐독하면서 이 책들이 바로 간화선의 지침서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보다 확실한 간화선을 공부하기 위해 한국의 송광사로 건너왔습니다. 당시 송광사에는 구산스님이란 분이 계셨는 데, 그분은 보기 드문 선승이셨습니다. 태국이나 홍콩에서도 많은 선사를 만났습니다만 구산스님을 뵙고 인사를 드리는 순간 내 일생의 정신적 스승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 밑에서 5년간 공부한 것은 내 일생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구산스님의 법어가 저의 마음 속에 살아 숨쉬고 있지요. 영원한 저의 스승입니다.

―7년여의 수행을 마치고 귀국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래는 구산스님 지도를 받으며 한국에 오랫동안 살려고 했는 데 한국불교 특히 선종을 미국에 알리기 위해서는 책을 저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책을 통해 알리는 것이 중요한 데도 한국불교를 외국에 알리려는 노력이 부족했지요. 중국, 일본, 남방의 불교를 소개하는 책들은 현재까지 매우 많습니다.

순수 간화선에 매력

한국불교를 알리기 위한 소개 책자나 한국 간화선의 가치를 학계에 알리는 작업을 하다보니 다시는 송광사로 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한국불교에 관한 저술은 몇권 출판했지요. 그리고 결혼도 하였고 또한 전문학자로서 학문의 세계에 몰두하다 보니 외형적으로는 수행자의 모습이 아니지요. 그렇지만 언제나 저는 선의 정신을 추구하고, 그 세계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고투하는 수행자가 틀림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구산스님과 얽힌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한가지만 소개해 주십시요.

▲송광사에서 동안거를 보내는 데 음식이 너무 매워 폐가 나빠졌습니다. 그래 음식을 바꾸어 주십사 하고 요청했지요. 구산스님께선 대중들과 생활을 함께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거절하셨어요. 또한 한국의 스님들은 그때만 해도 외국인들과 공부하다 보니 많은 불편이 따랐어요. 그래 구산스님이 출타 중이시면 한국스님들의 구박이 매우 심했습니다. 우리는 구산스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피신해 있다 그분이 돌아오시면 정진에 참여하곤 했습니다.

한국에 오랫동안 살려고 했는데 한국불교 특히 선종을 미국에 알리기 위해서는 책을 저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외형적으로는 수행자가 아니지만 저는 선의 정신을 추구하는 수행자라고 확신합니다.

―선불교의 핵심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본성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착을 끊어버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집착이 끊어지면 6근이 청정해지고 자연스럽게 자비가 나옵니다. 또한 사물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을 부정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선은 하면 할수록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낙천적인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인생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일반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또한 선승들이 사회적으로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그들의 수행은 그 자체가 이 세상의 청량제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언제나 진실의 편에 서서 사바와 진실의 만남을 융합시키고 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선불교가 인류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면 어떤 점이라 보십니까.

▲정신문화를 풍요롭게 해주리라 봅니다. 인류의 문화는 정치·경제·사회 등 각가지 방면에서 인간의 안녕과 자유를 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인적 이기심, 집단적 이기심에 쌓여 죽이고 죽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특히 서양종교의 특성이 배타적, 도전적인 데서 파생된 전쟁도 많습니다. 이러한 인류문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선불교 밖에 없습니다. 특히 원효스님의 한마음(一心)은 한국선종의 핵심철학인 데 모든 존재의 평등원리이자 누구나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보편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형색(인종·성별)은 여하튼 바탕은 일심이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것이 일심이기 때문입니다.

―서구적 종교문화의 전통과 불교적 종교문화의 전통은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십시요.

▲서구의 대표적 종교인 기독교는 모든 것을 절대자에게 맡기고 신심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철저하게 자기책임을 강조합니다. 철저한 개인 중심에서 사회연대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적 이기심을 포기하라 가르치지요. 저 개인적 소견으로는 불교가 서구인들의 개인주의적 성향에 적합하다고 봅니다. 불교가 서구에서 점차 호응을 받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겠지요.

―한국불교가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십시요.

▲한국은 이제 경제개발에 앞서 정신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정신개발이 되지 않은 사회는 불만과 혼란의 아수라장이 되고 말지요. 한국불교는 정신개발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 경제개발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정신개발은 참선을 철저하게 수련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모방 말아야

나아가 포교의 방법을 개발해야 합니다. 송광사 시절에도 경험했습니다만 의식도 교재도 통일되지 않아 포교의 효과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또한 기독교를 모방하지 말고 불교 독자의 포교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예컨데 참선은 왜, 어떻게, 어떤 책으로 공부해야 하는지를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신도와 승려의 사이가 밀접해 질 필요도 있습니다. 일부 배금주의에 물든 사이비수행승이나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수행승들을 보게 되는 데 그것은 승려와 신도 사이의 교감을 단절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불교는 기독교의 비평 속에서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 데, 이제는 기독교가 불교를 비평하는 것 만큼 기독교의 한계를 비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파주의의 소승적 견견이 아니라 한국에서 불교가 존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본질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몇가지를 해결한다면 한국불교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리라 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한국불교에 대한 연구가 괄목한 성과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앞으로 2~3년 안에 한국불교에 관해 2권의 책을 출간할 계획입니다. 항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대불교」가 한국불교의 미래를 활짝 열 수 있도록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대우자동차 전 차종 특별판매



대상차종
아카디아 · 브로엄 · 프린스 · 에스페로
씨에로 · 르망 · 티코 · 다마스 · 라보

· 리스 할부
· 인도금 없이 전액 자체 할부(국민차)
· 차종에 따라서 무이자 할부도 가능(한정판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 화:249-3541 호출기:(012)207-3672
핸드폰:(011)216-3672 담당자: 강 양 구

군불교진흥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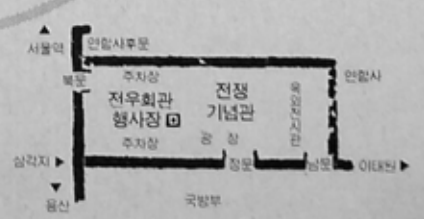
제 26주년 군승의날 기념법회 및 21대 군승단장 취임법회

초청의 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육·해·공군 군승단 창단 26주년을 맞이하여
장병들의 전법교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승법사님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제21대 군승단장 차곡 강남석 법사님의 취임을
축하하는 특별법회를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공사다망 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38년 11월
군불교 진흥회
회장 박상길 합장

일 시:불기 2538년 11월 30일(수) 오후 6시
장 소:전쟁기념관내 전우회관
연락처:TEL. (02)748-1728, 749-8646
FAX. (02)796-0221



※ 전쟁기념관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16시까지 전쟁기념관 매표소로 오시면 안내하겠습니다.

다시 푸는 경서

초발심 자경문 (6)

雖有才學 無戒行者 如寶所導而不起行
(수유재학이나 무계행자는 여보소도이불기행이요)
雖有勤行 無智慧者 欲往東方而向西行
(수유근행이나 무지혜자는 욕왕동방이향서행이니라)
有智人 所行 蒸米作飯
(유지인의 소행은 증미작반이요)
無智人 所行 蒸沙作飯
(무지인의 소행은 증사작반이니라)
共知喫食而慰飢腸 不知學法而改惡心
(공지끽식이위기장하되 부지학법이개치심이니라)
行智具備 如車二輪 自利利他 如鳥兩翼
(행지구비는 여차이륜이요 자리이타는 여조양익이니라)

비록 재능과 배움이 있어도 계행이 없는 이는 마치 보배 가득 쌓인 곳으로 이끌어도 일어나 따르지 않음과 같고 비록 부지런히 닦기는 하지만 지혜가 없는 이는 동쪽으로 가겠다면서 서쪽으로 나아감과 같다.

지혜로운 이 닦는 것은 쌀을 쪄서 밥짓는 것이요 슬기 없는 이의 닦음은 모래를 쪄서 밥짓는 격이다.

누구나 밥 먹어 주린 배 달랠 줄은 알지만 불법을 배워 어리석은 마음 고칠 줄 모르니 계행과 지혜를 갖춤은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자리이타의 소행은 마치 새가 양 날개로 나는 것과 같다.

계율은 진리의 세계 오르는 사다리
출가자의 富는 속인들의 웃음거리

得粥祝願 不解其意 亦不擯越
(득죽축원하되 불해기의면 역부단월에)
應羞恥乎 得食唱唄 不達其趣
(응수치호며 득식창패하되 부달기취면)
亦不賢聖 應慙愧乎
(역불현성에 응참괴호아)
人惡尾蟲 不辨淨穢
(인오미충이 불변정예이듯)
聖僧沙門 不辨淨穢
(성승사문이 불변정예니라)

시주 받고 축원해주더라도 마음도리 밝히지 못하면 또한 시주 공양한 그 뜻에 어찌 부끄럽지 않을 것이며 공양 받고 염불 범패하지만 둘 아닌 근본 도리에 계합치 못하면 그 또한 성현에게 얼마나 죄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랴.

사람이 구더기가 깨끗하고 더러운 것 가리지 못함을 미워하듯이 성현도 사문이 더러움(세속)과 깨끗함을 가리지 못하는 것 미워하느니라.

棄世間童 乘空天上 戒爲善梯
(기세간훤하고 승공천상은 계위선제니)
是故 破戒 爲他福田
(시고로 파계코 위타복전은)
如折翼鳥 負龜翔空
(여절익조가 부구상공이라)
自罪 未脫 他罪 不贖
(자죄를 미탈하면 타죄를 불속이라)
然 豈無戒行 受他供給
(연이나 기무계행하고 수타공급이리오)

세간의 소란을 버리고 저 진리의 세계로 오르는 데는 계율지킴이 좋은 사다리가 되니 그러므로 계행을 깨뜨리고 남의 복밭이 된다는 것은(귀의 받는 대상이 된다함은) 날개 부러진 새가 거북을 등에 업고 하늘을 나는 격이라 자기 죄업 녹이지 못하면 남의 죄업 녹여줄 수 없나니 계행없이 어찌 다른 이의 공양을 받으리요.

無行空身 養無利益 無常浮命 愛惜不保
(무행공신은 양무이익이요 무상부명은 애석불보니라)
望龍象德 能忍長苦 期獅子座 永背欲樂
(망용상덕하야 능인장고하고 기사자좌하야 영배욕락이니라)
行者心淨 諸天 共讚
(행자심정하면 제천이 공찬하고)
道人 戀色 善神 捨離
(도인이 연색하면 선신이 사리하나니라)
四大 忽散 不保久住 今日夕矣 願勤策勵
(사대가 홀산이라 불보구주니 금일석의라 과행조재인저)

수행없는 이 헛된 몸 길러봤자 이익될 게 없고 부평초 같이 덧없는 이 목숨 사랑하고 아껴보았자 보전치 못하리니 마음도리 투철히 깨친 선지식되길 바라거든 능히 수행의 고통을 잘 참고 부처님의 열반자리 기약하려거든 영원토록 육락을 등지도록 할 것이니라.

수행자의 마음자리 청정하면 모든 천신이 칭찬하고 도 닦는 이로서 현상계·속계에 마음 기울면 여러 신들이 버리고 떠나느니라.

사대육신은 홀연히 흩어져 오래도록 보전치 못하나니 어느덧 금생도 저녁나절(황혼)이라 모름지기 아침(내생)이 닥쳐오는 구나.

世樂 後苦 何貪着哉 一忍長樂 何不修哉
(세락이 후고어늘 하탐착재며 일인이 장락이어늘 하불수재리오)
道人食 是行者羞恥 出家富 是君子所笑
(도인탐은 시행자수치요 출가부는 시군자소소라)
遮言 不盡 貪着不已
(차언이 부진어늘 탐착불이하며)
第二無盡 不斷愛着
(제이무진어늘 부단애착하며)
此事無限 世事不捨 彼謀無際 絶心不起
(차사무한어늘 세사불사하며 피모무제어늘 절심불기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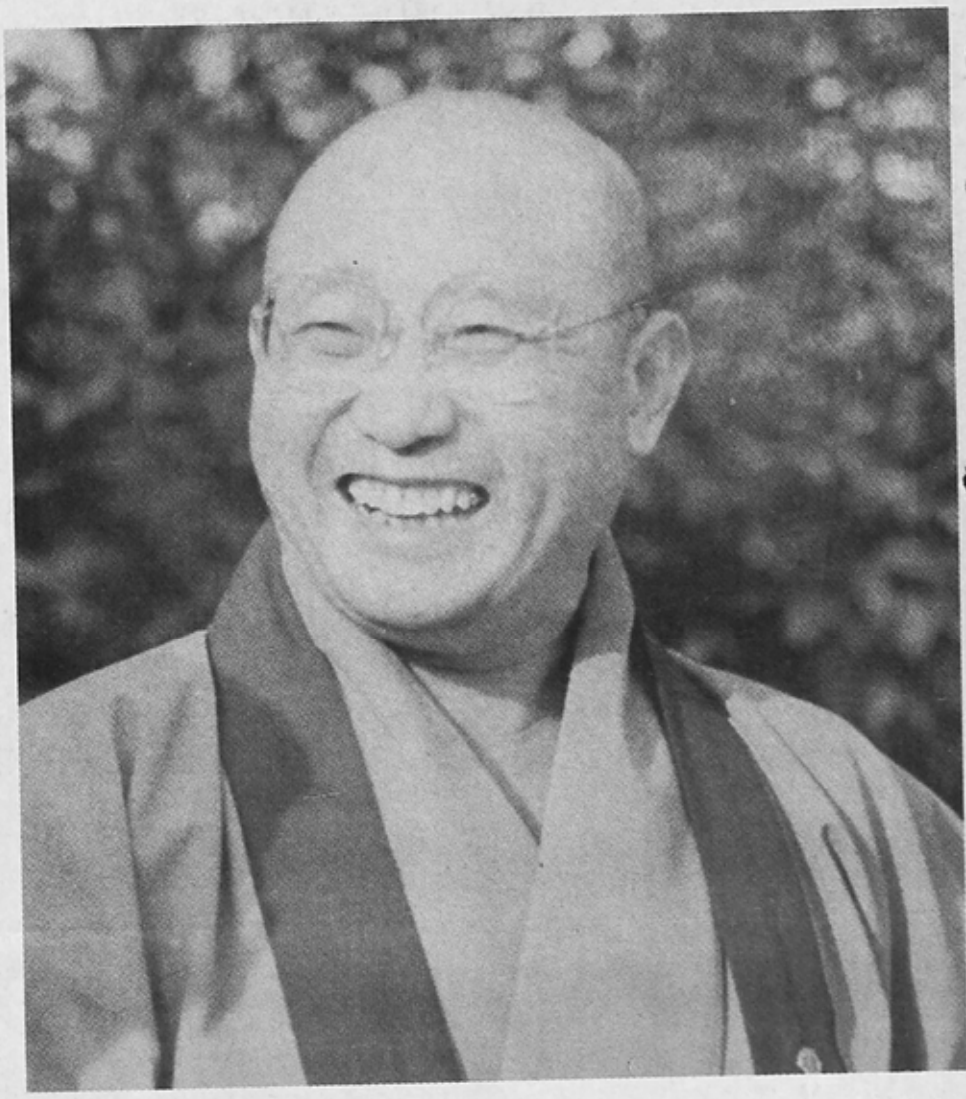
속세의 즐거움엔 나중에 고통이 따르거늘 어찌 탐착할 것이며 한번(욕망을) 참는 데 오래도록 즐거움 있거늘 어찌 닦지 않으리오 도 닦는 이의 탐심은 수행자의 큰 수치요 출가자의 부는 저 (세속)군자들의 웃음거리니라. (탐착·치부 등 계행어김에) 변명할 말은 끝이 없어도 탐하고 집착하기를 그치지 않으며 (이런 저런 구실을 달아) 요다음, 요다음 하고 (수행을) 미루기는 끝이 없어도 끝내는 애착을 끊지 않네. 이 같은 일 한이 없거늘 세속 일 버리지 못하여 저 같은 꾀 가이없거늘 끊을 마음 내지 않는도다.

龍眼

지상 법석

"원인 없는 결과 하나도 없어

숭산 스님 <화계사 조실>



이 지구가 돌고있는 한 하나도 변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살아나가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첫째 나 자신이 어떻게 마음을 잘 가지며 내 가정을 어떻게 잘 지키며 또 내 나라는 어떻게 육성시키며 모든 인류가 어떻게 잘 사느냐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나라를 볼 때에 여성이라는 그 힘이 올바른 정도를 잡을 때에 그 나라가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여성이 타락되면 인간성이 상실되고 나라가 망해갔습니다.

지나온 역사를 뒤돌아보면 왕실 안에서 흐름을 조정한 것이 여성들이었습니다. 그 방향을 바꾼 것도 여성이었으며 또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져오게 한 것도 여자입니다. 역사의 뒤안길에서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힘이라는 것이 밖에 나타나는 힘보다도 안에서 조정하는 힘이라는 것이 굉장하다는 것이 역사상에 나타난 사실입니다.

역사속의 여성의 힘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만 되겠는가. 또 이 세상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그 가운데 우리는 주부로서 어떻게 나 자신을 콘트롤하고 가정을 리드하고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 보기로 합시다. 이 세계의 흐름을 보면 격동기입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두 개의 진영으로 벌어졌습니다. 공산국가가 탄생된 것이 1617년입니다. 그 무렵 독재가 심했습니다. 인간들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그 사회가 어떠한 주권자들에 의해서 노예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인간은 자유다, 평등이다 하는 것을 부르짖으며 1917년도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백년도 못가서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독이 서로 손을 맞잡고 통일을 이루었는가 하면 소련과 중공의 개방정책을 비롯하여 공산국가가 자멸하기 했습니다. 이것은 커다란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소련에 종교인으로서 참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련정부가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인과 정치가·학자·예술인 등 각계 분야에 있는 3백명을 초청했습니다. 그 다음 소련내에 있는 각계각층 사람들, 특히 현정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많이 초대했습니다. 또 소련 내에 있는 권력을 가진 3백명과 같이 일주일 동안 이 지구상에 사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한 방향을 향해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요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환경과 인간의 방향'이었습니다.

무엇을 전할것인가

기원전 1900년 전에 그때 우리 인구가 1억도 못되었습니다. 그것이 1750년도 그러니까 1700년 동안 10억이라는 인간이 태어났었습니다.

해방되던 1945년도에 20억이라는 인구가 불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인구가 얼마인가. 5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인구가 어디서 왔느냐. 이 많은 인구를 하나님이 만든 것이냐, 부처님이 만든 것이냐. 근원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팽창한다 할 것 같으면 2000년대에 가서는 80억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50억인데 80억으로 늘어나면 인간은 설 땅이 없습니다. 인간폭발이 됩니다. 소련내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 150명과 미·영국 고등학교 학생 150명 등 300명을 참여시켰습니다. 그때 고르바초프가 말하기를, "우리 인간들이 이 지구상에서 제일 악질적인 동물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해치고 공기와 물을 더럽게 만들고 이 세상에 모든 악행을 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동물을 죽여서 고기를 먹고, 모자를 해쓰고, 가

신축법당 건립을 위한
보은사 불사 권선문

귀의 삼보 하옵고···
날마다 좋은 나날되시길 부처님께 축원드립니다.
불교는 인연을 중요시 여기는 종교로써,
여기에 보시공덕 인연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당이 낡고 협소하여 신축공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찰 예산으로는 많은 불자들이 마음껏 기도 정진하고,
심신을 연마할 수 있는 법당을 마련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신축법당 건립불사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시어
佛事가 원만히 회향되고 함께 하시는
모든 불자들의 자비공덕이
사바세계에 오래 빛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38년 11월 일

주 지 박법홍
신도회장 서정식
부 회 장 김연화정 합장
총 무 이성도화
거사림회
명예회장 김태달 합장
회 장 홍인학

불사동참구좌
대동은행 : 353-02-011549
대구은행 : 062-07-114341-000
예 금 주 : 박 철 홍
※자세한 문의는 사찰에 연락하십시오.

대한불교 법화종 보은사
대구직할시 북구 산격 4동 1201-3 ☎ (053)941-9164, 953-6704

불교성지순례

○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인도 7대성지 순례)
인도 네팔 11일
● 출 발 : 12월 16일, 1월 13일, 1월 27일 동참금 : 165만원
● 일 정 : 서울-델리(1박)-럭나우-발람푸르(1박)-바라나시(1박)-보드가야(1박)-라지기르, 나란다-파트나(1박)-바이샬리, 쿠시나가르(1박)-룸비니(1박)-카트만두(1박)-싱가폴 경유-서울
● 특 전 : 전문요리사 동행 한국 음식 제공, 불교성지순례 전문가이드,

○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캔디 불치사)
스리랑카 6일
● 출 발 : 12월 16일, 1월 6일, 1월 20일 동참금 : 108만원
● 일 정 : 서울-콜롬보(1박)-아누라다푸라-하바라나(1박)-폴른나루와, 시기리야-하바라나(1박)-덤불라, 아루비하르-캔디(1박)-콜롬보(1박)-서울

○ 불탑의 나라
미얀마 태국 8일
● 출 발 : 12월 16일, 1월 27일, 2월 10일 동참금 : 140만원
● 일 정 : 서울-방콕-양곤(1박)-파간(1박)-만달레이(1박)-양곤(1박)-페구-양곤(1박)-방콕(2박)-서울

○ 불광사, 화련
대만 5일
● 출 발 : 12월 16일, 1월 13일, 2월 3일 동참금 : 68만원
● 일 정 : 서울-타이페이(1박)-고웅(1박)-화련(1박)-타이페이(1박)-서울

○ 세계최대의 불교기념비, 보로부두르 사원
인도네시아 5일
● 출 발 : 12월 11일, 1월 22일, 2월 12일 동참금 : 85만원
● 일 정 : 서울-덴파사(2박)-족자카르타(1박)-자카르타(기내박)-서울

불교성지순례 전문업체
혜초여행사
국외 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대표전화 (02) 544-1533

■ 여행조건
· 특급 또는 1급 호텔(2인 1실 기준)
· 전 일정 식사 제공(기내식 포함)
· 최소 출발 인원 : 10명

지상 법석

내 책임 다할때 삶이 환해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일을 책임지고 행해야 될 것인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남편에게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도와주고, 아이들에게는 교육을 잘 시키고 그것이 나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내 위치와 내 환경과 내 수용, 이 세 가지를 분명히 할 때에 대한민국의 여성으로서 떳떳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아픈 마음을 내게 가져오너라"

모양·이름 집착하면 본래 마음 몰라

죽옷을 입고, 신발을 쓰고 다닌다 라는 말입니다. 모든 동물의 것을 다 착취해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 동물이 얼마나 인간보다 착합니까. 인간이 이 지구상에선 독재자입니다. 이 독재적인 인간은 얼마 안가서 멸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인간은 사상이니 하는 것은 철폐를 하고 인간이 어떻게 해서 환경정리를 올바로 만들었으며 우리 인간이 어떤 방향으로 올바로 나아갈 것이며 또한 다음 세대에 무엇을 전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라고 고르바초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옛날 어머니들은 아이 많이 낳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낳는 자식들한테 돈·권력·투쟁을 물려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것입니까. 돈·권력·투쟁 어떤 것을 물려주는 것이 좋은지 곰곰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1억도 못되던 인간이 50억이라는 인구로 늘어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많은 인구가 늘어났는가. 고르바초프는 현실에서 미래를 향한 것만 얘기했습니다. 강력히 우리는 인간성을 복구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우리가 어째서 인구가 굉장했는지 그 원인을 이야기 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불어났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얼마만큼 악질 동물인가? 이 세상은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윤회를 하게 됩니다. 닦은 대로 짓는다고 했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고 좋은 일을 하면 그만큼 존경을 받게 됩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일을 책임지고 행해야 될 것인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남편에게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도와주고, 아이들에게는 교육을 잘 시키고 그것이 나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내 위치와 내 환경과 내 수용, 이 세 가지를 분명히 할 때에 대한민국의 여성으로서 떳떳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책임을 다할 때에 내 갈 길이 환하게 열립니다. 사람답게 사는 길, 여성답게 사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격동기에 있어서 지구상에 있는 인간 폭발지경에 있는 위기의 시기에 어떻게 해야만 여성으로서 올바른 길을 찾을 수가 있겠는가. 항상 나 자신이 무엇인가부터 찾아야 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인가. 나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적에 어디서 왔느냐. 죽어서는 어디로 갈 것이냐.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갈 것이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했다는 것이 맞는 것인가.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 일체 내 마음으로 된 것이 맞는 것인가. 또 유물론에서 물질로써 된 것이 맞는 것인가 각 종교끼리 논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생각을 버리자. 생각으로써 본체를 찾고 우주의 근본을 찾는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찾아 들어가는 참선을 해야 합니다. 지금 서양에서는 신부나 수녀, 목사들이 참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 대혜선사가 황벽선사를 찾아갔는데,

"제가 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네가 법을 배우러 와. 누가?"

"제가요."

"이놈의 자식 어째서 송장을 끌고 다니느냐."

옛날 서암선사께서는 매일같이 "주인공아"라고 물으면 "네"하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라" "네", "언제나 남한테 속지 말아라" "네" "주인공아"하고 "나"라는 사람이 대답을 하셨는데 어떤 것이 진짜 주인공인가?

광명을 줄 수 있는 사람

옛날 보리달마께서 인도에서 중국에 왔습니다. 달마는 양무제를 만났습니다. 양무제는 달마대사에게 예의를 갖추고 하는 말이, "대사님, 나는 수천 절을 짓고 수많은 스님들에게 가사장삼을 비롯하여 많은 공덕을 지었는데 내 공덕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 공덕이 없소. 겨울같이 텅 빈 자리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모를 뿐입니다."

달마대사께서 아무 미련없이 양무제 곁을 떠나 양자강을 건너 위나라로 갔습니다. 소림사의 조그마한 굴에서 9년간 면벽참선을 했습니다.

당시 위나라에 혜가라는 국사가 있었는데, 혜가대사는 문무백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왕실에서 설법을 매월 행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혜가스님이 방안에서 경전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어린아이의 메아리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님이 문을열고 살펴보니, 하공에서 오색광명이 비추면서

"네가 육은 불법을 알고자 하면 소림굴로 찾아가라."

"네."

그 길로 소림굴로 찾아갔습니다. 달마가 혜가를 보고,

"무엇하러 여기 왔느냐?"

"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법을 구하러 왔느냐. 그럼 네가 나를 믿느냐?"

"네, 믿습니다."

"믿는 표시를 해라."

그때 혜가스님은 손을 잘랐습니다. 손이 끊어지니 혜가스님은 몹시 아파했습니다.

"스님, 법은 고사하고 내 마음이 아픕니다. 아픈 마음부터 편안하게 해주십시요."

"그래. 그 아픈 마음을 내게 가져오너라."

"아픈 마음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양과 이름에 집착하여 살게되면 내 본래 마음을 모릅니다. 모양과 이름에 집착하지 아니했을 때 내 본래 성품으로 돌아갑니다. 본 성품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끝으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내 마음을 찾는 공부를 합시다. 그렇게 되면 올바른 어머니와 부인, 국민이 되고 올바른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의 행복을 줄 수 있는 마음의 광명을 찾게 됩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이 나를 찾아서 모든 사람들한테 광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학속의 불교 — 불교속의 과학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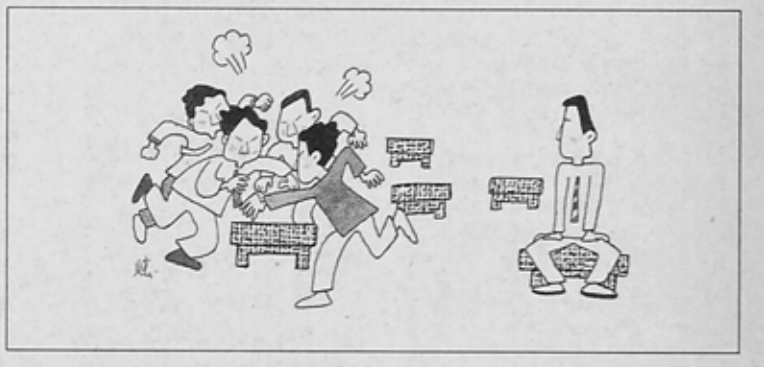
엔트로피

김 성 규

"아저씨, 지구에서 운동하고 있는 모든 물체와 우주 안에 있는 별들과 혹성들의 운동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왼쪽으로 돌다가 오른쪽으로 돌기도 하는 불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고전역학에서 자연현상의 진행방향을 나타내는 양으로 엔트로피가 있다. 뜨거운 물이 식어 차가운 물이 되는 것처럼,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주목할 만한 개념이 바로 엔트로피이다. 양자통계가 등장함으로써 '엔트로피'의 개념은 쉬워졌으며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엔트로피'는 어느 정도 막연한가를 나타내는 양으로 막연하면 막연할수록, 많은 가능성이 있으면 있을수록 엔트로피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예를들면 자리가 10개 있는 대구발 서울행 보통열차의 차표를 산 10사람이 기차에 올라



돌이킬수 없는 상황 막아야 희망있어

탔을때 의자에 앉는 방법의 수는 10!(10 팩토리얼) = 10 x 9 x 8 x ... x 1 = 3,628,800 가지로 10사람을 10자리에 앉힐 때 약 3백6십만 정도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자리가 10개 있는 대구발 서울행 특급열차라면 모두가 지정석 이므로 이 경우 10사람이 열차에 올라타 자리에 앉을 때 변화의 가능성은 0이므로 이 경우 엔트로피도 0이 된다. 그러므로 특급열차의 경우 엔트로피는 0이며, 보통열차는 매우 큰 엔트로피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엔트로피는 자연현상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죽은 사람을 되살아나게 할 수 없고, 노인을 다시 젊게 되돌릴 수 없듯이 엔트로피는 자연의 흐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만약 지구가 처음 생길때 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수십억년 동안 한번도 해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이며, 물과 포도주를 섞어놓고 수 십억년 동안 지켜보고 있어도 1초도 물과 포도주가 원래대로 분리되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물이 들어 있는 컵에 붉은색 잉크를 한방울 떨어뜨려 보자. 그러면 잉크방울은 전 컵으로 확산되어 온통 붉은 물이 된다.

이 변화의 반대현상, 즉 전컵으로 확산된 잉크가 다시 한방울의 잉크로 되돌아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한방울의 잉크로 있기보다는 전컵으로 확산되어 있을 때 분자가 차지할 수 있는 영역은 커지며, 그 때문에 분자가 어디에 있느냐에 관한 불확정성은 커진다. 이와 같은 비가역적 현상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양이 바로 엔트로피이다.

자연은 보다 확률이 큰 곳으로 옮겨간다. 즉 엔트로피 증대의 법칙을 따르며 세상은 계속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방향, 무질서 도(度), 혼란도가 커지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결국 종교나 사회체제는 이 엔트로피의 증가를 최소로 억제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혼자 독신으로 사는 것과 결혼하여 같이 사는 것을 비교하면 결혼하여 같이 사는 것이 혼란도가 적은 것이다. 그러나 독신으로 살면서 진리를 추구하며 오직 한마음으로 살때는 어떠한 삶보다도 혼란도가 적으며 엔트로피가 최소가 되는 것이다. 결국 결혼하여 같이 사는 것도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존재하기 위한 본능이며, 수행자가 홀로 고고하게 살아가는 것도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진리인 것이다. 종교인들이 잘 수행하여 진실한 수행의 길을 걸어갈 때는 엔트로피의 증가를 억제시켜 세상을 복발으로 만들지만, 그릇된 수행으로 수행의 본분을 다하지 못할때에는 엔트로피를 더 크게하여 세상의 파멸을 가속시킴을 알아야 한다.

사회 지도자들의 바른 생각과 바른 행위는 사회정의를 구현하여 엔트로피의 증가를 억제시키지만, 그릇된 사리사욕으로 지도자의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때에는 엔트로피를 더 크게 하여 이 사회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고 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인간들이 모여 살고 있는 여기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불화와 이기심이 가득차 자기 자신만의 행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존재는 무시되는, 사회윤리가 무너져버려 엔트로피가 매우 큰 사회는 바로 지옥인 것이다.

평화와 자유와 평등이 충만한 진실된 사회를 구현하여 엔트로피의 증가를 최소가 되게 하는 그런 사회는 사부대중이 다함께 노력할 때만 이뤄질 수 있는 극락세계인 것이다.

불자들이여!

세상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어도 자신은 속일 수 없으며, 자신은 속일 수 있다 하더라도 세상은 속일 수 없는 것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행위한 것만큼 세상은 달라지는 것이며, 자신이 행위한 것만큼 엔트로피는 변화되는 것이다.

〈영남대 의대교수〉

"묻어버리자니 장소가 없고,
태워버리자니 냄새가 나고 …"

국내 최초로 개발된 '이동식 소형 소각로'
제트 1, 제트 2 가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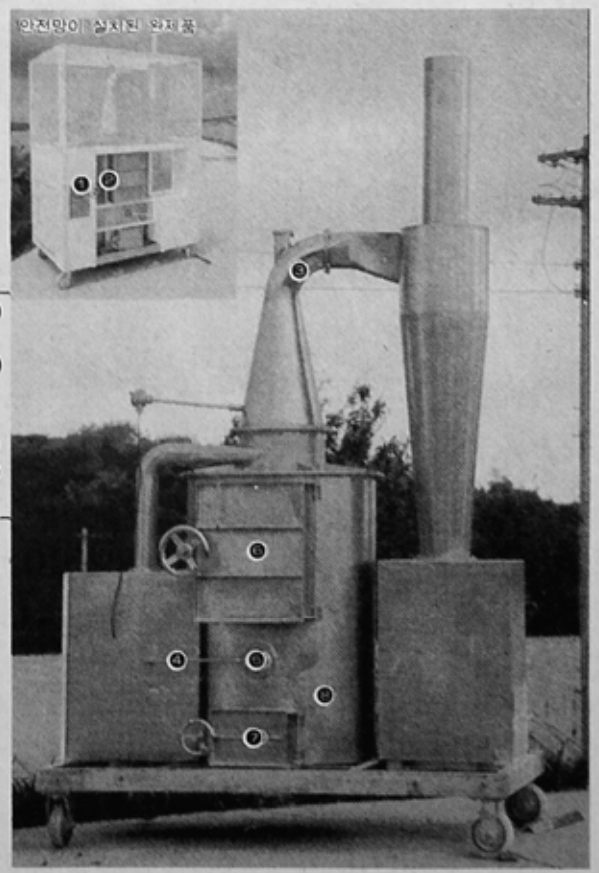
폐 비닐·플라스틱, 생활 쓰레기, 각종 지류, 병원 쓰레기 등 가연성 폐기물이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매연이 없이' 완벽하게 소각·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트1, 제트2 이동식 소각로는 연소 드럼에 강력한 송풍 장치인 모터 블로워를 장착해 연소통 내에 제트 기류가 형성되도록 함으로써 보조연료의 사용 없이 성냥불만으로 완전연소를 실현시킨 획기적인 제품입니다.

일 회 소각용량은 30kg이며 완전연소에 40분 정도 소요되어 소형 한 대만으로 하루 3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 형, 이동식이므로 넓은 설치 공간이 필요 없고 붙박이와는 달리 폐기물이 있는 곳을 따라 옮겨 다니며 소각할 수 있습니다.

발명특허출원 94 - 8644, 의장특허출원 94 - 8470, 8471, 8472



환경관리공단 및 생산기술 연구소
성능 검사 합격!!

소형 소각로 제조 전문
영우실업
본사·공장: 경기도 고양시 사리현동 267 - 1
전화 : (0344) 64 - 7236, 62 - 3488
팩스 : (0344) 62 - 7012

고은의 불교 대하소설

수미산 〈6〉

한양 입성

그녀가 욕정과 결부된 발작을 일으킨 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느 때의 평상 상태로 돌아갔다. 그 평상심이 드러난 얼굴의 적막한 가운데에는 극미(極微) 세계의 보이지 않는 어떤 기원(起源)이 가까스로 느껴지는 것 같았다. 어디 그뿐 인가. 일체의 희로애락이 사라진 우녀의 얼굴이야말로 인담이 꿈꾸는 얼굴이기도 하였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꿈; 아니 그 꿈과도 바꿀 수 없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꿈이 우녀의 얼굴로 나타난 것인지 모른다.

마음은 문득 마음 그대로 있지 않고 하나의 화신(化身)을 이루어 준다. 그것은 바다가 배를 뜨게하는 물인 것과 함께 고기를 살게 하는 일의 동시적인 세상의 기호(記號) 인 것과도 다를 바 없다.

이로부터 인담이 우녀에게 말을 거는 일이 있게 된다.

"나 건너 갔다 오리다. 이 무욕도야말로 삼천대천세계를 삼키는 보살의 도량입니다. 보살에게 도량이니 정사(精舍)니 하는 이름이 굳이 붙여질 것이 아니건만"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인담의 뜻을 미리 짐작하고 하루이틀 먹을 주먹밥을 만들기 위해서 고두밥을 솥에서 퍼내는 그 풍부한 김 가운데에서 들어 올린 우녀의 얼굴은 지극히 신비스러웠다.

인담의 마음도 다 알아차렸다.

"너무 많이 만들지 마오. 구름과 물이 하늘과 땅에 의지하되 거지가 아니건만 그런 것을 배우는 중에게는 거지의 소임(所任)이 가장 거룩하다오. 그러니 가다가 얻어 먹고 가다가 얻어먹지요"

"…."

"어디 거지가 그냥 거지랍디까? 거지 행각은 이 세상의 도둑을 없애는 일을 하는 수행이기도 하다오."

"달포를 다 보내셔도 좋지만 하루라도 더 빨리 돌아오셔요. 그래야 이 섬에 꽃 한송이 피어있는 것 어여삐 여길 사람이 있게 되지요. 꽃도, 그 꽃을 보는 사람이 없을진대 그게 무슨 꽃이겠습니까?"

인담은 흡칠 놀랐다. 우녀의 목소리도 달라져 있었던 것이다. 파도 소리와 바람소리 가운데에서도 그 청냉한 목소리는 잘도 돋을새김으로 들려왔다.

처음 두 사람이 이곳에 건너 왔을 때는 도무지 우렁찬 파도 소리 때문에 다른 소리는 아예 포기된 대상이었다. 그래서 인담은 말 대신 손짓으로 우녀에게 부엌 아궁이 불씨를 꺼지지 않도록 묻어 두는 일을 시켰던 것이다.

오직 파도 소리 뿐이었다. 그러나 한동안 이곳을 떠나 있던 인담에게도 새로운 남자에게도 차츰 그 파도 소리의 폭거에 익숙 해지면서 그 절대적인 강도(强度)가 찰어드는 것이었다.

그러던 것이 어느덧 파도소리가 있으나 없으나를 막론하고 두 사람의 대화가 큰 소리가 아닐지라도 가능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그들에게 파도 소리로부터의 해탈이 실행된 것이다.

다음날 인담은 무욕도의 단 하나뿐인 거루에 탔고 우녀가 묶인 밧줄을 풀었다. 인담은 당장 파도의 물너울에 떠밀려졌다가 과묻히기도 하면서 섬의 암초 밖으로 나아갔다.

그것은 배에 탄 사람의 의지라기보다 파도의 의지에 의한 동작임에 틀림 없었다. 한동안이 지나서야 그 거루는 제 갈 길을 택할 수 있었다. 우녀는 그것이 섬 모퉁이를 돌아간 뒤에도 처음의 자리에 그냥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 한 방울이 의무적으로 고여 있었다. 잘 빚어내린 댕기 머리이지만 바닷바람에 의해서 그 머리칼이 부풀려졌다.

인담이 돌아 올 때까지 지낼 양식과 땔감은 별난 사고가 나지 않는 동안이라면 걱정할 수 없게 장만해 두었다.

사실인즉 인담은 우녀 몰래 밤중에 배를 띄워 물에 다녀 온 적이 있었다. 그 때 양식과 옷가지 그리고 몇 가지의 물건도 실어 온 터였다.

섬을 떠난 인담이 반드시 챙겨간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서하문집〉의 궤짝이었다.

바로 그 몽롱한 의식불명 가운데서 인담은 임춘의 시 세계보다 <수미행>의 세계로 이끌려 들어갔다. 그것은 소승의 구사론 세품 그대로의 것이며 그것에 앞선 화엄경의 '수미산에 오르는 품'과 그 찬에도 한치 어긋나지 않고 있었다. 그가 깨어난 곳은 봉노 주인이 그를 송장으로 치부하여 내다버린 뒤의 남산 기슭 복숭아 밭 구렁이었다.



그림 · 최규일

林정승이 죽다니 · · · 인담은 의식이 몽롱해지고

다만 그것 한 질과 선비들이 도포나 두루마기 소매 안에 넣고 다니며 수시로 읽을 수 있게 된 소책자 〈수미행〉은 섬에 두고 왔다.

그는 먼저 충청도 내포(內浦)일대로 넘어가기 전에 가야산에 들렀다. 지난 시절 한 철을 보낸 곳이었다.

그곳의 노승 침계(枕溪)화상으로부터 낙향한 예산(禮山)의 임학자(林學者)를 찾아가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임학자가 누구인지는 노승도 아는 바가 없었으나 그 학자라면 서하 임춘과 관련되는 후예인지도 모른다는 짐작이 있었다.

그래서 인담은 예산까지의 질펀한 들길을 때로는 논두렁으로 때로는 마을 앞 발두렁을 거치며 그 비산비야와 들녘이 이따금 교체되는 풍경속의 나그네가 되었다.

임학자라는 사람은 예산관아에서 멀리 떨어진 초가 삼간짜리에서 머물고 있었다. 그가 뜻밖에 인담의 방문을 받자 마침 잘왔다는 듯이 "우리 사문(斯文—儒敎를 지칭)에는 주술(呪術)이 없어서 입대신 손이 날래어 상소문 쓰기에는 알맞으나 신이(神異)한 지경에 이르는 심신(心身)의 조화(造化)가 없어요. 대사가 나를 찾은 까닭이 무엇이오?"

말투가 의연하였다. 걸핏하면 불승을 능멸하는 다른 선비와도 달랐다.

"빈승이 찾아뵌 사유만을 아뢰고자 합니다."

방안에 어울리는 것 같은 팔짱낀 자세로 앉은 키가 높았다. 한점 흐트러지는 바를 보여주지 않고 있었다.

당쟁(黨爭) 후기에 접어들어 소론(小論)의 정파가 한동안 득세를 하는 숙종조 후기는 가히 세상이 변하는 절기였다. 왕이 그 자리를 세자에게 물려 준다고 공포한 뒤 얼마 있다가 그것을 번복하였다. 이를테면 왕위 조차도 알뜰한 것이 못되었다.

이런 세상의 시골에서도 일거일동의 보신(保身)이 글을 아는 자들의 첫째 대목이었다. 임학자가 팔짱을 좀 느슨하게 푸는듯하며 한마디 내던졌다. 그것은 꼭 서도(書道)의 첫자가 잘못 씨진 종이를 재빨리 구겨서 휴지통에 숨겨 버리는 동작을 연상케 하였다. "아무래도 도성(都城—漢陽府)에 들어가야 할 일인 것 같구려"

"어찌 칠천(七賤)의 반열에 끼어 백정과 노비에 다를 바 없는 산승(山僧)이 도성 출입인들 가(可)한 노릇이겠습니까?" 인담의 말은 당찼다. 상대방의 눈이 지긋이 감겨졌다.

그 시절은 조선반도의 여기 저기에 굶주려 죽은 시체가 몇만씩 중앙 정부에 보고되는 형편이고 그런 보고 밖의 시체는 훨씬 많은 수치였다. 인담이 예산까지 오는 동안의 충청도 서해안 농가마다 송장이 누워있다는 표시로 삭은 지붕에 헌 중의나 바지 따위가 얹혀져 있는 것을 본 바가 하나 둘이 아니었다.

그런지라 그의 한끼니 구걸도 걸러서 "좋으시도록"

인담은 임학자라는 헌 망건바람의 불이 뱁은 잔반층(殘班層) 선비에게 좀 갑작스럽다 할 정도로 〈서하문집〉에 대해서 말을 꺼냈다.

임학자는 한번 눈을 크게 뜬 뒤로는 이렇다할 표정을 내보내주지 않고 좁은 목을 겨우 방건 밖으로 내밀고 있었다.

"서하선생의 문집을 읽으셨다니 그 소감을 듣고 싶소이다."

"…."

"대사께서 읽으신 서하문집은 어떤 것이었소?"



◇ 불심을 통해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불자장애인들이 늘고 있다.

불심으로 신체·사회 장애 극복

점자경전 발간 맹인포교에 앞장 … 운전면허 취득·문학상 수상

한명우 기자

일반인들의 단순한 동정과 보살핌의 대상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런 육체적, 사회적 제약을 딛고 불심을 통해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불자장애인들이 늘고 있다.

대부분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혜광맹인불자회 회원들, 불심을 통해 '앞'을 보며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이 그 좋은 예다.

불법이 좋아 모인 회원 1백여명은 한달에 두 번 정기적으로 법회를 갖는 것은 물론 점자 불교경전을 발간해 맹인들을 위한 포교에도 열심이다.

"지금까지는 주위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왔지만 이제는 베풀고 싶다"는 이찬 문화부장은 혜광맹인불자회 회원들은 정상인들 못지않게 열심히 살고 있다고 말한다.

"마음의 눈귀로 세상의 꿈 실현했지요"

4천만 인구중 1백만, 전체인구의 2.5%, 한국장애인협회가 추정하고 있는 국내의 장애인 숫자다.

그러나 이들이 육체적 장애를 극복하며 사회에 적응하기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세살때 심한 열병을 앓고난 후 청각을 잃은 민은준씨는 일반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꿈이었을 정도로 우울하고 절망적인 청소년기를 보냈다.

이때 친구의 권유로 불경을 읽게 되면서부터 마음의 귀를 열게 된 민씨는 정상인들과의 의사소통은 물론 장애인을 고려한 사회적 분위기마저 성숙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차례 도전끝에 지난 8월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부처님과 함께 운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편안해지더군요."

정상인들에게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이런 일조차도 장애인들에겐 눈물나는 노력과 의지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사고발달을 위한 여러방면의 교육과 특히 자립적 생활을 위한 직업재활은 이들에겐 너무도 절실한 현실이다.

이민경씨는 시각장애라는 고통을 딛고 자신과 같은 처지의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교육과 직업알선 등의 활동을 하며 자립적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장애인으로서는 흔치 않은 직업여성이다.

고2때 맹아학교 교사의 권유로 조계사 원심회를 다녀온 후 덕신스님의 사람에 감화되어 가톨릭에서 불교로 개종한 이민경씨는 "부처님을 만나고부터는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게 되었어요. 부처님 말씀따라 최선을 다해 살고 싶어요"라며 부처님을 사랑한다고까지 말한다.

'문학속에 나타난 장애인'이란 평론으로 지난달 3일 올해 장애인 문인협회 신인상을 수상한 이현준씨. 그가 의지하는 것은 자신의 다리역할을 하는 휠체어와 불교뿐이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믿어온 불교는 그가 글을 쓰는데 절대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글쓰는 작업은 어쩌면 불교의 깊은 사상을 담을 수 밖에 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인연이지요. 더 좋은 글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비록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며, 말하지 못하는 이들. 그러나 여러가지 사회적 제약과 신체적 장애속에서도 이들은 깊은 불심을 통해 보고, 듣고, 말하며 열심히 자신들의 꿈을 실현하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 신체적 장애는 이들의 신심만큼 깊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불교카드·달력 올해도 인기

작년보다 2배 늘어 · · · 경구담겨 문서포교도

불기 2538년을 한달남짓 남겨놓고 시중의 불교서점이나 불교용품점에는 불교적 정서를 담은 다양한 카드와 달력이 출시돼 불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연말연시때면 가까운 친지와 은사님께 보낼 카드를 고르느라 고민하던 불자들에게 올해는 카드를 고를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다.

불교카드는 몇해전 부처님 오신날 봉축카드 보내기 운동이 전개되면서 본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해 현재 10여개 업체 1백여종의 카드가 시판되고 있다. 관음손, 글도량, 선재마을, 견지불교사등 불교용품전문업체들은 각기 자체 제작한 카드를 고유상표로 선보이고 있다.

전통한지를 이용한 수공에 제품을 비롯해 연꽃, 불보살, 스님, 동자, 탑등의 소재를 현대적 감각으로 그려놓은 제품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여기에 부처님 말씀, 경구등을 옮겨 놓은 것도 있어 불교문서포교에도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밖에도 결혼업서, 봉축엽서등도 이미 선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불교카드를 찾는 이들은 어린이 청소년들을 비롯 젊은층이 주고객. 가격은 장당 3백50원에서 3천원선 까지이며 1백장이상 구매시에는 할인판매도 한다.

카드와 함께 현대적 실용성과 작품성을 갖춘 95년도 달력도 나왔다.

작년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50여종의 신년달력 가운데



◇ 다양한 불교카드와 달력이 불자들의 눈길을 끈다.

해인사의 사계를 담은 산사의 사계달력, 성륜스님의 불고기 그림달력, 이첨수씨의 관화달력등이 가장 인기있다는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현대적 디자인과 메모공간을 마련해 놓는 실용성까지 가미한 이들 달력은 카드와 함께 신년선물로도 각광받고 있다고. 가격도 1천5백원에서 7천원까지 다양하며 단체주문시에는 할인혜택도 받을수 있다.

자칫 들뜨기 쉬운 연말연시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불교적 정취가 물씬 풍기는 카드와 달력을 주고 받으며 지나온 한해를 돌아보는 것도 바람직한 불교신행의 한 방법이 될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이같은 카드와 달력의 제작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무르고 있지만 앞으로 불교포교의 새로운 분야로 계속 발전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은자 기자〉

겨울불교학교 지도자 강습
10 · 11일 중앙승가대서

불교레크레이션포교회(회장 법현)는 겨울불교학교를 위한 제 14회 지도자 강습회를 중앙승가대에서 12월 10,11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한다.

'아름다운 연꽃들의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습회는 법현스님, 해인스님을 비롯 12명의 전문강사가 참여해 공동체놀이, 민속무용, 촛불발원정진, 아동극의 실제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02)935-4967

생활·전통 차례반 개강
불교전통문화원

불교전통문화원(원장 선혜스님)은 생활·전통차례와 사군자반을 12월 1일 개강한다.

생활·전통차례는 1년, 사군자기초반은 4개월과정이며 수강료는 월 4만원이다. (02)-732-2068

만화

法句經 법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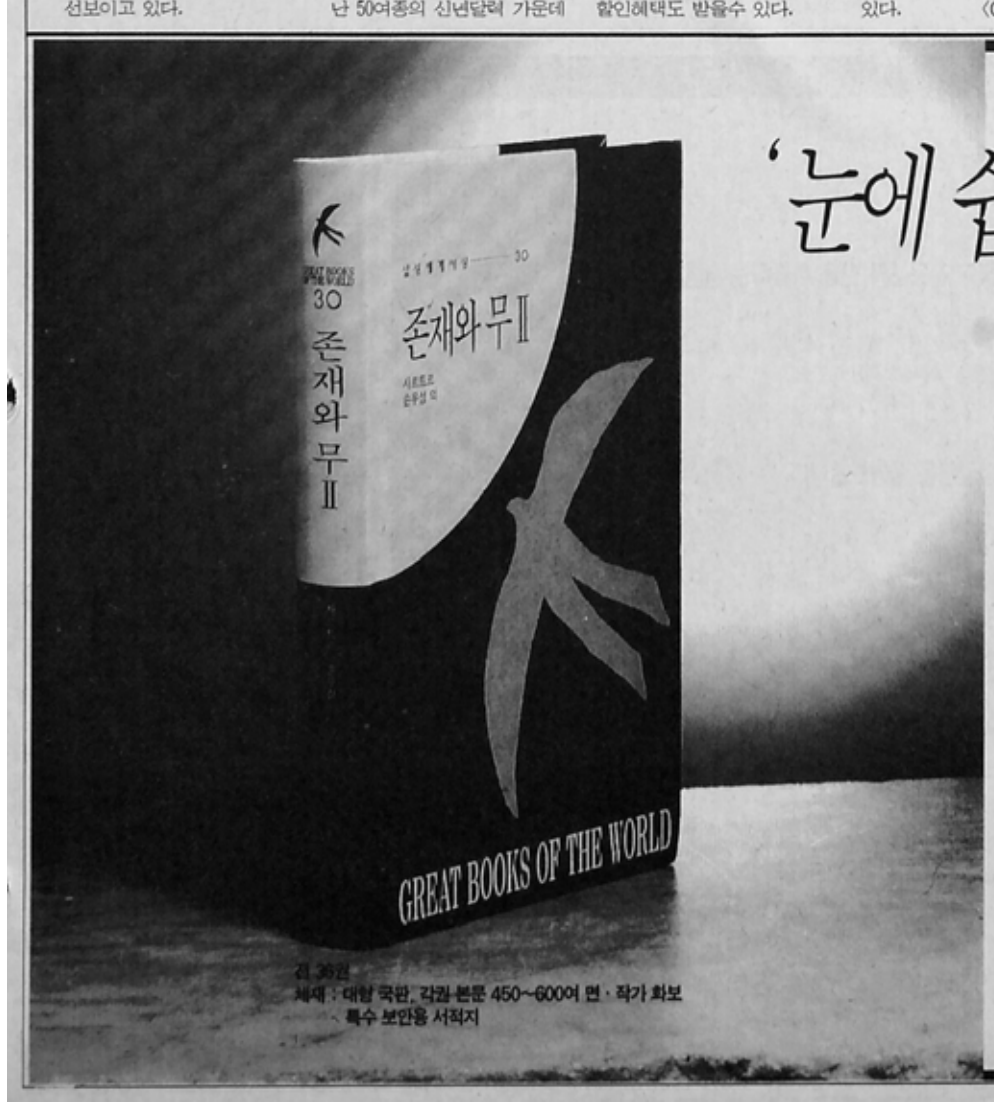
○대구(對句)의 장○

경전을
조금밖에
외울수 없다해도



이 향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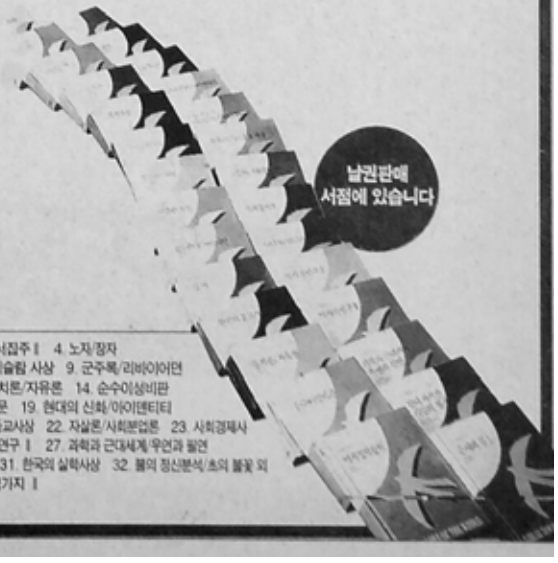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운명의 책'

한 권의 책이 한 사람과 한 사회와 그리고
한 민족의 운명을 바꿔 놓는다는 말을 흔히 한다.
그러나 책이라고 해서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청량제처럼 목만 축이는 그런 책에서 이를 상하게 하는
달콤한 사탕 같은 책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책이 우리 곁을 스치고 지나간다.
입에 쓴 약처럼 운명의 책들은 쉽게 눈에 띄지 않는 법
이다. 삼성에서 기획된 이 세계사상
전집은 문자 그대로 닭의 무리에
섞여 있는 한 마리 학을 가려 엮은
책이다.

李御寧 (전 문화부장관)



날권판매 서점에 있습니다

삼성세계사상
GREAT BOOKS OF THE WORLD

1. 한국의 유학사상 2. 논어/중용 사서집주 I 3. 맹자/대학 사서집주 II 4. 노자/장자
5. 사기열전 6. 국가/소크라테스의 변명 7. 정치학/시학 8. 이솝집 사상 9. 군주론/리바이어던
10. 팡 세 11. 한국의 불교사상 12. 방법서설/성찰 외 13. 통치론/자유론 14. 순수이성비판
15. 역사철학강의 16. 종의 기원 17. 전쟁론 18. 정신분석입문 19. 현대의 신화/아이덴티티
20. 시간과 자유의지/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21. 한국의 민속 · 종교사상 22. 자살론/사회분업론 23. 사회경제사
24. 자본주의 · 사회주의 · 민주주의 25. 역사의 연구 I 26. 역사의 연구 II 27. 과학과 근대세계/우연과 필연
28. 간디 자서전/사인의 불복종 29. 존재와 무 I 30. 존재와 무 II 31. 한국의 실학사상 32. 불의 정신분석/초의 불꽃 외
33. 1차원적 인간/부정 34. 슬픈 열대 35. 황금가지 I 36. 황금가지 II

21.3.29간
체제 : 대형 국판, 각권 본문 450~600여 면 · 작가 화보
특수 보안용 서적지

삼성출판사
(02)783-8331~40

화제의 책

「공」사상에서 삶의 해답찾는 수상집

술몽쇄언
김대현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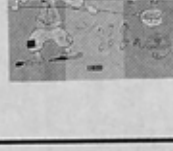
불교의 공사상을 근간으로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색한 월창거사(月窓居士) 김대현(?~1870)의 수상집.(述夢瑣言)

이능화의 「불교통사」에 따르면, 김대현은 유가·도가의 많은 책들을 읽어오다가 40세가 지나 「능엄경」을 읽고 크게 감동하여,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학문을 버리고 오로지 불서를 전공하였다고 한다.

이 책에서는 인생이란 한낱 꿈에 불과한 것이므로 물거품 같은 환상에 불과한 속세의 물욕의 노예가 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희노애증의 집착을 버리고 수양을 쌓아 정녕의 경지에 오르고, 견성에 도달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마치 '이 세상 모든 것은 꿈 같고, 허깨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란 금강경 한구절의 해석인 듯하다. 〈남만성 옮김, 을유문화사, 5천원〉

원효스님 등 54인 생애·사상 그려

한국사의 주체적 인물들
이이화 지음



민족사학자 신채호는 민족사 일천년래의 일대사건으로 묘청의 활동과 세종의 업적을 들었다. 고려때의 스님 묘청은 불교사 뿐만아니라 우리 역사에서 '요승' '역적'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묘청은 다시 '민족자주의 화신'으로 돌아온다.

그렇다면 '우리 역사에서 주체적 인물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지은이는 "주체를 강조한다고 해서 세계사의 보편성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또 국수적 경향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한다. 어디까지나 인간과 민족이 공존하고 존중하는 하나의 철학일 뿐이다. 따라서 자기 것을 온전히 가꾸어 세계사의 흐름에 참여하는 이념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원효 보조 일연 유정 만해 등 스님들을 비롯 54인 인물들의 삶과 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여강, 8천5백원〉

재미있게 해설 … 동시 삽화 곁들여

어린이 천수경
김호성 지음



어린이 대상의 경전 강의, 그것도 어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천수경 강의는 가능할까. 이 책이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이며, 그중에서도 「천수경」은 관세음보살의 지혜와 자비가 담겨있는 경전이다.

이 책은 천수경 한글본과 한자공부와 도움말로 구성되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천수경 공부를 새롭게 시도하고 있다.

동화와 동시, 재미있는 예화와 만화가 이정문씨의 삽화가 곁들여져 경전이 주는 어려움과 딱딱함을 해소하고, 어린이들에게 상상력과 사고력을 길러주는 편집이 특징이다.

또 단락을 나누고, 각 단락에 적절한 제목을 붙여 지루함을 덜었다. 각 단락은 제목과 한글로 풀이한 천수경, 한자공부, 도움말로 구성되어 있다. 마땅한 교재가 부족한 어린이법회 현장에서 교재로 활용해도 좋다. 〈불광출판부, 3천5백원〉

어린이에 정직·용기와 꿈 전달

참된 사람들의 이야기
윤승운 지음

어린이 만화라면 무엇보다 내용이 견전하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용기와 희망을 키워줄 수 있어야 한며, 바른 마음을 키워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우리 겨레의 역사를 올바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 나라의 역사를 모른다면 그 민족은 오래가지 못하고 사라지기 때문이다.

'겨레의 역사를 빛낸 사람들'과 '큰스님들의 이야기'로 구성된 이 책은 37명의 역사인물을 선정, 그들의 정직과 신의 아랑 충정 성실 용맹의 삶을 그리고 있다.

몇해 전부터 불법복제된 일본만화로부터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저자는 "내 민족이야 어찌되든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일부 몰지각한 어른들 때문에 어린이들이 입은 피해는 자못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이책은 제1회 '한국만화문화상 저작상' 수상작이기도 하다. 〈불지사, 4천5백원〉

출가수행자의 실천 덕목 해설

서 평 율장 사토 미츠오 엮음 / 법해스님 옮김

「율장」은 경·율·론 삼장의 하나로 원시불교경전의 중요한 일부이다. 경전은 선정의 수행과 자각을 통한 지혜의 완성을 위한 부처님의 말씀이라면, 율장은 인격완성을 위한 실천덕목과 인간의 윤리적인 화합교단의 전인교육정신이다. 지혜의 완성과 인격의 완성을 추구하는 불도의 수행자들이 반드시 익혀야 할 실천기준이 율장인 것이다.

법해스님이 번역한 「율장」은 후진 불타나사의 「사분승계본」과 「사분비구니계본」을 번역한 것을 텍스트로 삼아 △총설편 △비구계편 △비구니계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 총설편에는 율장의 성질과 율장의 내용이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총괄적으로 해설하고 있다. 율장의 내용에는 지지계(止持戒, 범해서는 안될 규칙)와 작지계(作持戒, 행하지 않으면 안될 규칙)로 나누어서 출가수행자들의 지계와 출가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의미를 계율적인 측면에서 해설하고 있다.

지금까지 계율이나 율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침이 되는 안내서가 될만 한 책이 한권도 번역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에서 법해스님의 「율장」 번역출판은 시대의 요청에 부응한 필독서로서 오늘날의 한국불교의 발전과 방향에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침서가 되리라고 믿는다.

성 본 〈중앙승가대 교수〉

새로 나온 책

▲태고총림 선암사(혜우 엮음)=선암사의 역사와 승풍, 또 이곳에 주석하며 법을 펼친 대각의천 태고보우 호암약휴 등 고승들의 자취를 밝혔다. 아울러 선암사를 중심으로 한국불교 태고종의 법맥을 재조명하고 있어 태고총림으로서의 선암사가 지닌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작가 최정숙씨의 원색사진을 곁들여 1천4백여년의 성상을 간직한 선암사의 고색창연함을 전해준다. 풍경소리, 4천원.



▲마하반아의 노래(원인 엮음)=과거 칠불과 석가모니부처님을 비롯해 우리나라 근대의 경허선사 등 역대 선사들의 깨달음을 노래한 선송들을 모아 엮었다. 제1장 「전법송」에는 과거 칠불의 전법송과 33조사 전법송, 38전등선사 전법송을 비롯 제2장은 「선게송」, 제3장에는 「불심수행송」을 실었다. 우리출판사, 7천원.

▲이층에서 날아온 동전 한닢(황수영 외 지음)=지난해 타계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고미술사학자 삼불 김원용선생의 1주기를 맞이하여 가족과 친지, 후학 등 77명의 추모글을 실었다. 이 책을 통해 학문에 몰두하면서도 문학과 미술의 세계를 넘나든 예술가적인 멋과 기질과 소질, 다방면에 걸친 인사들과의 돈독한 교유 등으로 엮어진 삼불의 삶을 볼수 있다. 예경, 6천원.

▲마음신앙의 사회사(이필영 지음)=마음신앙의 형태와 체계, 의례절차, 나아가 이러한 마음신앙이 지니는 의미를 현지의 자료수집과 해외의 연구성과까지도 수용해 분석했다. 민족 고유의 생활과 풍속의 참모습을 찾아내기 위해 기획된 웅진출판사의 「한국의 생활과 풍속」시리즈 네번째 출간물인 이 책에서 저자는 마을신앙이 불확실한 사건들에 대한 마을사람들의 무력감을 풀어준 존재였음을 밝힌다. 웅진출판, 7천5백원.

▲신비주의와 종교(로버트 엘우드 지음)=종교학의 중요관심사인 신비주의를 역사, 신비주의 종교의 구조, 신비주의와 종교사상, 예배, 종교사회학 등의 주제로 다루고 있다. 저자는 신비주의를 다루기 위해서는 영적이며 사회적 환경을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비주의 체험과 종교와의 상관관계를 밝혔다. 서창원 옮김, 이화여대출판부, 8천5백원.

명사추천 불서100선

아함경

부처님 45년설법 생생히 전달



한 갑 진 〈한진홍업 대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알기 위해서는 좋은 책을 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아함경을 권하고 싶다.

왜 아함경을 권하느냐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쉽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가장 쉽게 가르쳤느냐 하면 원시경전이기 때문이다. 원시경전이란 뜻은 무엇이냐. 부처님께서 45년간 유행하시면서 설법한 것을 부처님 열반 후 1년 이내에 결집하였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생하게 전하여지고 있다.

왜 이때 결집한 경전이 생생하게 전해졌느냐 하면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5백아라한이 직접 결집했기 때문이다. 이때 결집한 경전을 살펴보기로 하자.

석존께서 구시나가라 교외에서 열반하시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석존일행보다 좀 뒤에 여행을 하고 있던 마하가삿파 일행은 저쪽에서 오고있는 한 사람의 외도(불교자가 아닌 종교인)로부터 석존의 부고를 접하게 되었다. 그들의 슬픔과 놀라움은 컸다. 그런데 그 일행중에는 한 사람의 늙은 비구가 있어 큰소리로 생각지도 않은 폭언을 하였다 한다.

"벗들이여 근심할 것 없다. 슬퍼할 것도 없다. 우리들은 이제야 대사문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그 대사문은 '이 일은 너에게는 어울린다. 이 일은 너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우리들을 괴롭혔는데 이제 우리들은 하고싶은 것을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안해도 된다." 그때 마하가삿파는 가만히 듣고 있었으나 석존의 다비가 끝난 다음 그는 도반들을 모아서 말하였다.

"도반들이여 우리들은 모두가 교법과 계율을 결집하여 마법이 일어나서 정법이 쇠퇴하고, 비율로 정율이 쇠퇴하고 비법을 설하는 자가 강하고 정법을 설하는 자가 약하고, 비율을 설하는 자가 강하고 정율을 설하는 자가 약한 때를 앞질러 가지"

그뜻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머지않아 바른 교법이 흔들리고 바른 계율이 흔들릴 때가 올 것이므로 이를 앞질러 교법과 계율을 결집하자고 제안했던 것이다. 그들 비구들은 즉시 그 제안에 찬성하였다.

이렇게 하여 마하가삿파가 선정한 5백아라한에 의하여 결집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 결집 즉 요즘 말로 한다면 편집회의는 마하가삿파가 수좌에 앉고 아난다가 송출자로 선출되었다.

아난다는 오랫동안 석존의 시자로서 스승이 어디서 어떤 교법을 설했는지를 그가 제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우파리였다. 그는 계율을 지키는 데 가장 엄숙하였다. 계율합송에는 그가 송출자가 되었다.

이렇게 하여 석존께서 설한 교법과 계율은 석존께서 열반후 일년이내에 합송후 확립되었다. 이것이 석존의 제자들의 최초의 사업이었고 그 교법이 결집된 것을 오부라 한다.요즘 우리가 접하는 어려운 문장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는가. 구송체니 간단명료하고 기억하기 쉽게 반복하였던것이 아함경이다.

그러니 아함경은 읽기 쉽고 부처님의 설법이 부처님께 직접 듣는 것과 같이 귀에 속속 들어오는 것이다.

오백 아라한이 불타 열반 직후에 결집

입시폐지론 달아 불사연 「교육대개혁」

우리 사회의 모순과 병리현상을 불교의 가르침에 비추어 해결책을 찾고 있는 한국불교사회연구소는 부설 출판사 「모색」을 통해 「교육대개혁」을 펴냈다.

저자들은 (송희식, 송한식) 현재 학교교육의 문제점이 입시 위주의 교육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입시제도의 완전폐지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교육개혁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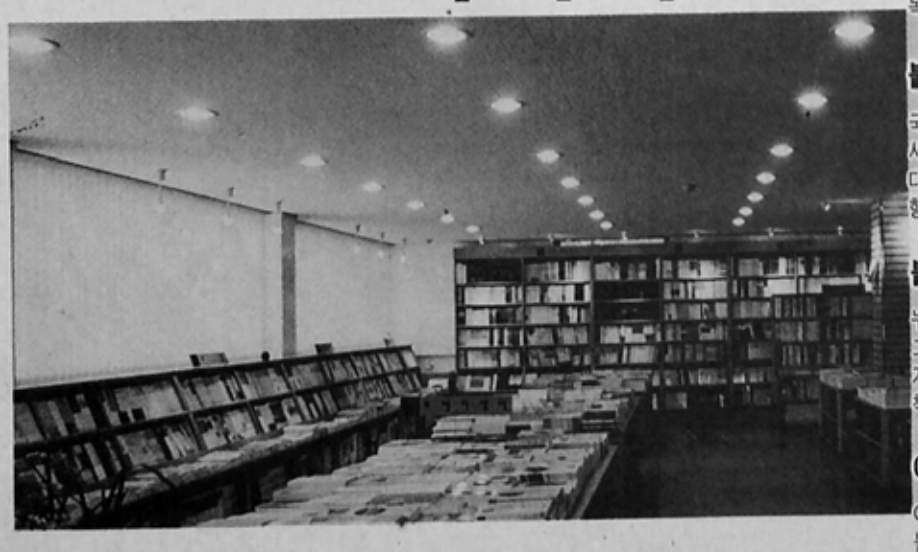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분류
1	퀴즈대장경	불교방송편성부	불지사	입문
2	불교의 체계적 이해	고익진	새터	교리
3	이야기 한국불교사	김현준	효림	불교사
4	이와같이 나는 들었다	암도	우리출판사	입문
5	한국불교인물사상사	김인덕 외	민족사	불교사
6	지혜는 여러석을 먹고 자란다	김성규 해설	과학과사상	경전
7	부처님이 좋아요	이정문	불광	아동
8	연꽃만화	정지연	부다가야	아동
9	천수경	무비 풀이	불일출판사	경전
10	길없는 길	최인호	샘터	문학

구입문의:(02)737-0695

불음 가득 · 법향 가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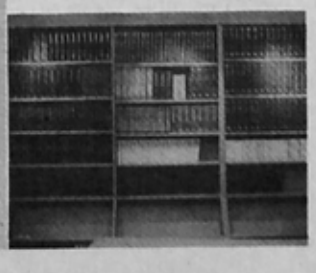
책방 여시아문은



국내 최대의 불교 전문 서적만을 취급하는 서점입니다.
60여 평의 여유로운 공간에
국내외의 불교관련 서적으로만 3천 2만 여 종을 갖추었습니다.
책방 여시아문은 초심자에서 학자에 이르기까지
독자들 한분한분의 기대에 따르겠습니다.



불자 여러분의 갈증을 풀어드립니다.
국내외의
서지정보(희귀본, 서적, 논문, 잡지) · 불교학술논문 · 불교문화예술정보 등
다양한 불교관련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이외에도
항상 불자 여러분의 공부에 충실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의 편안한 휴식공간입니다.
누구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서가 배치, 컴퓨터 검색 체제,
그리고 언제라도 편안히 앉아서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분들의 만남과 함께 법향 듬뿍 음미할 수 있는 곳,
책방 여시아문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시아문은 불자들의 자랑입니다.
여시아문은 삼보에 귀의하는 서점입니다.
불법 홍포를 위해 회향하는 서점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현대화 · 생활화 · 세계화를 실천하는 서점입니다.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 - 33 · 전화 (대표) 737 - 8881 (사찰직통) 737 - 0695 · 팩스 737 - 0696 교통편 전철: 1호선 종각역, 3호선 안국역 / 버스: 32, 50, 84, 159, 331, 588 - 2번

민초의 '생명력'통해 정토실현 묘사

대하 소설속에 나타난 불교



◇박경리씨



◇황석영씨



◇조정래씨







土地 생명 존중 정신, 전체 구조의 핵
좌·우대립 '하화중생'으로 해소 太白山脈
張吉山 미륵 현신의 꿈 역모 통해 조명

대하소설의 총체성은 소설의 서사 구조에서 우선 나타난다. 스토리의 수직적 구조가 연대기에 따라 혹은 여러대의 삶의 이야기로 구조된다든가 또는 수평적 구조에서도 소설의 공간적 배경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대하소설의 총체성은 이러한 소설의 표현 구조로 인해 그 총체적 의미를 확인받기 보다는 내용의 총체성에 뿌리를 둔다. 다양한 삶을 수용하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 당대와 당대를 연결하는 역사적 고리로 확대된 공간 속에서 그 역사를 이끌어 오는 민중의 생각과 느낌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데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한국의 대하소설에서는 그 소설의 서사 구조가 민중의 삶과 연결될 때 '불교이야기' 혹은 '불교적 서사 구조'를 필연적으로 갖게 된다. 그 예가 한국 소설사에서 결코 간과될 수 없는 대하소설인 박경리의 〈토지(土地)〉와 황석영의 〈장길산(張吉山)〉, 그리고 조정래의 〈태백산맥〉등이다.

이 세편의 대하소설이 공통점으로 갖고 있는 것은 역사의 주체 세력이 민중이라는 역사 상상력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역사적 시간과 상황 속에서의 인간들이 생존과 진보적 삶을 위하여 역사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역사라는 거대한 폭력에 어떻게 절망하며, 그 절망의 힘을 딛고 어떻게 일어 서는가를 보여준다.

그러나 〈토지〉와 〈장길산〉 그리고 〈태백산맥〉이 각각 시대적 배경을 달리하고 있는 대하소설이면서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작가의 또다른 정신 세계는 불교의 미륵사상이다.

이 점을 일별하고 입증하기 위해 본 에세이는 쓰여진다. 70년대와 80년대 한국의 대표적인 대하소설 세편 속에 수용되어 있는 불교 사상을 검증하기 위해 이 글은 쓰여진다.

먼저 소설 〈장길산〉을 살펴 본다. 소설 〈장길산〉은 17세기말에서 18세기 초인 조선조 숙종 연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이다. 이 시대는 노비등 기층인의 신분 해방 운동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서 중인 계급의 성장과 양반층의 몰락이 급증하여 유랑 지식인이 기층인의 각성을 촉구하던, 조선봉건 왕조의 봉과 조짐이 있던 혼란기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회 변혁의 기미와 맞물려 미륵신앙과 같은 민간 신앙이 성행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소설의 공간으로 차용하고 있으며 실록에 기록된 실재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만큼 소설 〈장길산〉의 리얼리즘은 한층 돋보인다. 특히 장길산의 두차례에 걸친 역모 가담이 불교의 민중운동과 관계되어 있는 점은 주목된다. 장길산의 첫번째 역모는 여환(呂還)이라는 인물이 주동이 되어 이루어진 미완성 혁명운동이다. 여환이라는 인물은 비승비속(非僧非俗)한 사람으로 돈독한 불심(佛心)을 가지고 있는 인물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불교사상의 민중화, 토속화로 이루어진 미륵신앙을 가진 미륵도이다. 당대의 미륵신앙은 미륵하생신앙(彌勒下生信仰)으로서 도솔천에 계신 미륵불이 56억 7천만세가 지난 뒤 하생(下生)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에 현신하여 정토를 실현할 것으로 믿는 민간 신앙이다.

소설 〈장길산〉에서 승려 운부(雲浮)를 중심으로 한 역모도 실록에 기초한 서사 구조로 옥여(玉如)등 44명의 역모 참여를 통해 시대 개혁 운동이라는 점에서 여환의 역모 의미와 궤를 같이 하지만 도교적 또는 무속적인 성격이 강한 민간 신앙적인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다시 말해서 소설 〈장길산〉의 중요한 역모사건이 성격이 다른 인물을 통해 일어나며 그 사상적 배경이 다르다 하더라도 종국에는 미륵사상, 정토사상 구현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이 소설은 미륵 사상을 통한 민간적 유토피아 사상이 깔려 있는 소설이다.

이에 비해 조정래의 〈태백산맥〉은 유토피아 건설에 대한 시대 대응적 사상으로 변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소설 〈태백산맥〉이 선암사 부주지 법일(法一)과 운정 스님을 통해 불교의 하화중생(下化衆生)의 실천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 그것이다.

선암사의 재산인 전답을 소작인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절로 부터는 부주지스님의 해임이 결정되는 동시에 사회주의자로 오인받게 되는 법일의 서사를 통해 이 소설은 불교의 대중화 혹은 실천화 그리고 북지회에 대한 작가의 불교 사상을 읽을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작가의 유토피아 세계에 대한 구상등을 읽을 수 있게 된다.

소설 〈태백산맥〉은 우리 역사의 좌·우 이데올로기의 대립상과 그 대립의 시대에 산 사람의 생존 문제를 다룬 총체소설이다. 이 소설은 여순반란사건이라는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출발한다. 좌·우 이데올로기의 이념적 싸움, 그 틈바구니에서 수난받는 민중상을 그리면서 작가가 종교적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무속 신앙과 불교 사상인데, 불교에 대한 관심은 불교의 실천화와 만해의 유심사상, 그리고 정토사상으로 그 관심을 확대해 나간다.

이러한 작가의 관심은 좌·우 이데올로기 싸움의 극복 형태로 발전하게 되며, 민중이라는 기층인에 대한 역사적 상상력에 뿌리를 두고 전개된다. 작가 조정래는 서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좌·우 이데올로기의 변증법적 합일을 법일(法一)스님의 등장과 사상을 통해 정토의 실현 의지를 보여준다.

휴자는 〈태백산맥〉을 민족사적 갈등과 모순 구조로 인식하여 이데올로기 소설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 소설의 총체성, 그 핵심을 차지하는 사상은 유신본적 사회 개혁과 정토 사상 혹은 용화 사상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장길산〉과 〈태백산맥〉은 민중이라 불리우는 무형의 집단과 역사 사이의 갈등과 이념적 화해를 불교 사상을 통해 극복해 보려는데 반해 박경리의 〈토지〉는 개인과 역사 사이의 갈등 구조를 통해 한 인간의 운명과 의지가 그 역사 속에 어떻게 투영하는가를 보여준다. 소설 속에 투영된 모습이 새로운 것과 전통적인 것, 고루한 유교 사상과 진보적인 자유주의 사상이라는 역사적인 힘의 대립으로 나타나 표층적으로 볼 때, 이 소설은 불교 사상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소설속에 등장하는 개개인의 민간 신앙적 차원이 불교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될 수 없다.

예컨대, 비명에 간 남편의 명복을 빌기 위해 연곡사에 백일 기도를 가는 윤씨 부인, 기원을 위한 입산 과정에서 동학군의 용장 김개주와의 불륜으로 태어나게 되는 환이, 이렇게 갈등의 구조가 시작되는 소설(토지)의 발단 부분이라든가, 이 소설의 메인 캐릭터인 '서희'의 빈번한 절출입등 사건의 발단과 연결고리를 산사의 설정으로 구성하고 있는 점은 소설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 소설의 전편에 흐르고 있는 생명 존중 사상이다. 이 사상은 동학 혁명의 민간 신앙, 그리고 우리민족의 범신론적 사머니즘과 깊은 관련이 있지만, 불교의 인간 존중사상, 즉 인본주의적인 사상에 그 뿌리를 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추방된 현실에 뿌리를 묻고 낙원을 건설하여야 하는 질긴 민초들의 생명 의식이 불교의 인본주의 사상에서 기인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모든 만물에 부처 성질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모든 만물의 생명성 존중에 이 소설의 사상적 근간이 있음을 우리는 환기해도 좋을 것이다.

유 한 근

〈문학평론가〉

인생 여든 해, 시 예순 해
2일 서정주시인 팔순 축하연
세미나·시낭송등 다채



◇서정주시인

인생 여든 해 시 예순 해.

미당 서정주 시인의 팔순 축하연이 12월2일 오후 5시30분부터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린다.

동국문학인회(회장 홍기삼)와 동국대학교 총동창회(회장 황명수)가 마련하는 이 자리는 세미나와 축하연으로 진행된다.

「미당 서정주 시의 재조명」을 주제로 열릴 이날 세미나에서는 오세영(서울대)교수가 「미당시의 영원과 현실」을 이승훈(한양대)교수가 「서정주의 초기시에 나타난 미적 특성」을 황현산(고려대)교수가 「서정주 농경사회의 모더니즘」을 윤재웅(동국대)교수가 「바람과 풍류」를 각각 발표한다. 발표에 이어 홍신선(수원대) 강우식(성균관대) 박상천(한양대) 박혜경(동국대) 교수등이 질의와 토론 시간도 갖는다.

이어지는 축하연에서는 시인 박제천씨가 「시로 읽는 인생 여든 해」를 발표하고 미당 시인의 대표시 가운데 「자화상」 「귀촉도」 「무등을 보며」등을 골라 손숙씨(연극인)등 성우, 연예인 이 낭송한다. 또한 안숙선씨의 판소리와 이길주씨의 춤, 송창식씨의 노래와 박재삼씨의 「미당송시」등도 마련된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참가자들에게 논문집 〈미당 서정주연구〉(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편 1994)를 증정한다. 회비는 3만원이다.

불교문화의 밤 개최
극단「바람」극장 건립기금 마련위해

18일, 중소기업회관

불교문화예술극장 건립 기금 조성을 위한 '불교문화의 밤'이 12월 18일 오후 6시 30분여의도 중소기업회관 10층에서 열린다.

불교극단 「바람」이 개최하는 이날 행사는 불교예술의 전문 인력을 배출함과 동시에 모든 문화예술 행사를 치뤄낼 수 있는 불교대중문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다.

개그맨 전유성씨의 사회로 진행될 이날 '불교문화의 밤'은 2부에서 육당선생의 국악, 승무, 신신범의 6명이 열연하는 연극 사문의 모(母)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또, 3부에서는 가수 송춘희씨와 김원모씨의 아코디언 연주도 공연된다.

제2기 합창단원모집
불교소년소녀합창단

불교교육연구원(원장 황학현)부설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이 제2기 합창단원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국민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의 변성기 이전의 소년·소녀로 12월 10일 오후2시 본원에서 갖는다.

모집마감은 12월 10일

〈문의:02-723-1525〉

이웃과 나눔의 기쁨을
맑고 향기롭게 공연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본부는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음악회 "어려운 이웃과 나눔의 기쁨을… "공연을 지난 28일 부산시민회관에서 가졌다.

이날 음악회에는 회주 법정스님의 「나눔의 기쁨」에 대한 법문과 국악인 김영동, 작곡가 노영심, 가수 김광석씨가 출연해 맑고 향기로운 삶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음악을 들려줬다.

불교시 낭송회
2일 해동문학회

해동문학회는 12월2일 오후6시 중구문화회관에서 제2회 불교시 낭송회를 갖는다.

〈문의:730-6924〉

◇기사넘쳐「물심사심」쉽니다.

구독신청:737-8881



1,600년 한민족 불교문화의 짙은 향기가
빼어난 영상과 평이한 해설,
감영동 명상음악의 깊이 있는 선율로
어울어진 한편의 감동시!!

정가 : 20,000원

山寺의 향기

불자들의 오랜 궁금증을 풀어줄 바로 그 비디오!!
사찰의 모든 것이 비디오로 나왔습니다.

사찰이란 어떤 곳인가.
일주문·천왕문·금강문 등에는 무슨 뜻이 있고,
대웅전·적광전·극락전은 어떤 법당인가.
또 사찰에 모셔져 있는 수많은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어떤 분들이며, 어떻게 모셔야 하나.
오랜 동안 불교를 신행해온 신자들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사찰의 모든 것을
한 편의 비디오로 쉽게 배운다.

주요 수록내용

일주문, 천왕문, 금강문 등 산문의 의미
법고, 목어, 운판, 범종 등 주요 법기
법당 내에서 지켜야 할 기본 예절
사원 내 주요 전각과 불·보살상
강원과 선원에서 생활하는 스님들의 수행과정 등

대정프로덕션 DAE JEONG FILM PRODUCTION
서울·중구 을지로 3가 302-2 승팔BD 601호
구입문의 : ☎(02) 275-9459 · 265-9458

선암사 도서관 설립 추진

학인스님 중심, 연구 면학 도량 기대

태고총림 선암사 강원의 학인 스님들을 주축으로 신앙 교리연구의 저변확대 및 면학분위기 일신을 위한 선암사 도서관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사찰 도서관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달전부터 도서관 설립 모연에 들어간 선암사 강원 학인스님들은 결제기간 이전에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강원 복도에 서가를 꾸며 결제기간동안 사용키로 했다.

이에대해 선암사 도서관 설립을 적극 추진해온 성공스님은 "해제와 동시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모연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찰 도서관은 학인스님들의 공부에 도움을 줄 뿐아니라 신도들과 사찰을 찾는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불교 만남의 장소 역할도 함께 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융사 국제총림 개산 법회

각종단 외국고승등 3천명 참석

두타산 원융사 국제총림(법주 석법흥)은 지난 29일 오전 11시 원융사에서 두타산 구국증찰 원융사 국제총림 개산대법회를 봉행했다.

원융사 개산 대법회에는 각 종단 종정 및 총무원장, 해외 불교국 고승, 국회정각회 국회의원, 각 정당 요인, 각 기관장 등 약 3천여명이 참석했다.

원융사의 주지 법흥스님은 시대적 방향감각을 제시하는 불교중흥운동을 적극 전개하며 모든 인간들이 본래 지닌 근본적 힘을 발원하여 참된 대자유인을 양성하고자 원융사 국제총림을 개산했다고 밝혔다.

21세기 대비 종단발전 논의

태고종 69회 종회, 각종 법안도 개정

태고종(총무원장 서봉)은 제69회 정기 중앙종회를 지난29, 30일 양일간 태고종 총무원 중앙불교회관 설법전에서 개최했다.

이날 종회는 95년도 종단 사업계획안, 95년도종단 세입 세출 예산안, 법인관리법, 사찰법 등의 종법 제정안과 기타 종단 현안을 주요안건 토의의 순으로 진행됐다.

태고종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중앙종회에서는 21세기의 새시대와 세계화를 대비한 진취적인 종단발전책이 논의 됐다고 전했다.

천태종 재가 불자 동안거

7일부터 한달동안

대한불교 천태종(총무원장 전운덕)은 12월 7일부터 한달동안 총본산 구인사에서 동안거를 실시한다.

이번 동안거는 모두 1천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하게 되며 각 말사, 지부, 지회가 동시에 결제식을 갖는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수행에 전념하는 사부대중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매년 실시해 온 동안거는 불법의 바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하고 구경성불을 목적으로 열려왔다

천태 수행법 탐구

종도 3백50명 교육

대한불교 천태종(총무원장 전운덕)은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총본산 구인사에서 승려교육을 실시한다.

매년 여름, 겨울 2회씩 열리는 이번 승려교육은 '천태 수행법'을 주제로 이영자교수(동국대)가 강의하며 3백50여명의 스님들이 참가해 수행법의 바른 의미를 되새긴다.

후원회 현판식 가져

부산불교 텔리비전

불교 텔리비전 부산경남후원회(회장 우관수)가 지난 24일 부산시 동구 범일동 동양빌딩에서 후원회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에는 불교 텔리비전 태응스님, 범어사 주지 정관스님, 부산불교신도회장 류진수씨, 우병택 시의장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현판식은 지원스님의 집전으로 삼귀의례, 결과보고 및 현황설명, 위촉패전달,축사, 사홍서원순으로 진행됐다.

진리의 전화
부처님 품안 (인생 상담)
따뜻한 가정 (교리 상담)
구룡사 부설 인생 상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 지혜의 문이 있습니다. 진리의 전화가 있습니다.
상담전화 (02) 579-3033

군포교 법당문 넓히기 활발

30일 군승의 날, 제도·특별교구화 주제 세미나



◇군포교의 실무를 맡은 군승들의 활동영역 넓히기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69년에 설립된 최초의 군법당 불이사.

올해로 출범 26주년을 맞는 육해공군 군승단이 여전히 '군승의 절대부족' '종교별 성직자 불균형' 등 제도적 문제를 안고 있어 시급한 개선책이 요망되고 있다.

포교의 황금어장으로 꼽히는 군포교에 있어 타종교보다 20년 늦은 지난 68년에 출발한 군승단은 26년간 2백5십여개의 법당건립과 1백2십여명의 전역법사와 1백여명의 현역군승을 탄생시켜 왔으나 아직까지 군포교의 각 분야에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군승단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군 전체 인구에 비한 군승의 절대부족, 각 종교별 성직자 분포에서의 불균형등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관련 군승단은 30일 제26회 군승의 날을 맞아 기념법회와 제도개선과 군승특별교구 제정등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군승의 자질향상과 군승의 증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군포교가 활성화 되지 못한 것은 일차적으로 군승법사와 군법당수의 절대부족에 있다. 기독교와 비교해 보면 군종장교의 수는 6:1, 시설수는 8:1로써 매우 빈약한 현실이다. 개인신자관리의 측면에서도 군법사 1인이 상대하는 신도수는 약2만여명이다. 그러다 보니 한번도 법사를 보지 못하고 제대하는 수도 상당수인 실정이다. 이와 관련 군승단은 지난 7월초 개혁군승단을 출범, 이들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 또는 정부차원의 무게있는 지원이 없이는 현재 군승단이 안고 있는 분제점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군승의 위상정립에 있어서도 종단승가로써 본연의 수행자상이 정립되야 하며 이에따른 제도적으로 뒷받침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역법사의 효율적관리의 문제도 이대로는 안된다는 여론이 높다. 전역후에도 종단에서 수용을 강화해 종단의 포교사로써 공식적인 지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타종교의 경우 군선교를 전담하는 독립기구를 갖추고 있어 군종교와 교단간의 교량적 역할을 수행케 함으로써 군선교 활동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반면 불교의경우 군승단 교무부에서 이를 대행할 뿐 군포교을 위한 전담기구가 유독 전무한 상황이다.

때문에 군승단은 이런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포교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군승특별교구를 설립하여 종단의 정책적인 관리하에 군포교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승단의 기본 역할은 군의 정신전력 강화로 꼽히고 있다.아울러 군포교는 종단의 중요한 포교거점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군복무자의 신앙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종교활동, 인격지도 및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하는 교육활동, 군생활 적응력배양 및 복무의욕을 고취 시키는 선도활동등을 이끌 군승의 역할은 제도적 개선을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를위해종단과 불자 그리고 군당국의 보다 폭넓은 관심과 지원이 필수요건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김중근 기자〉



□신임 군승단장 강남석 법사

"내실다지며 수행·포교 할 터"

"지난날의 모든 허물을 자자와 포살을 통해 대중앞에 참회하고 화합하여 종단개혁과 더불어 군승단도 의식 개혁을 통해 군승이념 정립, 군승계율정립, 군승강령제정, 포교와 수행에 정진하는 풍토조성, 종단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군승교구 설치 추진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군승단의 실무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제21대 신임 군승단장 강남석 법사는 취임소감을 이렇게 말한다.

"군은 포교의 황금어장인 만큼 군포교의 진흥이 바로 한국불교 발전의 초석이 된다"고 강조하는 강남석 신임단장은 "군승 증원을 위해 중앙승가대 학인들도 군승으로 권성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군이라는 특수한 여건속에서도 26년동안 성장해 오는 동안 전후방 각지에서 애써주신 선 후배 법사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강남석 신임단장은 내일의 군승단은 수행하는 군승,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미래지향적인 군승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인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인사기준 확립과 인사의 공개적 운영을 현실화 하고 단기구의 민주적, 합리적 운영을 통해 군승단의 질을 향상시키고 각종 교육을 강화하여 법사 후보생 및 현역 군승의 안거수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강단장은 76년 동국대 승가학과를 졸업하고 77년 해군 군종장교로 임관, 14년동안 군포교의 일선에서 전력하고 있다.



◇르완다 난민돕기 '자비의 종' 저금통

"르완다 난민에 자비 손길을"

「자비의 종」 저금통 10만개 보급

르완다 난민돕기 저금통 '자비의 종'이 제작 됐다. 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회장 김재일)는 서울신탁은행과 공동으로 자비의 종 10만개를 제작, 지난26일 서울조계사 불교회관에서 3백50여 사찰과 서울신탁은행 3백10개 점포에 저금통을 보급하는 전달식을 거행 했다. 이번에 제작된 자비의 종은 높이 8cm 너비 7cm의 범종형태로 르완다 난민돕기 성금모금 동참자들에게 무료로 보급한다.

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는 1차로 르완다 난민돕기 사업을 펼치고 접차 대상을 확대해 세계 기아돕기기구에 가입, 기아와 빈곤으로 고통받는 제3세계에 자비의 손길을 펼칠 예정이다.

난민돕기 성금모금에 동참을 원하는 불자는 전국의 서울신탁은행 점포 또는 한국불교시민상담실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02-722-0108〉

화엄 산림 대법회

3일부터 통도사

통도사(주지 지은)는 화엄산림 대법회를 12월3일부터 매일 오전 10시 설법전에서 갖는다.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증득한 진리의 실상을 선설한 대승법문으로 지은, 성공, 호명, 종범스님등 12명의 스님이 이번 법회에서 화엄법문을 설한다.

장상문 거사 2주기

지난 21일 추모 법회

고 장상문거사 2주기 추모법회가 지난 21일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유족과 교계인사 1백여명이 모인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추모법회는 법안스님의 정혼, 착어에 이어 고 장상문거사의 육성녹음을 근청하는 등 시종일관 숙연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법흥스님은 법어를 통해 "우리 사부대중이 중원거사를 생각하는 것은 법이요, 중원거사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열이다"라며 고인을 추모했다.

화엄 강연장의 청중들

목탁소리

정 성 운
〈취재2부 기자〉

지난 22일 오후7시 조계사 문화교육관. 2백여석의 좌석은 청중들로 메워졌고, 주최측에서 준비한 보조의자까지도 모자라 연단 앞까지 사람들이 몰려 들었다.

초겨울의 쌀쌀한 날씨임에도 3백여명에 이르는 사람들은 강연회가 어서 시작되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화엄사상대강연회.'

도서출판 민족사가 80화엄 완역.출간을 기념해 역자인 무비스님과 '소설 화엄경'의 저자 고은 시인을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한 것이다.

불교관계 학술행사나 강연회에 3백여명의 청중이 모인 것은 근래에 없는 일이다. 행사장은 언제나 썰렁했다. 주최측과 발표지 토론자들이 참석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경우도 많이 보아왔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불교계 토론·강연문화의 척박함을 한탄하는가 하면, 심지어 그런 문화 자체를 거론할 풍토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한숨짓기도 했다.

지난 80년대는 시국강연회가 활발하게 열린 시기였다. 함석헌 백기완 계훈제씨 등 재야인사들의 반정부강연회였으며, 수천명의 청중이 모였다. 강연회가 끝나면 청중은 시위대로 변하기 일쑤였다. 독재정권에 대한 분노와 민주주의를 향한 갈망의 표현이었다.

이날 화엄사상 강연회에 참석한 3백여명의 눈과 귀는 어디로 쏠린 것일까. 2시간여 동안 진행된 강연회에 끝까지 참석한 조성호씨(35.회사원)는 "살아가면서 뭔가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아 강연회에 참석했다"며 "새로운 세계에 대한 눈뜸을 얻고 싶어 강연장을 찾았다"고 말했다. 삶의 지표를 불교에서 찾고자 하는 반증이라면 지나친 속단일까.

불교는 그동안 그침없는 종단분규로 세인의 지탄을 받아왔고, 의기소침해 있었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무비스님은 이날 '화엄경이란 무엇인가' 주제의 강연 서두에서 "인류사 최대의 사건은 부처님이 출현이며, 최고의 결작은 그 깨달음을 설한 '화엄경'"이라고 설파했다. 꼭 무비스님의 언급이 아니어도 불교는 더없는 보배를 갖고 있다.

기대와 우려를 자아냈던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도 끝났다. 많은 사람들은 불교를 통해 삶의 풍요를 얻고자 한다. 불교인의 할 일이 그만큼 많이 있음을 이날 강연회에 모여든 청중이 말해주고 있다.

영험높은 병풍—— 계문대사의 16존자 수행상 탱화

16나한수행도 10폭 공단병풍



큰 깨달음으로 부처님의 음성을 직접듣고 정법을 수호하도록 위촉받은 16나한님들의 각기 다른 독특한 수행 모습을 나타낸 중국 최고의 화사 계문대사의 탱화를 공단에 금화로 옮겨 10폭 병풍으로 조성하여 수행하는 모든 불자님들에게 나한님의 영험을 전하고자 합니다.

■ 작품해설
• 전 면 : 16나한 수행도(금화)
• 후 면 : 500나한본기(금서)

귀의삼보 하옵고
삼전불사는 포교의 一念으로 우리의 근본이신 석가세존일대기(팔상록)와 부모은중경 병풍을 조성하여 각사찰은 물론 불자님 가정에 모실 수 있도록 전하여 왔습니다. 이어 오래도록 준비하여온 16나한 병풍을 출품하여 다시 찾아 뵙는 일이 부처님께 공양드리는 길이라 믿고 있사오니 불자님의 많은 동참있으시길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 작품규격:높이 5.5尺 폭 15尺
■ 표구재질:앞뒤 고급공단 金子畵·畫스기원목(수입재)
■ 포교특가 ₩420,000(현금 및 은행신용카드)
■ 장기분할가격
인수시 ₩60,000
매 월 ₩50,000×8회분납
전화주시면 직접 전하여 드립니다.

한국불교전통불화공예연구원
三 田 佛 事 (조계사후문)
■문의처 : (02)732-6095~6

포교 지침서가 없다

시대 변화따른 과학적 방법론 제시돼야
전담기구 개설 전문연구원 양성등 시급

정성운 기자

포교는 종교의 생명이라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정도로 그 중요성은 거듭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일선 포교사는 물론 포교에 관심있는 불자들을 위한 지침서가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포교는 어느 종단이든지 중요성의 차이는 있으나 가장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로 여기고 있다. 조계종은 1962년 통합종단 출범시 포교를 역경 도제양성과 함께 종단의 3대사업으로 설정했다. 태고종은 대중교화종단임을 천명, 포교를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불교인의 숫자는 1960년 86만명에서 30년 후인 90년에는 2천만명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85년 인구센서스 통계는 8백만명). 같은 기간 개신교는 1백4만명에서 1천30만명으로, 천주교는 39만명에서 2백40만명으로 증가했다.

각 종교별 신도수를 비교해보면 불교가 다른 종교에 앞서고 있음은 사실이다. 불교인들의 노력의 결과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상황은 항상 변화를 거듭한다. 인구의 절반이 30대 이하의 연령층이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고학력이 또한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여기에 다종교 현상, 서구적 합리주의에 영증을 느끼며 종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부정적이든 긍적적이든 이같은 상황의 변화는 불교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때 포교에 대한 개론서, 지침서가 필요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재 포교지침서라 불릴 불서는 88년 도서출판 여래에서 펴낸 「포교사와 포교법」이 유일하다. 이마저도 현재는 절판된 상태다. 이밖에 대상과 방법을 세분화한 「어린이불교학교 지침서」(성일 지음, 불광) 「놀이 놀이 놀이」(법현 지음,대흥기획) 「청소년 수련지침서」(중앙불교교육원), 그리고 성인 수계과정과 기초과정을 담은 「이 기쁜 만남」(김재영,불광) 「나는 빛이요, 불멸이라」(〃)가 고작이다. 조계종의 포교사 연수회 등의 자료집이 있기는 하지만 자료집이어서 내용의 부실함은 물론 대중적인 보급에는 한계가 있다.

군법사를 거쳐 현재 서울 신길동 통해사에서 활동하는 이학주 법사는 "예를 들어, 가정방문을 한다면 목적은 무엇이고 타종교의 심방과 어떻게 다른가 라는 학문적 실천적 접근이 있는 포교학 자료가 필요하다"며 일선에서 활동하는 많은 포교사들은 탄탄한 이론으로보다는 느낌으로 일하고 있음을 개탄했다.

종합적인 포교방법을 서술한 포교론도 필요하지만 군대 어린이 교도소 장애인 영상매체 등 대상과 교재를 달리하는 포교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즉 "팔만사천의 부처님 법문이 방편이라면, 쓰임새로서의 전략과 방법이 개발되어야만 새로운 사회환경에 대응 효율적인 포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일하게 포교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동방불교대학의 홍성북 교학처장은 "마땅한 교재가 없어 개신교의 주일학교 교재를 참고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문을 들려주는 것이 곧 포교라는 생각이 지침서 한 권 내지 못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출판사에도 원인이 있다고 홍처장은 지적한다. 포교학 강의록을 정리해 출판을 의뢰했으나, 출판사에서 '영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출판을 거절하더라는 것이다.

출판사의 입장에서는, 포교에 대한 낮은 관심이 출판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으며, 또 '좋은 원고가 없다'는 것이 직접적인 이유라고 밝힌다.

타종교의 경우, 원불교는 원광대출판부에서 이미 「포교원리와 방법」이라는 책을 펴냈다. 개신교는 연구와 출판이 가장 활발하다. 학문으로서 선교학 전도학이 일찍이 자리잡았으며, 개론서만 해도 「선교학」「한국선교의 이론과 실제」등 10여종에 이른다. 이밖에도 「알콜중독자들을 위한 선교전략」「군선교신학」등 대상을 세분화한 연구결과의 출판까지 합하면 1백30여종에 이른다.

일선 포교사들은 포교지침서의 활발한 출판을 위해서는 종단 또는 종립학교, 비영리 불교단체에 종합적으로 포교를 연구, 출판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해 포교사들을 뒷받침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 장내순 보살은 평소 효성스님으로부터 이타행의 소중함을 배웠다며 재산 기증의 공덕을 효성스님에게로 돌렸다.

평생모은 12억재산 동국대에 희사한 장내순 보살

자비의 땅에 내일의 희망 심어

지난 18일 평생모은 12억원 상당의 전재산을 종립동국대에 희사한 장내순보살(71)의 보살행은 장보살이 평소 다니던 수월암의 주지 효성스님과 30년간 이어진 인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스님과 재가신도간의 귀감이 되고있다.

장보살이 동국대에 희사한 재산은 충남 아산군 영인면 신문리 소재 임야 4천평.

이땅은 20년전 남편과 사별한 뒤 보따리 옷장사와 야채행상 생선장사 밥장사 등 20여가지 궂은 일을 하면서 4차례에 걸쳐 구입한 땅으로 현재 살고있는 12평 연립주택을 제외한 전재산에 해당한다.

"원래 절을 짓거나 양노원을 지어 불우한 이웃을 위해 사용하려고 구입했는데 혼자 힘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몸도 아프고 하여 누군가가 나의 뜻을 이어가길 발원했는데 스님이 좋은 인연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장보살은 최근 갑자기 건강이 악화돼 효성스님을 찾아 상의를 했다. 평소 정신적 지주로 생각하며 따르던 스님이기에 수십년간 발원한 뜻이 어긋나지 않을 것이란 확신 때문이었다.

"동국대를 추천했습니다. 집안식구나 수월암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장보살님의 고귀한 정신을 젊은 세대에게 전하고 더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효성스님은 조심스럽게 장보살에게 제안했다. 장보살은 스님의 의견에 즉각 결단을 내렸다. 곧바로 동국대에 뜻을 비쳤고 선뜻 전재산을 희사했다.

효성스님과 장보살의 만남은 30여년전, 갓 출가한 스님과 30년가량 연배의 신도사이였다. 작은 암자에 불과한 사찰증창에 열성이던 스님과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장보살은 부처님을 중심으로 서로가 흐트러짐없이 살아왔다.

10여년전,외동딸의 출가와 함께 건강이 나빠진 장보살은 하던 일을 중단하고 혼자 사는 몸이 되었다. 이때부터 효성스님은 재를 올리고 남은 과일과 떡등을 갖고서 명절이나 생일때면 어김없이 장보살의 집을 찾았다.

이렇게 맺어진 스님과 보살과의 인연이 어수선한 사회에서 보살행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부처님은 보이지 않지만 스님은 눈에 보이는 부처님입니다. 이는 스님과 신도사이에 믿음이 있었을 때 가능합니다. 요즈음 불자들을 보면 단결이 부족한데 이또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자들간의 신용도 소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집에서 매일 아침 저녁 예불과 사시기도를 올리며 정진에 게으르지 않는 장보살은 자주 사찰을 찾지 못하지만 스님과 나누는 정은 변함이 없었다.

〈이준엽 기자〉

승가대 비구니 수행관 봉불식·수계법회 봉행

중앙승가대 비구니 수행관 봉불식 및 보살계 수계법회가 12월12일 신축 비구니 수행관 3층 큰법당에서 봉행된다.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연건평 7백20평의 수행관은 완공 단계에 이르러 준공식에 앞서 석가여래 부처님과 관세음보살을 모시는 봉불식을 거행한다.

봉불식과 함께 부처님을 모시는 큰 공덕으로 삼세의 악업을 소멸하고 선망부모의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보살계 수계법회를 고산스님(쌍계사 주지)을 증명법사로 모시고 봉행한다.

선원빈 유고집 출판기념회 5일 출판문화회관

법보신문 편집국장을 지냈던 고 경전 선원빈거사의 유고집 「솔바람 소리를 듣던 사람 선원빈」 출판기념회가 12월 5일 오후 6시 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린다 출판기념회는 헌향과 유고집 봉정, 기념사, 가족인사, 유작시 낭송, 다과회로 진행된다. 불자사에서 펴낸 유고집에는 고인이 불교계 신문과 잡지를 통해 남긴 글들과 화창시절의 문학작품, 그를 아끼고 존경했던 선후배, 친구들의 추모의 글들이 실렸다.

불교 아동학 세미나 백유경등 연구토론

한국불교청소년 문화진흥회(회장 박용열)는 지난 26일 27일 양일간 강원 양양 낙산사에서 제1회 추계 불교아동문학 세미나를 개최했다.

첫날은 '백유경 연구'를 주제로 신현득씨(한국아동문학인협회 부회장)와 정진채씨(동화작가)가 각각 발표자와 토론자로 나섰으며 아동문학 연간집에 대한 종합합평회도 가졌다.

다음날은 한국불교청소년 문화진흥회 산하 4개단체 임원 및 회원 30여명이 건봉사와 화암사를 둘러보며 불교청소년 도서의 현안과 문제점을 토론했다.

사찰음식연, 개원 2주 1일, 육법공양행사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소장 적문)는 개원 2주년 기념행사를 12월1일 오전10시 본강당에서 갖는다.

전통사찰음식문화를 발굴, 보전하고 건강음식을 제공, 대중화에 이바지 하고자 설립된 취지를 계승하는 이날 기념행사에는 육신공양, 육법공양이 행해진다. 또한 이날 된장 고추장 장아찌류와 같은 전통사찰음식을 구입할 수 있다.

세계불교도 방콕서 평화다짐

23일 WFB 개막, 25개국서 2천여명 참석

세계 불교도간의 우의를 다지는 제19차 세계 불교도우의회(WFB)와 제10차 세계불교청년회 개막식이 지난 23일 태국 방콕의 부다만달라홀에서 개최됐다.

불교방송에 따르면 이날 개막식에서 세계 25개국 73개 지부의 대표와 관계자등 2천여명은 세계 불교도들의 화합과 평화를 다짐했다.

개막식은 태국수상을 지낸 세계불교도우의회 삼야 담마사티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쌈뎃 냐나삼다라 태국승왕이 법어를 했으며 추안 릭 파이 태국수상이 포미폰 태국국왕의 메시지를 낭독하고 참석자들을 환영했다.

개막식에 앞서 22일 세계불교도 우의회와 세계불교청년회는 임페리얼 퀸스파크 호텔에서 각각 첫 모임을 갖고 이번 회의동안 토의할 안건들을 논의 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지부 박동기회장등 30여명의 한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8일 폐막했다.



동대 비구니 기숙사 현판식

평창동 혜광사서, 30년 숙원 풀어

동국대 비구니 기숙사 현판식이 지난 19일 종로구 평창동 혜광사에서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날 현판식은 그동안의 경과보고에 이어 기숙사 마련에 헌신한 탄성총무원장에 대한 감사패 증정이 있었다. 혜광사 주지이며 동국대 비구니 기숙사 관장인 해주스님은 "30여년만에 동국대 비구니들의 기숙사가 마련돼 감회가 깊다"며 "마련에 애써주신 종단 여러분들의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수행과 학문에 열심히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비구니 기숙사 혜광사는 대지 6백여평에 임야 총 5천여평으로 지난 9월 조계종 총무원이 각진선원을 매입해 동국대 비구니회에 사용토록 했으며 대대적 보수공사를 거쳐 동국대에 재학중인 비구니 23명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대구 진각회관 기공

8층 규모 96년 완공, 법회 예식장등 활용

대한불교 진각종(통리원장 지광)에서 설립하는 '진각회관' 기공식 법회가 지난 19일 대구시 중구 대봉동 156-1에서 거행됐다. 지광통리원장 경혜 종회의장 등 종단 간부들과 대구지역 스승 및 신교도 등 2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지광 통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좋은 시설을 가지게 되어 기쁘다"며 "한마음으로 원만한 회향을 위해 단합하자"고 말했다.

이어 지광통리원장은 비롯 종단 간부들과 신교도대표, 시공건설회사인 삼룡건설 대표등이 함께 시삽했다.

'진각회관'은 대지 3백평 연건평 1천5백여평으로 지상 8층 지하2층의 초현대식 건물로서 오는 96년 4월 준공된다. 진각회관이 완공되면 종단의 각단체 사무실과 법회 장소, 전시관 대 소강당 예식장 등 도심 포교를 위한 다양한 행사장으로 쓰여질 전망이다.

"전국에 불음 전파" 불교방송후원의 밤

1일 롯데호텔

재단법인 불교방송(사장 김태호)은 '불교방송 후원의 밤'행사를 오는 12월 1일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갖는다.

이날 행사는 불교방송 설립 4주년이 지난 오늘 설립당시의 감격을 회상하고 지방국 설립으로 전국을 방송권으로 묶는 웅비의 뜻을 모으는 자리로 마련된다.

1부에서는 교계 지도자와 방송에 관심있는 신도들이 모여 특별법회를 갖고 2부에서는 불교연예인들에 의한 여흥이 베풀어질 예정이다.

이날 '불교방송 후원의 밤'의 동참금 10만원은 모두 후원기금으로 쓰이게 된다.

이런분들께 현대불교를 법공양 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읍 금남리 907중대 〈1구좌〉

▲강원도 철원군 금남면 마현리 4대대 16중대 〈2구좌〉

교도소 군부대 등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직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 현대불교를 보냅시다.

※1구좌 1만원

◇보낼곳=110-170
서울종로구 견지동 110-33
☎ (02) 737-8881

수미산 여행사는 열린 세상을 향한 불자 여러분들의 눈, 발, 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행업 등록 제358호

(주) 수미산 여행사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9 원당빌딩
전화: (02)720-3241~7 / 팩스: (02)720-3248

인도 관광성(후원)

효도 대잔치

부모님들의 회갑이나 고희를 맞이하신 분들을 위하여 불교의 나라 태국에서 피로연을 열어드리며 아울러 관광도 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회 비:1인당 55만원
▲제 1 차:많은 불자님들의 후원으로 성공리에 제1차 행사를 마쳤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 2 차:1994년 12월 13일~12월 17일
▲접수마감:1994년 12월 5일

日 程 表

일자	지역	일 정
제1일	서 울	김포공항 2(신)청사 2층 외환은행 집결
	방 콕	김포공항 출발,방콕 돈무앙 국제공학 도착
	파 타 야	파타야로 이동,호텔 투숙
제2일	파 타 야	조식 후 산호섬 관광 및 해변에서 휴식 오후 회갑 피로연 행사 동참
제3일	파 타 야	농눅빌리지에서 민속쇼,코끼리쇼 관람
	방 콕	방콕으로 귀환,황금불 사원 순례
제4일	방 콕	방콕 시내관광(수상시장,새벽의 사원,왕궁,에메랄드 사원 등)
제5일	방 콕	방콕 출발 서울 김포 국제공항 도착,해산 *****감사합니다*****

* 상기일정은 출발당시의 항공스케쥴/현지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인도 성지 순례를 어렵다고만 생각하십니까?

그럼, 지금 수미산 여행사로 문의하십시오.
풍부한 경험과 친절한 안내가
여러분을 따뜻하게 모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인도라하더라도
저희 수미산과 함께라면
만족하실 것입니다.

※12월 23일 인도성지순례(10박 11일) 회비 178만원

여행번호	방문지	여 행 일 정	요금	출발일 11월	12월	'95.1	2월
INA-01	인도 8일	불교 4대성지	178만원	12월 23일			
INA-02	인도 30일	인도전역.(배낭여행 및 자유여행 가능)	195만원				
INA-03	인도12일	방콕-델리-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라지기르-파트나-바이살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바람푸르)-럭나우-델리-방콕	200만원 (155만)	8	13	10	28 3/7
INA-04	인도15일	방콕-델리-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나지기르-파트나-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산치-아잔타-엘로라-봄베이	230만원 (200만)	18	2	6	10 3/3
INA-05	인도 17일	방콕-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지기르-나란다-파트나-바이살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럭나우-아그라-보팔-산치-잘가온-아잔타-오랑가바드-엘로라-맘마드-봄베이-방콕	260만원 (220만)	22	6	3	7
INA-06	인도 22일	방콕-카투만두-룸비니-사나울리-기원정사-쿠시나가르-바이살리-파트나-나란다-라지기르-보드가야-바라나시-상카시아-아그라-델리-보팔-산치-잘가온-아잔타-오랑가바드-엘로라-맘마드-봄베이-콜롬보-아루라다푸라-폴로나누와-시기리아-캔디-방콕-아유타야-홍콩-마카오	320만원 (270만)		18 25		5 19

* 상기 일정중 단체 출발시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 상기 코스이외에도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에리후 건강칼럼 <7>

마 음

가불해 앉는 사람

가불이란 말은 나중에 지급받아야 할 돈을 미리 당겨서 그 일부나 전부를 지급받는 것을 뜻한다. 우리가 경제가 어려우면 회사에서 미리 자신의 돈을 가불할 때가 많은 데 병도 가불해서 앓는 사람들이 있다. 병을 가불한다니 무슨 말인가 싶다. "선생님 꼭 죽을것 같아요."

인생은 나서 늙으면 언젠가는 죽게 마련이다. 지금까지 불변하는 진리가 있다면 인생은 나서 죽는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런 죽음은 누구인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는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곧 죽지 않을까" 신경증에 걸려 늘 불안

그런 두려움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만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자세로 사는 이가 있는가 하면, 지금 금방이라도 죽음이 닥칠 것 같은 불안에 싸잡혀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사실 죽음이 자신에겐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지금 금방 죽을 것 같다고 불안해 하는 사람이나 따지고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다를 뿐 내면적인 뿌리는 같은 것이다. 그래서 정신의학에서는 이런 죽음과 같은, 누구나 경험해야 하는 결과에 대한 불안과 같은 것은 누구에게나 있고 또 누구에게나 불안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불안이라고도 부른다.

신경이 과민하여 지금 곧 죽을 것 같은 불안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미리 앞당겨 가불하여 걱정하고 불안해 하는 사람이다. 내가 직접 치료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중학교 때부터 죽음이 두려워 공부도 잘 하지 못하고 일상적인 생활의 적응도 어려웠던 학생이 하나 있었는 데 중년이 된 지금도 그 죽음의 불안 때문에 항상 괴로워 하고 있다.

죽음이 닥쳐 올 때를 해서 불안하다면 몰라도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죽음을 걱정하고 살았으니 매년 가불하고 살아온 셈이다.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은 그가 미리 아는 죽음이다."란 말을 남긴 학자가 있는 데 이는 아마 병들어 죽는 것을 뜻한다. 그렇지 않고 늙어서 죽는 일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일이란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테니 따지자면 누구나 자신의 죽음을 알고 살아간다는 의미도 된다.

이 죽음의 시기를 그럴만한 의학적 이유도 없이 지금 당장이라거나 가까운 장래에 하고 지레 짐작해서 두려움의 걱정을 당겨서 하는 사람을 노이로제라거나 신경증 또는 불안신경증 등의 이름으로 부른다.

불안이란 막연하게 자신에게 잘못되어 불행이 닥칠 것 같은 막연한 느낌인 데 그 근원은 대개 죽음에 대한 불안이다.

계절 없는 세상 ①

주부신행담



저의 어머니는 어린 6남매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연히 맏이인 저는 누나면서 어머니 역할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괴롭고 슬플 때마다 취미삼아 양초공예에 매달렸습니다. 스스로 몸을 태워 불을 밝히는 양초. 저는 많은 교훈을 얻는 것 같았고 제가 만든 양초를 들고 불전에 나가 돌아가신 어머님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찰을 찾아 다녔고 여러 스님들을 친견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저의 시련은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그치기는 커녕 점점 더 모집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외로운 촛불처럼 지쳐버린 저에게 광소 존경하던 한 스님이 서울에 오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나는 스님을 뵈러 갔습니다.

그 스님은 말씀 하셨습니다.

"김보살 내가 한마음 선원의 대행스님을 만나러 가는 데 같이 갑시다. 훌륭한 분이시지요."

나는 그 스님을 따라 나섰고, 대행스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행스님은 나를 보시더니 따스한 손길로 잡아 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가와요" 하시면서 잡으신 손에 지그시 힘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강한 전류에 감전이 된 것처럼 온몸이 떨리면서 영원히 못 볼 어머니를 다시 만난 것처럼 기쁨과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 숫아 그만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속으로 실컷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오랜 고난의 세월 동안 외롭게 헤매던 앙금이 풀리는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때부터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마치 이제 막 태어난 아기의 마음으로 한마음의 첫 걸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촛불은 마음의 자명등이니 안으로 밝혀야 한다고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의 '습' 은 '행'으로 바꾸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님께서는 항상 자비심으로 때로는 예를 들어 가면서 이해가 가도록 알아들을 때까지 보살펴 주시었습니다. 얽어 붙었던 저의 가슴을 스님의 마음으로 녹아 흐르게 하시었고, 감흥의 진한 눈물을 흘리게 하시었습니다.

촛불은 마음의 자명등이니 안으로 밝혀야 한다고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의 '습' 은 '행'으로 바꾸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이제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오기 10년. 그 동안에 가슴 속에 새겨진 사연들을 어찌 글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한 두가지 특별히 기억되는 이야기를 전할까 합니다.

한마음의 주인공 찾기 3년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법당에 올라가서 삼배를 올렸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저는 부처님께 기구했습니다. 부처님 부처님 내 자식 내 남편 잘 되게 해 주세요. 그러나 그렇게 기구하는 저를 보는 순간 아, 나는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부처님 잘못 살아 왔습니다. 용서하세요. 용서를 빕니다. 하는 말이 제 입에서 흘러 나왔습니다. 입체의 마음이 네 한마음인데 하는 생각을, 말로만 듣던 그 마음이 어느새 제 마음 속에 자리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는 순간 내 가슴이 일시에 밝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것 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꿈을 꾸어 다니는 꿈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꿈을 꾸면 꿈이 현실처럼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나쁜 꿈을 꾸면 일진이 안 좋을 거라고 믿고 외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분 좋은 꿈을 꾸면 신나는 날이었지요. 저는 스님께 꿈에 대해서 여쭈 보았습니다.

스님께서는 나직한 목소리로 말씀 하셨습니다.

"꿈을 꾼 자는 누구이며 꿈을 말하는 자는 누구인가. 현실도 꿈이고 꿈도 현실인 거야. 나쁜 꿈도 좋게 생각하고 주인공을 믿고 말기면 한 찰라에 돌아가는 거야" 하시고는, "아직도 문지방을 못 넘는구나. 넘을 때가 되었는데 …."

김 영 숙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꿈을 꾼자는 누구이며 꿈을 말 하는 자는 누구인가"

선생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시갈라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동·서·남·북·상·하의 6방을 향해 합장예배하는 것을 보시고 그런 식의 단순한 예배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하신다.

그리하여 동방을 부모, 남방을 스승, 서방을 아내와 자식, 북방을 친구, 하방을 하인이나 고용인, 상방을 사문에 각각 할당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면서, 세속적 인간관계의 이상을 설하신다. 이제 경전속에 더 깊이 들어가 가르침에 귀기울여 보기로 한다.

(편집자 주)

Thus have I heard:- The Exalted One was once staying near Rājagaha in the Bamboo Wood at the Squirrels' Feedingground.

이렇게 내가 들었다. 어느때 부처님께서 왕사성 근처 죽림정사 다람쥐 사육장에 계셨다.

Now at this time young Sigāla, a householder's son, rising betimes, went forth

영어로 배우는 경전 선생경 ①

from Rājagaha, and with wet hair and wet garments and clasped hands uplifted, paid worship to the several quarters of earth and sky -to the east, south, west, and north, to the nadir and the zenith.

이때 장자의 아들로 시갈라라는 젊은이가 일찍 일어나 목사성으로부터 와서는 머리와 옷이 젖은 채로 합장한 손을 들어올려 하늘과 땅 의 여러 방위를 향해 예배하였다: 즉, 동방, 남방, 서방, 북방, 하방, 상방으로.

'Rājagaha 왕사성이다.
'Bamboo wood 대나무숲 즉 죽림정사
'quarter 나침반의 4방위의 하나, 방위
'betimes 이른(시간)
'clasp 고정시키다, 꼭 쥐다의 뜻으로 여기서는 합장하다로 번역
'nadir 밑바닥, (천구상의) 천저, 여기서는 하방(下方)
'zenith 천정, 정점, 여기서는 상방(上方)

〈박 미 영 기자〉

"편안함이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랜드 환타지아로 오십시오.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듯
아름다운 꿈이 펼쳐집니다.
행복한 내일을 여는 침대



그랜드 침대


G-755


G-102


G-373

그랜드 침대, 이래서 좋습니다

- 침대 전문 회사 20여년간의 전통과 기술을 바탕으로 좋은 침대를 위한 한길만을 고집해 온 전문 업체입니다.
- 좋은 품질, 편안한 가격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 제품에 25mm 강선을 사용한 하트 스프링 공법으로 제작되어 가장 좋은 품질의 침대를 생산하고 있으며, 또한 합리적인 가격대로서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투 매트리스 사용 각기 다른 2개의 매트리스 사용으로 압력을 때로 견딜 수 있으며, 수명이 2.5배 연장되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 다양한 모델 전문 회사만이 가능한 다양한 모델을 갖추고 있으며 한 모델마다 선택의 폭이 넓어 더욱 자유롭게 개성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

서울지역
등촌동 644-2127 응암동 384-4800 화곡동 692-7038 화곡동 690-8571 북산동 855-4148 구로구 862-6066 시흥동 803-0027 답십리 244-0937 신림동 862-0542 신림동 873-2180 목가동 304-9989 강천동 334-0752
청량리 966-5608 미아리 984-2341 미아리 927-0072 장 동 995-5671 상양동 986-4369 수유리 989-1761 신길동 849-3495 대림동 849-9399 면목동 432-4004 신당동 234-5755 신 촌 334-8515 용현동 662-1991
부이동 3461-5606 명일동 474-2745

경기지역
광 양 688-8806 송우리 541-1452 이 석 593-3223 수 원 33-8021 성 남 734-2820 의 왕 52-9520 안 양 49-8979
군 포 56-6582 능 곡 971-5252 의정부 43-5109 벽 제 62-9922 송 탄 63-6516 오 산 73-6689 용대리 284-0222 용 인 35-7545 과 천 502-5764 일 산 63-5981 일 산 975-2630 하 남 793-3467

※대리점 모집중

인천지역
석남동 573-7472 석남동 578-8338 계산동 541-8833 부 평 503-9803 검 동 764-2030
고 양 381-4998 의 왕 59-4891
주 안 420-0281 주 안 862-8080 주 안 873-1049 주 안 865-1818 동 암 424-4883 구월동 427-8914 간석동 427-9857 간석동 425-7633 연수동 814-4164

강원영업소
속 초 635-5246

전남지역
광 주 366-3066 광 주 369-2491 순 천 755-0156
목 포 74-5671 해 남 536-3313 여 수 63-5904

전북지역
이 리 858-1231 전 주 83-3223 군 산 42-5555 정 주 535-2803 부 안 81-1234 웰 원 55-2555

충청영업소
대 전 631-7287

대구경북영업소
칠 곡 312-3904

부산영남영업소
김 해 34-9281

꿈의 나래를 편다
그랜드침대
●본사 : 경기도 고양시 행동동 267-18
●TEL: (02) 308-1818/9, 303-7376, 372-7941

품질보증